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전도서

ECC · 시가서 · 히브리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12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전도서 1장

ECC-001 · 시가서 · 히브리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havel havalim hakkol havel*)"(1:2)라는 입김의 선언과 해·바람·강물의 순환 시(1:5-7)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tachat hashamesh*)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yitron*)"(1:3)라는 물음이 권 전체의 실험 조건으로 세워지는 — 전도서의 개막.

관찰된 사실

전도서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의 줌: 표제·선언(1~3절) → 우주 — 땅·해·바람·강·바다(4~11절) → 예루살렘 왕궁과 한 사람의 마음(12~18절). 천체 규모에서 내면 실험실로 좁혀짐.
- 큰 무대에 사람의 얼굴이 없음: 4절의 세대들은 이름 없는 행렬, 주연은 해·바람·강물.
- 소품(보이지 않는 것): 입김 — hevel의 어근 그림. 2절은 추상 명사가 아니라 다섯 번 새어 나가는 김.
- 소품(천체·물): 헛떡이며 제 뗏던 곳으로 돌아가는 해(5절), 남북을 도는 바람(6절),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강물(7절).
- 소품(몸·작업장): 족함이 없는 눈, 가득 차지 않는 귀(8절), 구부러진 것과 모자란 것 — 펴는 일과 셈하는 일의 그림(15절).
- 소재의 두 무더기: 거대하고 멈추지 않는 것들(해·바람·강물·세대) 對 작고 차지 않는 것들(눈·귀·마음·근심) — 전부 '계속되는데 차지 않는' 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havel havalim hakkol havel* — h 소리가 다섯 번 새는 발음. 단어의 뜻(입김)과 발화의 숨이 같은 일을 함.
- 5~7절의 어지러움: 동사가 돌고 돌아 듣는 이도 같이 돌. 형식이 내용을 수행함.
-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 사람의 단어가 만물에 붙는 의외성 +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라는 말의 한계 선언.
- 분노·절규 없음. 다 보고 난 관찰자의 차분한 보고서 문체("내가 보았노라") — 그 침착함이 절규보다 무거움.
- 7~8절: 차지 않는 바다 — 족하지 않은 눈 — 가득 차지 않는 귀. 밑 빠진 그릇 셋의 감각.
- 12절의 문체 경계: 3인칭의 시(4~11절)에서 1인칭 자전 보고(12~18절)로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divre Qohelet*)."
-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 왕의 직함으로 열고 근심의 격언으로 닫힘 — 왕관에서 번뇌로. 18절은 잠언과 같은 격언 형식에 반대 방향의 내용.
- 시작(1절)과 끝(18절)이 둘 다 단정문인데, 한가운데의 질문(1:3 yitron)만 답 없이 열려 있음.
- 1:2와 12:8이 같은 문장 — 권 전체가 hevel의 괄호(inclusio) 안에 있고, 1장은 그 여는 쪽.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Qohelet(유일한 화자 — 1장 전체가 그의 발화), 다윗(표제 속 이름), 세대들(dor — 이름 없이 오고 감), 이전·장래 세대(11절 — 기억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13절 단 한 번 — 수고를 '주신' 분으로), 해·바람·강물(부지런히 움직이는 자연).
- 중심 사상: 1:3 yitron — 수고를 결산한 뒤 남는 잔액이 있는가. 조건은 "해 아래에서" — 시야를 지평선 안 쪽으로 묶는 한정사이자 권 전체의 실험 조건.
- 12~18절 실험 보고 형식: 신분 — 방법 — 중간 평가("괴로운 것", "바람을 잡으려는 것") — 격언 — 자격 — 확장 실험 — 결산 격언.
- 13절의 인과: 탐구가 괴로운데 그 괴로움 자체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 묻는 일조차 주어진 일.
- 4절의 역전: 지나가는 쪽이 사람, 남는 쪽이 땅 — 무대가 배우보다 오래 삶.
- ruach의 이동: 6절 기상의 바람 → 14·17절 움켜쥐려는 은유의 바람(reut ruach). 같은 단어가 풍경에서 은유로 옮겨 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표제 — 이름이 비워진 문패.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Qohelet.
- 컷 2 (2~3절): 모토(havel havalim — 최상급의 헛됨)와 강령 질문(해 아래 수고의 yitron).
- 컷 3 (4~11절): 순환의 시 — 세대/땅(4), 해(5), 바람(6), 강물(7), 만물의 피곤과 눈·귀(8), 새 것 없음(9~10), 기억 소멸(11).
- 컷 4 (12~18절): 왕의 실험 보고 — 신분·방법(12~13), 바람을 잡으려는 것(14), 구부러진 것 격언(15), 자격(16), 확장(17), 지혜=번뇌 결산(18).
- 컷 3 내부의 사다리: 시간(세대) → 공간 세 방향(하늘의 해·지면의 바람·낮은 데의 물) → 감각(8) → 역사(9~10) → 기억(11). 9절은 '있던 것/한 일 — 다시 있겠고/다시 할지라'의 거울 대칭.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Qohelet(קֹהֶלֶת) — qahal(집회) 어근의 분사. 모으는 자·집회 인도자. 여성형 분사에 남성 화자. LXX Ἐκκλησιαστής → 책명 '전도서'의 유래. 번역 폭(전도자·설교자·교사) 자체가 미해결의 증거.
- hevel(הֶבֶל) — 입김·수증기. 구약 약 70여 회 중 전도서에 38회 집중. 창 4장의 아벨(Hevel)과 같은 철자 — 형태 관찰만.
- havel havalim(הָבֵל הָבָלִים) — 최상급 소유격 구문('노래 중의 노래'와 같은 꼴). 1:2와 12:8의 수미.
- yitron(יִטְרוֹן) — 남는 것·이득. 결산의 결을 가진 전도서 고유어. / amal(עָמַל) — 수고·노동. 3절은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중복 구문.
- tachat hashamesh(תַּחַת הַשֶּׁשֶׁת) — 해 아래. 구약에서 전도서에만 나오는 표현. 1장에 3·9·14절 세 번.
- dor(דּוֹר) — 세대. 4절. / savav(סָבַב) — 돌다. 6절 한 절에 어형을 바꿔 거듭 등장. / zikkaron(זִכָּרוֹן) — 기억·기념. 11절.

- *reut ruach*(רעות רוח) — 바람을 잡으려는 것. 어근 *raah*의 폭(치다·먹이다·따르다·뜻하다)으로 '꽃음·먹임·번민'까지 번역이 갈림. LXX는 *προαίρεσις πνεύματος*.
- *inyan*(ענין) — 괴로운 과업. 전도서 고유어. 13절. / *holelot*(חוללות) — 미친 것들 · *sikhlut*(סִיחְלוּת) — 미련함. 17절.
- *kaas*(כעס) — 번뇌·속 끓음 · *makhov*(מַחֲוּ) — 근심·아픔. 18절에서 지혜(*chokhmah*)·지식(*daat*)의 증가와 짝지어짐.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표제(1) + 모토(2) + 강령 질문(3) + 순환의 시(4~11) + 왕의 실험 보고(12~18) — 다섯 단의 개막 구조.
- 5~7절의 동사 밀도: 명사 셋(해·바람·강물)에 동사 열 개 이상. 반복 동사가 둘 자체를 수행하고, 어느 동사도 완료에 닿지 않음 — 도착점이 전부 출발점.
- '차지 않음'의 세 겹: 바다(7절) — 눈 — 귀(8절). 세계의 그릇과 몸의 그릇이 같은 모양.
- 1:2 ↔ 12:8 *hevel* inclusio. 1:3의 *yitron* 질문은 2:11, 3:9, 5:16 등에서 변주되며 권 전체를 끌고 감.
- 18절은 잠언형 대구 격언 — 지혜 문학의 그릇에 지혜의 비용을 담음.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길가메시 서사시의 시두리 권면 — 죽음의 한계 앞에서 일상을 권하는 근동 회의 문학 전통 — 배경.
- 바벨론 염세 대화(주인과 종의 대화) — 모든 행위의 무익함을 응수하는 대화 문학 — 배경.
- 이집트 하프 연주자의 노래 — 무덤 앞에서 덧없음을 노래하는 장르 — 배경.
- 1:12~의 "내가 왕이 되어 ~하엿노라" — 근동 왕실 자전(自傳) 문체와 형식 공유 — 배경.
- LXX: *hevel* → *ματαιότης*(추상화), *Qohelet* → *Ἐκκλησιαστής*, *reut ruach* → *προαίρεσις πνεύματος* — 번역 폭의 증거,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전 1:2 ↔ 전 12:8 (헛되고 헛되도다 — 권 전체의 수미)
- 전 1:3 ↔ 전 12:13 (*yitron* 질문 ↔ 하나님 경외와 명령 준수의 결론 — 질문과 답)
- 전 1:2 ↔ 시 39:5-6 · 시 144:4 · 욥 7:16 (*hevel* — 사람과 그의 날에 붙는 입김의 계보)
- 전 1:11 ↔ 잠 10:7 (기억의 소멸 ↔ 의인의 기념 — 정경 안에서 마주 보는 두 선언)
- 전 1:18 ↔ 잠 1:7 (지혜=번뇌 ↔ 경외가 지식의 근본 — 시가서 서가의 긴장)
- 전 1:3 ↔ 창 3:17-19 (수고의 기원 — 땅의 저주와 이마의 땀,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두루마리가 펼쳐진다 —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어두운 화면에 입김 같은 소리가 다섯 번 지나간다 —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김이 흩어지기 전에 질문이 걸린다 —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화면이 지평선만큼 넓어진다. 이름 없는 행렬이 오고 가고, 땅은 꿈쩍 않는다. 해가 떠오르고 기울고 혈떡이며 제 땀던 곳으로 급히 돌아간다. 바람이 남에서 북으로 꺾이고 이리 돌고 저리 돌아 제 길로 들어선다. 강들이 바다로 쏟아지는데 수면은 그대로다. 카메라가 한 얼굴로 내려온다 — 족하지 않은 눈, 차지 않는 귀. 내레이션 —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모래 위 발자국이 지워지고 그 위에 또 찍히고 또 지워진다 — 기억됨이 없으리라. 예루살렘 왕궁의 등불 곁, 한 왕이 마음을 다해 살피

고 미친 것과 미련한 것까지 뒤진다. 퍼 본 손바닥이 비어 있다. 마지막 자막 —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등불이 흔들리고,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입김과 도는 것들 — 해 아래라는 실험 조건"
- 초벌 부제: "이름이 비워진 문패 아래 최상급의 헛됨 선언(havel havalim)과 강령 질문(해 아래 수고의 yitron)이 놓이고, 해·바람·강물의 순환 시와 왕의 실험 보고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로 결산되는 전도서 전권의 개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1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다섯 단 개막 구조 + 5~7절 동사 밀도 + 1:2↔12:8 수미 + ANE 회의 문학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hevel을 '인생무상'의 교훈이나 허무주의 철학으로 단정하지 않고, 입김·수증기라는 어근의 그림과 번역 폭 (덧없음·증기·부조리)의 관찰로만 둬.
- 1:18(지혜=번뇌)을 반(反)지성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잠언의 지혜 예찬과 마주 보는 정경적 긴장의 관찰로 보존.
- 1:13의 "하나님이 주사"를 섭리 교리의 진술로 봉합하지 않고, 1장 안에서 하나님이 단 한 번 등장하시는 위치의 관찰로 둬.
- 1:11의 기억 소멸을 내세 부정의 명제로 확장하지 않고, 잠 10:7과 마주 보는 미해결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전도서 1장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Qohelet)의 말씀이라"(1:1)는 이름이 비워진 문패 아래 최상급의 헛됨 선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havel havalim hakkol havel)"(1:2)와 강령 질문 "해 아래에서(tachat hashamesh)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yitron)"(1:3)를 놓은 뒤, 해·바람·강물이 돌고 또 도는 순환의 시(1:4-11)로 세계 차원의 증거를, 마음을 다해 살핀 왕의 실험 보고(1:12-18)로 지혜 차원의 첫 결산 —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1:18) — 을 내놓는, 전도서 전권의 개막이다.

한 문단: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이름 없는 문패가 보인다. 어둠 속에서 입김 같은 소리가 다섯 번 지나간다 —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김이 흩어지기 전에 질문이 걸린다 —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화면이 지평선만큼 넓어지고, 이름 없는 세대의 행렬이 오고 가는데 땅은 꿈쩍 않는다. 해가 혈떡이며 제 뒀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이리 돌고 저리 돌아 제 길로 들어서고, 강들이 바다로 쏟아져도 수면은 그대로다. 카메라가 한 얼굴로 내려온다 — 족하지 않은 눈, 차지 않는 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고, 모래 위 발자국은 지워지고 또 지워진다. 예루살렘 왕궁의 등불 곁에서 한 왕이 마음을 다해 살피고 미친 것과 미련한 것까지 뒤지다가 손을 펴 본다 — 바람을 움켜쥐었던 손바닥이 비어 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 등불이 흔들리고 1장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우주(땅·해·바람·강·바다)에서 한 사람의 마음으로 zoom in. 입김이라는 보이지 않는 소품. '계속되는데 차지 않는' 소재들.
2 첫 느낌·분위기	h 소리 다섯 번 — 발음 자체가 입김. 돌고 도는 동사의 어지러움. 절규 없는 보고서의 차분함이 더 무거움.
3 시작과 끝	왕의 직함(1절)에서 근심의 격언(18절)으로 — 왕관에서 번뇌로. 한가운데의 질문(1:3)만 답 없이 열림. 1:2↔12:8 hevel 괄호.
4 등장인물·사상	유일한 화자 Qohelet, 이름 없는 세대들, 단 한 번 등장하시는 하나님(1:13 — 수고를 주신 분). 중심 사상은 yitron 질문 + '해 아래' 한정.
5 장면 컷	표제(1)/모토·질문(2~3)/순환의 시(4~11)/실험 보고(12~18) 4컷. 컷 3 내부는 우주—감각—역사—기억의 사다리.
6 의문·발견·정보	동사 열 개의 둑 수행. 차지 않는 그릇 셋. 전 1:11↔잠 10:7의 대면. reut ruach 번역 폭. 근동 회의 문학 배경.
7 동영상	입김 다섯 번 → 도는 해·바람·강물 → 지워지는 발자국 → 등불 곁의 실험 → 빈 손바닥,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입김과 도는 것들 — 해 아래라는 실험 조건"
9 기도·내면	차지 않는 그릇 셋을 본다. 그 김을 내쉬게 하신 숨이 어디서 오는지만 붙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hevel, 입김의 물질성:** '헛되다'는 추상이 아니라 잡히지 않는 김의 그림이다. havel havalim hakkol havel — 발음마다 숨이 새고, 뜻과 소리가 같은 일을 한다. 시편 39·144편에서 사람 자신에게 붙던 이 단어가 여기서는 해 아래의 모든 수고로 넓혀지고, 12:8의 같은 문장까지 권 전체를 괄호로 감싼다. 전도서를 여는 열쇠말이 무거운 돌이 아니라 가장 가벼운 김이라는 사실 — 그 가벼움이 책의 무게다.
- 결 2 — 동사의 둑, 형식이 수행하는 시학:** 5~7절은 명사 셋(해·바람·강물)에 동사 열 개 이상을 엮는다. 뜨고 지고 돌아가고, 불다가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돌아가고, 흐르되 흐르든지 연하여 흐른다. 어느 동사도 완료에 닿지 않고 도착점이 전부 출발점이다. 시가 세계의 둑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자체로 그 둑을 수행한다 — 읽는 사람까지 한 바퀴 돌려 놓는 시.
- 결 3 — tachat hashamesh, 실험의 조건:** '해 아래'는 구약에서 전도서에만 나오는 한정사다(1장에만 세 번). 시야를 지평선 안쪽으로 묶어 두는 이 조건이 1장의 모든 관찰 — 새 것 없음, 기억 소멸, 지혜의 번뇌 — 에 붙

어 있다. 해 위를 말하지 않는 침묵이 방법론인지 고백인지는 미해결로 남지만, 이 한정이 있어야 12장의 닷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이 통로 끝에서 무게를 가진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전 12:8 — "헛되고 헛되도다" — 1:2와 같은 문장으로 권 전체를 감싸는 수미.
- 전 12:13 —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 1:3의 질문이 끝내 닿는 닷.
- 시 39:5-6 · 시 144:4 · 욥 7:16 — 사람과 그의 날에 붙는 hevel의 계보.
- 잠 10:7 — 의인의 기념은 칭찬받음 — 전 1:11의 기억 소멸과 정경 안에서 마주 봄.
- 잠 1:7 — 경외가 지식의 근본 — 전 1:18(지혜=번뇌)과 시가서 서가가 품는 긴장.
- 창 3:17-19 — 땅의 저주와 이마의 땀 — amal(수고)의 기원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2의 다섯 번에서 시작한다 — 소리 내어 읽으며 숨이 새는 것을 듣는다. 이 책의 첫 단어가 김이라는 것을 몸으로 안다.
- 멈춤 1: 1:3에서 멈춘다 — yitron. 내 수고의 결산서에 남는 잔액이 있는지, 그 물음이 내 장부에도 걸린다.
- 멈춤 2: 1:8에서 멈춘다 — 족하지 않은 눈, 차지 않은 귀. 채워지지 않게 빚어진 그릇이라면 그 크기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끝: 1:13과 1:18 사이에서 멈춘다 — 탐구의 괴로움조차 "하나님이 주사"라는 한 구절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는 결산. 묻는 일의 비용과 묻는 일의 출처를 같이 전다.

F · 자족성 점검

- [x] 표제(1)·모토(2)·질문(3)·순환 시(4~11)·실험 보고(12~18)의 다섯 단 완결
- [x] 1:2 모토와 12:8의 수미 호응
- [x] 5~7절 동사 밀도와 뚝의 수행
- [x] 차지 않음 세 겹(바다·눈·귀)의 분포
- [x] yitron 질문(1:3)과 결산 격언(1:18)의 머리-꼬리 대응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전도서의 spine은 '해 아래 모든 것의 헛됨을 정직히 통과시켜,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닷에 이르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12:13)이다 (book-telos). 권의 흐름은 헛됨의 실험(1~2장), 때와 분깃과 하나님의 선물(3~11장),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결론(12장)으로 움직이는데, 1장은 첫 국면의 개막 — 헤벨 선언과 '해 아래'라는 시야 한정으로 실험의 조건이 세워지는 입구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창세기 3장이 들어온 수고(amal)의 무게가 여기서 처음으로 결산대 위에 오른다 — 이마의 땀으로 일군 모든 것을 두고 '남는 것이 있는가'를 묻는 장부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리고 1장에서 단 한 번 등장하시는 하나님(1:13)이 그 괴로운 결산 작업을 '주신' 분으로 호명된다는 사실이, 이 어둠이 버려진 어둠이 아니라 통과시키시는 어둠임을 입구에서부터 표시해 둔다. 헛됨의 정직한 직면 없이는 12장의 경외가 값싼 결론이 되었을 것이다 — 1장은 그 결론이 닷이 되도록 바다의 깊이를 먼저 재는 장이다.

최상급의 헛됨 선언(1:2)에서 결산 질문(1:3 yitron)으로 / 우주의 둠(1:4-11)에서 한 왕의 마음 실험실(1:12-18)로 / 지혜의 첫 실험에서 "번뇌도 많으니"(1:18)라는 첫 적자 보고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장은 '남는 것이 있는가'라는 물음을 발행하고 그 물음의 검증 무대를 해 아래로 한정하는 운동이다. 세계 차원의 증거(돌고 돌아도 차지 않는 자연)와 지혜 차원의 첫 결산(알수록 아픈 마음)이 나란히 적자를 기록하지만, 이 적자는 종결이 아니라 개막이다. 2장에서 실험 목록은 웃음·포도주·사업·소유로 이어지고, 3장에서 '때'가, 뒤에서 '분깃'과 '선물'이 장부에 들어오며, 12장의 닷에 이르러서야 결산이 닫힌다. 1장의 벡터는 전권을 '정직한 적자의 직면에서 경외라는 닷으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첫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염세의 보고서다 — 다 헛되고, 새 것이 없고, 기억도 지워진다는.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이 보고서는 절규가 아니라 정직이다. 다 보고 난 사람의 차분한 문장은 세계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있는 그대로 측량한다 — 구부러진 것을 구부러졌다고, 차지 않는 것을 차지 않는다고. 둘째, 그 측량 작업 자체가 주어진 일이다. 1:13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는 한 구절이, 묻고 살피고 괴로워하는 이 모든 탐구를 선물의 틀 안에 둔다. 헛됨을 직면하는 능력조차 받은 것이라면, 1장의 어둠은 출구 없는 어둠이 아니라 통로의 어둠이다. 셋째, 차지 않는 그릇의 비밀이 있다. 바다도, 눈도, 귀도 채워지지 않는다 — 그런데 본문은 그 미충족을 고장으로 진단하지 않고 그냥 보여 준다. 해 아래의 것으로는 차지 않게 빔어진 그릇이라면, 그릇의 크기 자체가 해 아래 너머를 가리키는 표지일 수 있다. 1장은 그 가능성을 발설하지 않은 채, 다만 그릇이 비어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 주는 데서 멈춘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내 수고의 장부에 yitron — 남는 것 — 이 있는지 결산해 본 적이 있는가. 보아도 족하지 않은 내 눈과 들어도 차지 않는 내 귀는, 고장난 그릇인가 아니면 다른 크기로 빔어진 그릇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허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돌고 도는 해와 바람과 강물을 보여 주고, 지워지는 발자국을 보여 주고, 바람을 움켜쥐었다 펴 본 빈 손바닥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림 곁에 한 구절을 남겨 둔다 — 이 괴로운 살핌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1:13). 헛됨의 직면이 선물이라면, 독자는 자기 장부의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펼쳐 볼 수 있다. 1장은 답을 미루는 대신 정직을 먼저 청한다 — 차지 않는 그릇을 차지 않는다고 말하는 데서부터, 전도서의 긴 통로가 열린다. 그 정직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첫 결산이 적자로 닫히자 전도자는 실험의 항목을 바꾼다 —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2:1), 웃음과 포도주의 실험이 시작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hevel* — 입김, 잡히지 않는 김.

미해결 질문

전도서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Qohelet(1:1) — '모으는 자'는 무엇을 모으는가, 이 호칭은 이름인가 직함인가?

- qahal(집회) 어근의 여성형 분사가 남성 화자에게 붙는 형태. 사람을 모으는 자인지, 격언을 모으는 자인지, 집회를 인도하는 자인지 — 번역사(전도자·설교자·교사·Ekklesiastes)가 곧 이 미해결의 기록이다. 보존.

Q2. hevel(1:2) — 입김의 그림과 '헛됨'의 추상 사이, 번역의 폭은 어디까지인가?

- 덧없음·증기·수수께끼·부조리 — 어느 한 단어로 눌러 옮기는 순간 잃는 결이 생긴다. 다섯 번의 발화가 뜻인지 탄식인지 진단인지도 열려 있다. 보존.

Q3. reut ruach(1:14) — '바람을 잡음'인가 '바람을 쫓음'인가 '영의 변민'인가?

- 어근 raah의 폭(치다·먹이다·따르다·뜻하다)과 LXX의 προαίρεσις πνεύματος가 보여 주는 갈래. 손과 바람의 그림 자체는 선명한데 동사의 정확한 결은 닫히지 않는다. 보존.

Q4. 1:11의 기억 소멸과 잠언 10:7의 '의인의 기념' — 마주 보는 두 선언을 어떻게 둘 것인가?

- 한 정경 안에서 기억이 지워진다는 관찰과 의인의 기념이 남는다는 약속이 서로를 향해 열려 있다. 어느 쪽도 누르지 않고 두 책의 대면 자체를 보존.

Q5. 1:15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 누가 구부렸는가?

- 행위자가 비워진 수동의 그림. 사람의 일그러뜨림인지, 세계의 본래 모양인지, 다른 손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7:13("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과의 거리도 함께 이월. 보존.

Q6. '해 아래(tachat hashamesh)'라는 한정 — 이 시야 제한은 방법론인가 고백인가?

- 해 위를 말하지 않는 침묵이 실험의 조건 설정인지, 화자의 한계 고백인지, 둘 다인지 — 권의 끝(12:13)에 닿기 전까지 닫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전도서 2장

ECC-002 · 시가서 · 히브리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nasah*) 너를 즐겁게 하리니"(2:1)로 열린 왕의 실험 보고서가 — 포도주의 통제된 시험과 동산·과원·못의 대공사를 지나 — 무제한의 향유(2:10)에서 단 한 절 만의 회계(2:11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로 낙하하고, 죽음의 평준화와 상속의 물음표를 통과한 바닥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miyyad haElohim*) 먹고 마심의 첫 선물 결론(2:24)이 떠오르는 — 전도서 첫 국면을 닫는 장.

관찰된 사실

전도서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의 운동: 내면의 독백실(1~3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 도성 규모의 작업장 — 건축 현장·포도원·동산·과원·삼림·못·창고·연회장(4~8절) → 회계 책상 하나(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 식탁(24절).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수렴.
- 소품(채움): 포도주(3절), 집들·포도원·동산과 과원·각종 과목·수목 삼림·못들(4~6절), 남종과 여종·소와 양 떼(7절), 은금·왕들의 보배·여러 지방의 보배·노래하는 남녀·처첩(8절).
- 소품(비움): 바람(11절), 어둠(13~14절), 지워지는 기억(16절), 창고 열쇠를 받는 얼굴 없는 상속자(18~19절), 잠 못 드는 밤(23절). 마지막 소품은 식탁 — 먹고 마시는 것(24절).
- "나를 위하여"가 4·5·6·7·8절에 거듭 — 모든 동사의 수혜자 표시가 한 사람에게로 굽음.
- 소재의 세 갈래: 쌓는 어휘(짓고·일구며·만들고·심었으며·팠으며·사기도 하였고·쌓고) / 새는 어휘(헛됨·바람·죽음·잊힘·상속·불면) / 받는 어휘(먹고 마심·기쁨·하나님의 손, 24~26절).
- 물의 대비: 창세기 2장은 강이 흘러와 동산을 적시고, 여기서는 물을 주기 위해 못들(*berekhhot mayim*)을 팜 — 흘러오는 물과 가뭄 둔 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결론이 먼저 적힌 보고서: 1절에서 실험 선언 직후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 결말을 아는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며 쓰는 어조. 4~8절의 화려한 목록이 그래서 쓸쓸하게 읽힘.
- 음향 설계: 공사장 소음·물 대는 소리·합창이 8절까지 차오르고, 11절에서 일시에 꺼짐. 이후 끝까지 낮은 독백 — 17절은 신음에 가깝고 23절의 밤은 무음, 24절에서 식기 소리가 작게 돌아옴.
- 2절 "웃음에 관하여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 웃음을 해부하는 시선. 잔치에 참석한 검시관의 차가움.
- 3절의 통제 변인: 포도주로 몸을 시험하되 "내 마음은 지혜로 다스리면서" — 무절제조차 설계 안에 있는 통제된 실험.
- 10절(모든 감각의 문이 열림)과 23절(잠이라는 한 감각을 얻지 못함)의 대비 — 채움의 끝이 불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 시작도 헛됨 선언, 끝도 헛됨 후렴 — 그러나 1절의 헛됨은 자기 실험의 판정이고, 26절의 헛됨은 24절 선물 결론 뒤에 붙는 후렴. 같은 단어가 다른 깊이에서 재등장.
- 주어의 이동: 1절의 주어는 '나'(이르기를·시험하리니), 26절의 주어는 하나님(주시나·주시고·주게 하시지만). '내가 하였노라'로 열려 '그가 주시나'로 닫힘.
- 1절 "너는 낙을 누리라"(자기 명령) 對 24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수령) — 같은 기쁨의 출처가 명령에서 선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나'(왕의 모습을 입은 화자), '내 마음'(1·3·10·15·20절 — 대화 상대로 불리는 또 하나의 인물), 남종과 여종·노래하는 남녀·처첩·가축 떼(이름 없는 군상), 내 뒤를 이을 자(18~19절 — 얼굴 없는 상속자), 지혜자와 우매자(12~16절의 비교 표본), 하나님(24~26절에서 처음으로 행위의 주어).
- 2장은 '나'와 '내 마음'의 2인극 — 자기에게 명령하고(1절) 자기 마음에 실망하는(20절) 내적 대화의 형식.
- 중심 사상: 1:3의 yitron 질문("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한 첫 답 — 2:11 "무익한 것이로다." 단, 13~14절이 이중 진술로 단서를 닮: 지혜는 우매보다 뛰어남(빛>어둠, 상대 우위) + 그러나 같은 일을 당함(miqreh, 절대 한계).
- 12~23절 논증 계단: 비교(12~14상) → 반전(14하 같은 miqreh) → 귀결(15~16 기억의 소멸) → 정서(17 미워함) → 상속(18~21) → 신체(22~23 불면). 계단의 바닥(23절)과 선물 결론(24절)이 한 절 간격.
- 19절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 — 다 가져 본 화자가 모른다고 말하는 거의 유일한 대목. 과거형의 장에서 유일하게 미래를 향한 물음표.
- cheleq(몫, 10·21절)와 yitron(유익, 11·13절)의 구분 — 수고하는 동안의 몫은 있었으나 수고 너머에 남는 유익은 없음. 11절 회계의 열쇠.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실험 설계 — nasah 선언, 웃음의 부검, 포도주의 통제된 시험("마음은 지혜로 다스리면서").
- 컷 2 (4~8절): 대공사 — 집·포도원·동산·과원·삼림·못·종·가축·은금·보배·노래·처첩, "나를 위하여"의 연쇄.
- 컷 3 (9~11절): 정점과 회계 — 무엇이든 금하지 않은 향유(10절)에서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11절)으로, 한 절의 낙차. 경첩 동사 panah(생각해 본즉·돌이켜).
- 컷 4 (12~23절): 어두운 계단 — 빛과 어둠, 같은 miqreh, 기억의 소멸, 미움(sane), 얼굴 없는 상속자, 불면의 밤.
- 컷 5 (24~26절): 식탁 — 먹고 마시며 수고 가운데 기뻐함, miyyad haElohim, 주시는 목록(지혜·지식·희락), 마지막 후렴.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nasah(נסה) — 시험하다·시도하다. 1절 "시험삼아." 화자가 자기를 피험자로 놓는 동사.

- *simchah*(שִׂמְחָה) — 낙·기쁨. 1·2·10·26절. 실험 대상 → 수고의 보상 → 하나님이 주시는 목록으로 이동.
- *holelut*(הוֹלֵלוּת) — 미친 것·광기. 2절. / *sikhlut*(סִכְלוּת) — 어리석음. 3·12·13절.
- *pardes*(פָּרְדֵּי) — 과원. 페르시아 계열 차용어, 구약 3회(전 2:5, 아 4:13, 느 2:8). LXX παράδεισος.
- *berekhhot mayim*(בְּרִכּוֹת מַיִם) — 물의 못들·저수지. 6절.
- *cheleq*(חֶלֶק) — 몫·분깃. 10·21절. / *yitron*(יִתְרוֹן) — 남는 것·유익. 11·13절, 전도서 특유어.
- *hevel*(הֶבֶל) — 헛됨·입김·증기. 1·11·15·17·19·21·23·26절. / *reut ruach*(רְעוּת רוּחַ) — 바람을 잡는 것. 11·17·26절.
- *or*(אֹר) / *hoshekh*(חֹשֶׁךְ) — 빛/어둠. 13~14절. / *miqreh*(מִקְרָה) — 당하는 일. 14·15절.
- *zikaron*(זִכְרוֹן) — 기억. 16절. / *sane*(שָׁנָא) — 미워하다. 17·18절.
- *panah*(פָּנָה) — 돌아보다·향하다. 11·12절 — 쌓는 동사들의 장을 꺾는 경첩.
- *miyyad haElohim*(מִיַּד הָאֱלֹהִים) — 하나님의 손에서. 24절.
- *shiddah weshiddot*(שִׁדָּה וְשִׁדּוֹת) — 8절 "처첩"으로 옮겨진 구약 1회 어휘. 여인들·악기 등 번역이 갈림 — 미 해결.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실험 보고 양식: 가설(1절) — 방법(3절, 통제 조항) — 수행(4~8절) — 측정(9~10절) — 분석(11절) — 추가 실험(12~16절) — 결론·정서(17~23절) — 해석(24~26절).
- *inclusio*: 1절 "이것도 헛되도다" ↔ 11절 "다 헛되어" — 실험 구간을 헛됨 선언이 감쌌. 26절 후렴이 장 전체를 한 번 더 닫음.
- "나를 위하여"의 연쇄(4~8절)와 1인칭 완료 동사의 사슬 — 왕실 자랑 비문의 양식을 빌린 보고.
- 10절(가장 긴 향유 문장) → 11절(한 줄 결산)의 낙차. 경첩은 *panah*(11·12절).
- 24절 선물 결론은 3:12-13, 5:18-20, 8:15, 9:7-10에서 반복 — 권 전체 후렴의 첫 발행.
- 13~14절의 이중 진술: 상대 우위(지혜>우매, 빛>어둠)와 절대 한계(같은 *miqreh*)를 한 호흡에.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메소포타미아 왕실 건축 비문 — 궁전·정원·수로·저수지 조성의 1인칭 자랑 양식. 2:4~8과 형식 공유, 그러나 비문은 영광으로 닫히고 본문은 회계로 닫히는 대조 — 배경.
- 이집트 하프 연주자의 노래 — 죽음의 보편 앞에서 '먹고 마시라'로 향하는 근동 카르페 디엠 전통. 24절과 같은 주제 위에 있되 본문은 식탁을 '하나님의 손에서'로 받음 — 배경.
- 길가메시 서사시 — 영원한 이름·기억의 추구와 죽음의 한계. 2:16의 기억 소멸과 같은 물음 — 배경.
- 왕실 정원(*pardes*)·관개 시설 — 근동 왕들이 위신으로 조성한 인공 정원과 저수지. 2:5~6의 물질 배경.
- LXX: 극단적 직역 계열(아퀼라풍), *pardes* → παράδεισος 음역, *hevel* → ματαιότης(물질 심상의 추상화)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전 2:4-6 ↔ 창 2:8-10 (동산·각종 나무·물 — 에덴 어휘의 메아리)
- 전 2:4-9 ↔ 왕상 7:1-12; 9:17-19; 10:14-27 (솔로몬의 건축·부·은금)
- 전 2:5 ↔ 아 4:13; 느 2:8 (*pardes* — 구약 단 세 번의 분포)

- 전 2:11 ↔ 전 1:3 (yitron 질문과 첫 답)
- 전 2:24 ↔ 전 3:12-13; 5:18-20; 8:15; 9:7-10 (먹고 마심의 선물 결론 — 권의 후렴)
- 전 2:16-21 ↔ 시 49:10; 시 39:5-6 (지혜자도 죽고 재물은 남에게 — 죽음의 평준화)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어두운 방, 거울 앞의 한 사람 —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잔이 채워지고 웃음소리가 도는데 화자의 얼굴만 웃지 않는다. 화면이 터진다 — 망치 소리, 줄지어 심기는 과목, 차오르는 못의 물, 지나가는 가축 떼, 쌓이는 은금, 커지는 합창. 자막처럼 스치는 구절 — 나를 위하여. 정점에서 카메라가 멈춘다 —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화면이 꺼지고 회계 책상의 등불 하나. "내가 생각해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빛과 어둠이 갈라졌다가 두 그림자가 같은 문으로 들어가고, 비석의 글자가 바람에 지워지고, 얼굴 없는 사람이 창고 열쇠를 받아 든다. 잠들지 못하는 밤. 그리고 새벽처럼 식탁이 보인다 — 빵과 잔, 식탁 너머에서 내미는 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낮게 깔리는 마지막 후렴 — 이것도 헛되어.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왕의 실험실 — 공사장에서 식탁으로"
- 초벌 부제: "쾌락과 사업을 시험한 왕의 1인칭 실험 보고서가 무제한의 향유(2:10)에서 한 절 만의 회계(2:11)로 낙하하고, 죽음의 평준화와 상속의 물음표를 지나,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먹고 마심의 첫 선물 결론(2:24)에 닿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0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실험 보고 양식 + 왕실 비문 대조 + 에텐 어휘 메아리 + cheleq/yitron 구분)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24의 선물 결론을 구원론·복음 제시로 앞당겨 읽지 않고, 권 안에서 반복되는 후렴의 첫 발행이라는 본문 내 관찰로만 둬.
- 2:26의 '기뻐하시는 자 / 죄인'을 인과응보 교리로 봉합하지 않고, 후렴("이것도 헛되어")이 가리키는 범위와 함께 미해결로 보존.
- 2:4-6의 창세기 동산 어휘 겹침을 저자의 의도(에텐 재건 시도) 단정 없이 어휘 분포 관찰로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전도서 2장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nasah) 너를 즐겁게 하리니"(2:1)라는 자기 실험 선언으로 열려, 지혜의 통제 아래 포도주와 어리석음을 시험하고(2:3) 집·포도원·동산·과원·못(berekhot mayim)의 대공사와 은금·노래·처첩의 축적을 "나를 위하여"의 연쇄로 보고한 뒤(2:4-8), 무엇이든 금하지 않은 향유의 정점(2:10)에서 단 한 절 만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2:11)의 회계로 낙하하고, 지혜의 상대 우위와 절대 한계(2:13-14)·죽음의 평준화(2:16)·상속의 물음표(2:19)·불면의 밤(2:23)이라는 계단을 내려간 바닥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2:24)라는 권의 첫 선물 결론에 닿는, 헛됨의 실험 국면을 닫는 장이다.

한 문단: 어두운 방에서 한 사람이 거울 속 자기에게 말을 건다 —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잔이 채워지고 웃음이 도는데 그의 얼굴만 웃지 않는다. 화면이 터진다 — 망치 소리, 줄지어 심기는 과목, 차오르는 못의 물, 쌓이는 은금, 커지는 합창. 자막처럼 한 구절이 거듭 스친다 — 나를 위하여. 정점에서 카메라가 멈춘다 —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모든 소리가 꺼진다. 회계 책상의 등불 하나, 장부를 넘기는 손 —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빛과 어둠이 갈라졌다가 두 그림자가 같은 문으로 들어가고, 비석의 글자가 지워지고, 얼굴 없는 사람이 창고 열쇠를 받아 들고, 밤은 잠들지 못한다. 그런데 새벽처럼 식탁이 보인다 — 빵과 잔, 식탁 너머에서 내미는 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낮게 깔리는 후렴과 함께 2장이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독백실 → 도성 규모의 작업장 → 회계 책상 → 식탁. 쌓는 소품과 새는 소품, 그리고 받는 소품. "나를 위하여" 다섯 번.
2 첫 느낌·분위기	결론이 먼저 적힌 보고서의 쓸쓸함. 8절까지 차오르다 11절에서 꺼지는 음향. 잔치 속 검시관의 시선, 통제된 실험.
3 시작과 끝	헛됨으로 열고 헛됨으로 닫되 속이 다름.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 '내가 하였노라'가 '그가 주시 나'로.
4 등장인물·사상	'나'와 '내 마음'의 2인극, 이름 없는 군상, 얼굴 없는 상속자, 끝에서 행위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 cheleq와 yitron의 구분.
5 장면 컷	실험 설계(1~3)/대공사(4~8)/정점과 회계(9~11)/어두운 계단(12~23)/식탁(24~26) 5컷. 10절→11절의 낙차, 경첩 panah.
6 의문·발견·정보	실험 보고 양식. 에텐 어휘의 메아리. 왕실 비문과의 대조. 24절 후렴의 첫 발행. 25절 사본 갈림, 26절 후렴의 열린 범위.
7 동영상	거울 앞 독백 → 공사장의 함성 → 회계 책상의 등불 → 같은 문으로 드는 두 그림자 → 불면의 밤 → 식탁 너머의 손, 압전.
8 초벌 제목·부제	"왕의 실험실 — 공사장에서 식탁으로"
9 기도·내면	흘러오던 물과 가뉘 둔 물, 두 가지 물을 본다. 받는 일이 쥐는 일보다 어렵다는 것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실험 보고의 양식, 미리 적힌 결론:** 2장은 가설(1절)·방법(3절의 통제 조항)·수행(4~8절)·측정(9~10절)·분석(11절)·추가 실험(12~16절)·해석(24~26절)의 순서를 갖춘 1인칭 보고서다. 왕실 자랑 비문의 동사 연쇄를 빌려 오되, 비문이 영광으로 닫는 그 끝을 회계로 닫는다. 그리고 결론("보라 이것도 헛되도다")이 1절에 미리 적혀 있다 — 끝을 아는 사람이 과정을 끝까지 보여 주는 이 구성이, 독자에게 같은 실험을 반복하지 않고도 그 길을 걷게 한다.
2. **결 2 — 에덴 어휘의 메아리, "나를 위하여"가 붙은 동산:** 동산(gan)·각종 과목·물 대는 시설(2:4-6)은 창세기 2장 8~10절의 어휘와 겹친다. 다만 방향이 다르다 — 거기서는 하나님이 심으시고 강이 흘러와 적시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심고 못을 파서 물을 가둔다. 그리고 모든 동사에 "나를 위하여"가 붙는다. 겹침과 어긋남이 함께 관찰되는 이 정원이, 2장의 사업 목록을 단순한 사치 목록 이상으로 읽게 만든다.
3. **결 3 — cheleq와 yitron, 몫과 유익의 회계:** 수고하는 동안 누린 몫(cheleq, 2:10)은 있었다. 그러나 수고가 끝난 뒤 해 아래 남는 유익(yitron, 2:11)은 없었다. 이 두 단어의 구분이 11절 회계의 정밀한 열쇠다. 그리고 24절에서 몫의 어휘는 죽지 않고 되살아난다 — 먹고 마시며 수고 가운데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몫으로 다시 명명되고, 3:22과 5:18과 9:9에서 권 전체의 긍정 어휘로 자라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창 2:8-10 — 동산·각종 나무·물 대는 강 — 2:4-6 어휘의 원천. 흘러오는 물과 가뉘 둔 물의 대비.
- 왕상 7:1-12; 9:17-19; 10:14-27 — 솔로몬의 건축·부·은금 — 왕의 실험이 입은 역사 의상.
- 아 4:13; 느 2:8 — pardes의 나머지 두 용례 — 구약 단 세 번의 분포.
- 전 1:3 ↔ 전 2:11 — yitron 질문의 발행과 첫 답.
- 전 3:12-13; 5:18-20; 8:15; 9:7-10 — 먹고 마심의 선물 결론이 권의 후렴으로 반복.
- 시 49:10; 39:5-6 — 지혜자도 죽고 재물은 남에게 — 죽음의 평준화와 상속의 불확실을 함께 노래하는 시가서의 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시험삼아. 나도 내 즐거움을 실험해 본 적이 있는지, 그 실험의 가설이 무엇이 있는지 떠오른다.
- **멈춤 1:** 10절과 11절 사이에서 멈춘다 — 금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헛되어. 가장 긴 향유와 가장 짧은 결산 사이의 한 줄 공백.
- **멈춤 2:** 19절에서 멈춘다 — 누가 알랴. 내 수고의 행방을 나도 모른다는 물음표 앞에 선다.
- **끝:** 24절에서 멈춘다 — 하나님의 손에서. 오늘 저녁의 식탁이 움켜쥔 것인지 받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실험 설계(1~3)·대공사(4~8)·정점과 회계(9~11)·어두운 계단(12~23)·식탁(24~26)의 다섯 단 완결
- [x] 1:3 yitron 질문 ↔ 2:11 첫 답의 호응
- [x] cheleq(10·21절)와 yitron(11·13절)의 구분
- [x] 에덴 어휘 메아리(창 2:8-10)와 "나를 위하여"의 공존
- [x] 24절 선물 결론과 3장 이후 후렴 반복의 연결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전도서의 spine은 '해 아래 모든 것의 헛됨을 정직히 통과시켜,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닻에 이르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2:13 —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book-telos). 권의 흐름은 헛됨의 실험(1~2장), 때·분깃·하나님의 선물(3~11장),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결론(12장)으로 움직이는데, 2장은 첫 국면의 절정이자 닫음이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 본 사람의 회계가 "헛되다"로 끝났으므로, 실험으로는 더 갈 곳이 없다 — 그 막다른 데서 권은 방향을 튼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2장의 정원은 에텐의 어휘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무겁다. 동산과 각종 과목과 물의 시설 — 잃어버린 처음의 그림을 사람의 손으로 다시 세우려는 시도가 "나를 위하여"라는 수혜자 표시와 함께 보고되고, 그 보고서의 결산이 바람이다. 그러나 같은 장의 끝에서, 사람이 만들 수 없었던 것이 손에서 손으로 건너온다 — 먹고 마시며 수고 가운데 기뻐하는 것, miyyad haElohim. 추구로 재건되지 않던 동산의 기쁨이 수령의 식탁에서 작게 회복되는 이 전환은, 3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3:11)를 지나 12장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12:1)까지 가는 긴 길의 첫 굽이다. 2장이 닫은 것은 실험이고, 연 것은 선물의 어휘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추구의 문법('내가 하였노라')에서 수령의 문법('그가 주시나')으로 / 도성 규모의 공사장에서 식탁 하나로 / 회계로 영이 된 유익(yitron)에서 손에서 받는 몫(cheleq)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장은 '기쁨을 손에 넣을 수 있는가'라는 가설을 끝까지 밀어붙여 부결시킨 뒤, 같은 기쁨이 다른 출처 — 하나님의 손 — 에서 건너오는 것을 처음 기록하는 운동이다. 다만 이 기록은 종착이 아니라 개시다. 24절의 식탁 문장은 3:12-13과 5:18-20과 8:15와 9:7-10에서 거듭 돌아오며 권의 후렴으로 자라고, 헛됨의 후렴(hevel)과 선물의 후렴이 나란히 달리는 전도서 특유의 이중 선율이 여기서 시작된다. 2장의 벡터는 전도서 전체를 '정직한 헛됨의 통과에서 경외의 닻으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첫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왕의 호화로운 실패담이다 — 다 해 보고 다 가져 봤는데 허무했다는, 어느 시대에도 있을 법한 회고.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기쁨의 출처가 움직인다. 1절의 화자는 낙(simchah)을 실험 재료로 다뤘다 —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그렇게 다뤄진 낙은 손가락 사이로 새어 나갔고, 모든 감각을 채운 끝은 잠 못 드는 밤이었다(23절). 24절의 낙은 똑같은 먹고 마심인데 출처가 다르다 — 만든 것이 아니라 받은 것, 움켜쥔 것이 아니라 건너온 것. 본문이 깎아내리는 것은 포도주도 동산도 사업도 아니다 — 13절은 지혜의 뛰어남을 빛에 전주기까지 한다. 본문이 회계로 부결시키는 것은 그 전부를 "나를 위하여"의 방향으로 곱혀 쥐려던 손이다. 그리고 17절의 미움 —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 이 지워지지 않은 채로 24절의 식탁이 차려진다는 사실이 이 장의 깊은 물길이다. 절망을 건너편 위로가 아니라 절망을 다 통과한 다음의 선물 — 그 순서가 전도서의 정직성이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오늘 저녁의 내 식탁은 움켜쥔 것인가, 받은 것인가. 나의 못들 — 가뉘 두려고 판 것들 — 곁에, 흘러와서 적시는 물이 있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왕의 규모를 요구하지 않는다. 집 한 채, 일 하나, 저녁 한 끼의 규모에서도 같은 실험은 반복된다 — 이만큼 이루면, 이만큼 모으면. 2장은 그 실험의 결과지를 먼저 보여

주고, 그 대신 가장 작은 동작을 가리킨다 — 먹고 마시며 수고 가운데 기뻐하는 것. 평범해서 지나치기 쉬운 그 동작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적힌 순간, 하루의 식탁이 다른 빛 아래 놓인다. 19절의 물음표 — 내 수고의 행방을 누가 알랴 — 는 닫히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 미해결 곁에서 24절의 식탁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실험의 회계가 끝난 손에게 본문은 이제 때를 보여 준다 —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3:1), 심고 뽑고 울고 웃는 모든 일의 박자가 사람의 장부 바깥에서 정해져 있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iyyad haElohim* — 하나님의 손에서.

미해결 질문

전도서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2:3의 통제된 실험 — "내 마음은 지혜로 다스리면서" 어리석음을 취하는 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 취하면서 관찰하고 탐닉하면서 기록하는 이중 상태를 본문은 모순으로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한다. 실험의 설계 자체가 품은 긴장 — 보존.

Q2. 2:8의 *shiddah weshiddot* — "처첩"인가, 약기인가, 다른 무엇인가?

- 구약에 여기 한 번만 나오는 어휘. 여인들·약기·상자 등 번역 전통이 갈리고 LXX도 따로 간다. 어휘의 정체를 닫지 않고 이월.

Q3. 2:24 "먹고 마시며 ... 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 이 구문은 체념인가 발견인가?

- 히브리어 구문(*ein tov ba'adam*)의 결을 두고 '이것밖에 없다'는 축소로 읽는 길과 '이것이야말로 선물'이라는 상향으로 읽는 길이 갈린다. 같은 문장이 3:12-13 이후 반복되며 어느 쪽으로 자라는지는 권이 보여줄 일 — 보존.

Q4. 2:25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 '나보다(*mimmenni*)'인가 '그가 없이는(*mimmennu*)'인가?

- 사본 전승이 갈리는 절. 한쪽은 경험의 자부, 다른 쪽은 하나님 없이는 식탁도 없다는 고백 — 방향이 크게 다른 두 읽기를 모두 보존.

Q5. 2:26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갈리는가 — 그리고 그 끝의 후렴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구분의 기준을 본문이 밝히지 않고, 선물 문장 끝에 "이것도 헛되어"가 다시 붙는다. 후렴의 범위(주고 거두시는 흐름 전체인가, 죄인의 모으고 쌓음인가)를 닫지 않고 이월.

Q6. 2:12하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리라" — 누구를 가리키는가?

- 상속자인가, 후대의 모든 사람인가. 난해 구문으로 꼽히는 절의 지시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전도서 3장

ECC-003 · 시가서 · 히브리어

"범사에 기한(zeman)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et)가 있나니"(3:1)로 열리는 14쌍 28개의 시가 출생/죽음으로 열고 전쟁/평화로 닫힌 뒤, "사람들에게는 영원(olam)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3:11)의 양면이 놓이고, 그 측량 불가가 경외(3:14)의 설계로 처음 드러나는 — 전도서 둘째 국면의 개막.

관찰된 사실

전도서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1~8절 시의 무대는 특정되지 않음 — 산실·무덤·밭·전장·병상·공사장·초상집·잔칫집·들판·바느질방·발언대까지 인생의 모든 무대가 두 장면씩 스물여덟 컷으로 깔림.
- 16절에서 무대가 하나로 좁혀짐 — 재판하는 곳·정의를 행하는 곳(공공 법정). 20절에서 무대의 바닥 — 흙 — 이 드러남.
- 시의 소품은 돌(5절)과 꿰매는 손끝(7절) 정도, 나머지는 전부 동사(날다·죽다·심다·뽑다·울다·웃다 등) — 동작으로 채워진 시.
- 산문의 소품: 식탁(먹고 마시는 것, 13절), 호홉(19절), 흙(20절) — 낮고 무거운 물질로 압축.
- 시의 소재는 사람의 동작들, 산문의 소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명사들(수고·이익·영원·선물·경외·심판·몹) — 앞뒤의 결이 다름.
- 1절은 제목 행, 2~8절은 한 절에 두 쌍씩 14쌍 28때(7×2×2)의 정돈된 평행 배열.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죽을 때·죽일 때·혈 때·미워할 때·전쟁할 때가 절반인데도 리듬이 흔들리지 않는 평온 — 아픈 때조차 목록에서 제 차례를 받음.
- 음향 설계: 1~8절은 메트로놈(et 28회의 등간격 반복), 9절에서 정지와 질문, 11절부터 상승과 하강이 있는 산문의 굴곡 — 수평의 시와 수직의 산문.
- 화자의 어조 변화: 1~2장의 실험하고 무너지는 목소리에서, 멈춰 서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목소리로(보았노라·알았도다).
- 16절에서 공기가 깨짐 — 질서의 노래와 선물의 따뜻함 곁에 법정의 부패가 나란히 적힘.
- 감각의 중심은 숨(19절 동일한 호홉)과 흙(20절) — 가장 가깝고 가장 낮은 두 감각.
- 21·22절 모두 의문문 — 장이 단정이 아니라 열린 물음 두 개로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범사에 기한(zeman)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et)가 있나니."

- 22절: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cheleq)이기 때문이라 ...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 범사(전체)에서 자기 일(하나)로, 단정("있나니")에서 물음("누구이라")으로 좁혀지며 닫힘.
- 22절의 '그러므로'는 16~21절의 무거운 목격을 다 통과한 다음의 결론이라는 표지.
- 9절(이익이 있으랴)과 22절(그의 몫이라) — 같은 수고를 부르는 이름이 '이익'에서 '몫'으로 바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화자 코헬렛(1인칭 — 보았노라·알았도다·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10~18절 행동 주어의 집중 — 주시고·지으시고·두시고·막으시고·행하시고·찾으시고·심판하시고·시험하시고), 인생들(bene ha'adam), 짐승, 의인과 악인.
- 1~8절의 시에는 주어가 없음 — 누가 낳고 누가 죽이는지 시는 말하지 않음. 주어 없는 때들의 목록 뒤에 산문이 모든 때 위의 주어를 밝힘.
- 중심 사상은 3:11 — 때를 따라 아름답게(yafeh) + 영원을 마음에(et-haolam natan belibbam) + 시종 측량 불가. 아름다움·갈망·한계가 한 절, 한 주어 아래 동거.
- 3:14가 한계의 목적을 명시 — "경외하게 하려 하심" — 측량 불가는 결함이 아니라 설계.
- '더 나은 것이 없다(en tov)' 결론 형식: 2:24 → 3:12-13 → 3:22 → 5:18 — 헛된 후렵에 맞먹는 둘째 후렵.
- 17·18절이 같은 형식("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으로 두 번 — 범정의 악이라는 한 목격에 심판(위)과 짐승과의 동일함(아래)이라는 두 갈래 응답.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절): 때의 시 — 제목 행 + 14쌍 28때. 날 때/죽을 때로 열고 전쟁/평화로 닫음.
- 컷 2 (9~13절): 후렵의 질문(무슨 이익이 있으랴)과 둘째 선물 결론(먹고 마시고 수고로 낙을 누림 = mattat Elohim).
- 컷 3 (14~15절): 경외의 설계 —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심.
- 컷 4 (16~17절): 범정의 목격 — 정의의 좌석에 든 악, 그리고 심판의 때.
- 컷 5 (18~22절): 사람과 짐승 — 동일한 호흡·동일한 죽음·같은 흙, 혼의 행방 질문, 자기 일에 즐거워함이 몫이라는 결론.
- 컷 1 내부: 첫 쌍(출생·죽음)과 끝 쌍(전쟁·평화)은 개인의 통제 밖의 때 — 통제 밖으로 열고 닫고 그 사이에 일상의 손이 닿는 때들을 채움. 긍정·부정의 순서도 쌍마다 섞임(2절은 낳다가 먼저, 3절은 죽이다가 먼저).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zeman(זֶמַן) — 기한·정해진 시점. 후기 히브리어·아람어권 통용 시간 어휘 — 배경. 1절.
- et(עַתָּה) — 때·적기. 2~8절에 28회 + 11·17절. / chejets(חֶפְצֵת) — 일·사안, 본래 '기뻐하는 바'의 결. 1절.
- yitron(יֵתְרוֹן) — 남는 것·이익. 전도서 특유어. 9절. / inyan(יֵנְיָן) — 노고·일거리. 10절.
- yafeh(יָפֵה) — 아름답다. 창 1장의 tov(좋다)가 아닌 미학의 단어. 11절.
- olam(עוֹלָם) — 영원·아득한 지속. et-haolam natan belibbam — 영원을 그들의 마음에 두셨다. 11절.
- mattat Elohim(מַטַּת אֱלֹהִים) — 하나님의 선물. natan(주다) 계열 명사. 13절.
- yare(יָרֵא) 어근 — 경외하다. yire'u millefanav(그의 앞에서 경외하다). 전도서 첫 등장. 14절.

- *nirdaf*(נִרְדַּף) — *radaf*(רָדַף)의 수동 분사. '지난 것' 또는 '쫓겨난 것' — 번역 폭이 큰 형태. 15절.
- *barar*(בָּרַר) — 시험하다·가려내다·거르다. 18절. / *miqreh*(מִקְרֶה) — 당하는 일. 2:14의 재등장. 19절.
- *ruach*(רוּחַ) — 호흡·영·바람. 19·21절. / *afar*(אֶפֶר) — 흙. 창 2:7 동일 어휘. 20절. / *cheleg*(כֶּלֶךְ) — 뭉·분깃. 2:10의 재등장. 22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제목 행(1절) + 14쌍 28개의 시(2~8절) + 후렴 질문(9절) + 성찰 산문(10~15절) + 법정 목격(16~17절) + 사람·짐승 성찰(18~21절) + 뭉의 결론(22절) — 시 1단 + 산문 4단 구조.
- 시의 배열 시학: 출생/죽음(통제 밖)으로 열고 전쟁/평화(통제 밖)로 닫으며, 사이에 통제 안팎의 때들을 채움. 긍정·부정의 어순이 쌍마다 섞여 고정 패턴을 거부.
- 3:9의 *yitron* 질문은 1:3의 후렴 재등장 — 시 전체가 그 질문의 새 자료로 배치됨.
- '알았도다' 삼중(12·13·14절) — 측량 불가 선언(11절) 직후 모름과 앞의 경계선을 긋는 형식.
- *raiti*(보았노라)의 분포: 10절(노고) — 16절(법정의 악) — 22절(뭉의 즐거움) — 목격이 무거워졌다가 결론으로 착지하는 동선.
- 22절과 2:10의 *cheleg* 호응, 3:12-13과 2:24의 *en tov* 형식 호응 — 장과 장이 후렴으로 엮임.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사물·현상을 항목으로 정리하는 고대 근동 목록 문학(list science) — 3:1-8 시간 목록의 형식 배경 — 배경.
- 흙에서 와서 흙으로 — 메소포타미아 인간 창조 전승의 점토 모티프와 만나나, 본문 어휘는 창 2:7·3:19의 *afar* — 배경.
- 재판하는 곳·정의의 좌석 — 고대 도시 성문 공공 재판의 사회 배경. 16절.
- *zeman* — 페르시아 시대 행정 언어와 닿는 후기 시간 어휘 계열 — 배경.
- LXX: *olam*을 *aiōn*으로, *zeman·et*을 *kairos·chronos* 계열로 옮김 — 정해진 시점과 흐르는 시간의 구분이 번역 층에서 생김. 3:21의 의문 어조 전달에도 사본 전통 차이 논의 — 배경.
- 미쉬나 야다임 3:5의 정경 논의, 코헬렛 랍바의 *olam/he'elam*(숨김) 겹쳐 읽기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전 3:9 ↔ 전 1:3 (무슨 이익이 있으랴 — 책의 후렴)
- 전 3:12-13·22 ↔ 전 2:24 · 5:18-19 (먹고 마시고 수고로 낙을 누림 — 선물 결론의 사슬)
- 전 3:14 ↔ 전 5:7 · 8:12-13 · 12:13 (경외 — 첫 등장에서 책의 결론까지)
- 전 3:20-21 ↔ 전 12:7 (흙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 질문과 단정의 양 끝)
- 전 3:20 ↔ 창 2:7 · 3:19 (흙으로 빛으심과 흙으로 돌아감)
- 전 3:19 ↔ 욥 12:10 · 시 104:29-30 (호흡이 그의 손에 — 거두시면 먼지로)
- 전 3:1-8 ↔ 시 90:12 (날을 세는 지혜 — 때를 세는 기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추가 흔들린다 — 때가, 때가. 산실의 첫 울음과 무덤가의 곡소리, 심는 손과 뽑는 손, 허무는 망치와 올라가는 벽, 울음과 춤, 던져지는 돌과 거두어지는 돌, 찢어지는 천과 꿰매는 손끝, 다문 입과 열리는 입, 전장과 평화의 식탁 — 스물여덟 장면이 같은 박자로 지나간다. 화면이 멈추고 자막 — 무슨 이익이 있으랴. 들판의 한 사람.

그의 눈에 모든 것이 제때에 아름답고 가슴에는 때를 넘어서는 갈망이 뛰는데, 시간표의 처음과 끝은 안개에 싸여 있다. 식탁이 차려진다 — 빵과 물, 수고 끝의 낙, 자막 — 하나님의 선물. 성문 법정의 그림자, 화자의 독백 —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카메라가 낮아진다 — 사람의 가슴과 짐승의 옆구리가 같은 박자로 오르내리는 숨, 더 낮아져 흠, 다 한 곳으로 가는 길. 마지막 화면 — 자기 일터에서 손을 움직이며 웃는 한 사람, 자막 — 그것이 그의 몫이니라. 물음 하나가 화면 밖에 남는다 —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을 보게 할 자가 누구이라.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스물여덟 개의 때 — 영원이 심긴 마음으로 시간 목록을 읽다"
- 초벌 부제: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14쌍 28매의 시가 출생과 죽음으로 열고 전쟁과 평화로 닫힌 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측량 불가가 한 절(3:11)에 동거하고, 그 측량 불가가 경외(3:14)의 설계로 드러나며, 먹고 마시는 식탁과 자기 일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과 몫으로 호명되는 전도서 둘째 국면의 개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9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14쌍 28매 배열 시학 + en tov 후렴 사슬 + 경외 첫 등장의 정경 내 동선 + 근동 목록 문학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3:11의 olam을 내세 교리나 영혼불멸 논증으로 앞당겨 읽지 않고, 갈망과 한계가 한 절에 동거한다는 형태 관찰로만 둬.
- 3:19-21의 사람·짐승 동일 호흡을 사후 상태 교리로 봉합하지 않고, 12:7과의 공존을 미해결로 보존.
- 3:13의 선물 결론을 쾌락주의 권면이나 금욕 반박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en tov 후렴 사슬의 관찰로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전도서 3장은 "범사에 기한(zeman)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et)가 있나니"(3:1)라는 제목 행 아래 14쌍 28매의 시(3:2-8)를 출생/죽음으로 열고 전쟁/평화로 닫은 뒤, "무슨 이익이 있으랴"(3:9)라는 책의 후렴을 지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측량 불가의 동거(3:11), 먹고 마심이라는 하나님의 선물(mattat Elohim, 3:13), 경외하게 하시려는 설계(3:14)를 차례로 밝히고, 법정의 악(3:16)과 사람·짐승의 동일한 호흡(ruach, 3:19)과

흙의 길(3:20)을 통과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몫(cheleq)"(3:22)이라는 결론과 답 없는 질문으로 닫히는, 전도서 둘째 국면의 개막이다.

한 문단: 추가 흔들린다 — 때가, 때가. 산실의 울음과 무덤가의 곡소리, 심는 손과 뽑는 손, 찢어지는 천과 꿰매는 손끝이 같은 박자로 지나가고, 목록은 평화라는 단어에서 멈춘다. 자막처럼 질문이 뜬다 — 무슨 이익이 있으랴. 들판의 한 사람이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본다. 그의 눈에 모든 것이 제때에 아름답고 가슴에는 때를 넘어서는 갈망이 뛰는데, 시간표의 처음과 끝은 안개에 싸여 있다. 그 안개 곁에 식탁이 차려진다 — 빵과 물, 수고 끝의 낙, 하나님의 선물. 화면은 성문 법정의 그림자를 지나, 사람과 짐승이 같은 숨을 쉬는 낮은 데로, 다한 곳으로 가는 흙의 길로 내려간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 — 자기 일터에서 손을 움직이며 웃는 한 사람. 그것이 그의 몫이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을 보게 할 자가 누구이라 — 물음 하나가 남은 채 3장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모든 무대를 두 장면씩 간 28컷의 시 → 법정(16절) → 흙(20절). 소품은 돌·식탁·호흡·흙. 동사의 시와 명사의 산문.
2 첫 느낌·분위기	아픈 때조차 제 차례를 받는 평온. 메트로놈의 수평(시)과 굴곡의 수직(산문). 화자가 실험자에서 바라보는 자로.
3 시작과 끝	범사(전체)에서 자기 일(하나)로, 단정에서 물음으로. 9절의 '이익'이 22절에서 '몫'으로 이름을 바꿈.
4 등장인물·사상	주어 없는 시 뒤에 산문이 모든 때의 주어(하나님)를 밝힘. 중심은 3:11 — 아름다움·갈망·한계의 동거. 3:14가 한계의 목적(경외)을 명시.
5 장면 컷	시(1~8)/질문과 선물(9~13)/경외의 설계(14~15)/법정(16~17)/흙과 몫(18~22)의 5컷. 통제 밖의 때로 열고 닫는 배열.
6 의문·발견·정보	경외(yare)의 전도서 첫 등장(3:14)이 12:13 결론의 씨앗. '알았도다' 삼중이 굿는 모름과 앎의 경계선. nirdaf·olam의 번역 폭 미해결.
7 동영상	추의 박자 28장면 → 안개 속 시간표와 차려진 식탁 → 법정의 그림자 → 숨과 흙 → 일터에서 웃는 한 사람, 압전.
8 초벌 제목·부제	"스물여덟 개의 때 — 영원이 심긴 마음으로 시간 목록을 읽다"
9 기도·내면	시종은 보여 주지 않으시고 오늘의 식탁은 차려 주신다는 경계선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28개의 배열 시학:** 첫 쌍(날 때·죽을 때)과 끝 쌍(전쟁·평화)은 개인이 고르지 못하는 때다. 통제 밖의 때로 목록을 열고 닫으며, 그 사이에 심고 뽑고 울고 웃는 — 손이 닿기도 하고 닿지 않기도 하는 — 때들을 채웠고, 긍정·부정의 어순마저 쌍마다 섞어 고정 패턴을 거부했다. 시는 주어를 끝까지 감추고, 산문(3:11)이 와서야 그 모든 때 위의 주어를 밝힌다. 목록 자체가 인생의 순서를 닮도록 빚어진 시다.

2. **결 2 — 3:11의 양면, 갈망과 한계의 동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분이, 영원(olam)을 마음에 두신 분이, 시종의 측량을 막으신 분이다 — 세 동사의 주어가 같다. 갈망과 한계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같은 설계의 두 면이라는 것. 그리고 3:14가 그 설계의 목적을 발화한다 — 경외하게 하려 하심. 측량할 수 없음은 사람을 좌절시키려는 장치가 아니라 그분 앞에 세우려는 장치로 적혀 있다.

3. **결 3 — cheleq와 mattat, 몫과 선물의 사슬:** 9절은 수고의 '이익(yitron)'을 묻고 22절은 수고의 '몫(cheleq)'을 받는다. 이익은 남는 것 — 시간 너머로 가져갈 잉여 — 이고, 몫은 분깃 — 지금 손에 쥐어진 분량 — 이다.

2:24에서 시작된 'en tov(더 나은 것이 없다)' 후렴이 3:12-13:22를 지나 5:18로 이어지며, 먹고 마시고 수고로 낙을 누리는 오늘이 mattat Elohim — 하나님의 선물 — 으로 거듭 호명된다. 헛됨의 책이 품고 있는 너그러움의 사슬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전 1:3 — "무슨 이익이 있으랴" — 3:9에서 후렴으로 재등장. 28때의 시 전체가 이 질문의 새 자료가 됨.
- 전 12:13 —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 3:14에서 처음 발화된 경외가 자라서 닿는 책의 결론.
- 전 12:7 —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 3:20-21의 질문이 만나는 단정.
- 창 2:7 · 3:19 — 흙(afar)으로 빛으심과 흙으로 돌아감 — 3:20 어휘의 출처.
- 욥 12:10 · 시 104:29-30 — 모든 생물의 호흡이 그의 손에 — 3:19 동일한 ruach의 시가서 평행.
- 시 90:12 —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 때를 세는 일이 기도가 되는 평행.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2~8절의 목록에서 시작한다 — 스물여덟 개의 때 가운데 내가 지금 지나는 때가 어느 줄에 있는지 짚어 본다.
- **멈춤 1:** 11절에서 멈춘다 —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내 안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결함이 아니라 심긴 것이라는 가능성 앞에 선다.
- **멈춤 2:** 13절에서 멈춘다 — 하나님의 선물. 오늘 저녁의 식탁이 측량 불가의 시간표 한가운데 차려진 선물이라는 호명을 듣는다.
- **끝:** 22절에서 멈춘다 — 그의 뭇. 이익을 묻던 입이 뭇을 받는 손이 되기까지, 법정의 악과 흙의 길을 다 통과해야 했다는 순서를 기억한다.

F · 자족성 점검

- [x] 시(1~8)·질문과 선물(9~13)·경외 설계(14~15)·법정(16~17)·흙과 뭇(18~22)의 다섯 단 완결
- [x] 3:9와 1:3의 후렴 호응, 3:12-13:22와 2:24·5:18의 en tov 사슬
- [x] 3:14 경외 첫 등장과 12:13 결론의 동선
- [x] 3:20-21과 창 2:7·3:19, 전 12:7의 흙·영 호응
- [x] 28때 배열(통제 밖으로 열고 닫음)과 주어 없는 시 → 주어를 밝히는 산문의 대칭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전도서의 spine은 '해 아래 모든 것의 헛됨을 정직히 통과시켜,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닻에 이르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2:13 —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결론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헛됨의 실험(1~2장), 때·분깃·하나님의 선물(3~11장),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경외의 결론(12장)으로 움직이는데, 3장은 그 둘째 국면의 개막이다. 1~2장의 화자는 지혜와 쾌락과 사업으로 해 아래를 실험하고 무너졌다. 3장에서 처음으로 화자의 시선이 실험대를 떠나 위를 본다 — 때를 정하시는 분, 영원을 심으신 분, 선물을 주시는 분이 같은 분이라는 발견(3:11-13).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3장은 창조 기사와 타락 기사의 어휘를 양손에 쥔 장이다 —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3:11이 창세기 1장의 '좋았더라'를 미학의 단어(yafeh)로 다시 올리고,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3:20이 창세기 3:19의 선고를 그대로 메아리친

다. 창조의 아름다움과 타락의 흠 사이에서, 전도서는 둘 다 부정하지 않고 둘 사이를 사는 법 — 뭇을 받고 경외하는 법 — 을 더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더듬음의 첫 단어가 3:14의 경외다. 책의 닳아 되는 단어가 측량 불가의 설계 목적으로 여기서 처음 물에 닿고, 12:13에서 온 무게로 내린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어 없는 때의 목록에서 때를 정하시는 주어에게로 / 이익의 질문(3:9)에서 뭇의 수용(3:22)으로 / 측량 불가에서 경외(3:14)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3장은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운동이다. 1~8절의 시는 주어를 감춘 채 때들만 나열하고, 산문이 와서 그 모든 때가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의 손 안에 있음을 밝힌다. 다만 이 밝힘은 시간표의 공개가 아니다 — 시종은 끝까지 안개에 싸여 있고, 공개되는 것은 시간표가 아니라 시간표를 쥐신 분의 성품(아름답게 하심, 선물 주심,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심)이다. 그 성품 앞에서 화자는 이익 대신 뭇을 받는다. 4장에서 이 시선은 해 아래의 눈물로 내려간다 —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목격(4:1). 때의 질서를 본 눈이 이제 그 질서 안에서 우는 사람들을 본다. 3장의 벡터는 전도서를 '헛됨의 정직에서 경외의 닳으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둘째 구간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시간 격언이다 —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달력과 액자에 걸리는 시.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갈망의 출처가 움직인다. 3:11은 사람의 채워지지 않음을 결함이나 우연이 아니라 심긴 것으로 말한다 — 영원을 그들의 마음에 두셨다(et-haolam natan belibbam). 영원을 사모하게 만드신 분이 측량을 막으셨다면, 갈망과 한계는 충돌이 아니라 한 설계의 두 면이다. 갈망은 사람을 시간 너머의 그분에게로 들어 올리고, 한계는 사람이 그분 노릇을 하지 못하게 낮춘다 — 그리고 그 둘이 만나는 좌표의 이름이 경외(3:14)다. 같은 깊이에서 또 하나가 움직인다. 사람과 짐승이 같은 호흡을 쉬고 같은 흠으로 돌아간다는 3:19-20은 사람을 깎아내리는 절이 아니라 사람의 위치를 정직하게 재는 절이다 — 흠의 피조물이면서 영원이 심긴 마음을 받은, 아래로는 짐승과 같고 안으로는 짐승과 다른 존재. 그 이중의 위치를 받아들이는 때에만 오늘의 식탁이 선물로 보인다. 헛됨의 책이 여기서 지키려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피조물의 정확한 키 — 그리고 그 키에 맞게 주어진 뭇의 존엄이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스물여덟 개의 때 가운데 나는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가. 그리고 측량할 수 없음 앞에서 나는 불안해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시간표를 해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아픈 때조차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것, 갈망이 결함이 아니라 심긴 것이라는 것, 그리고 시종을 감추신 분이 오늘의 식탁은 감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22절의 물음 —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을 보게 할 자가 누구이랴 — 은 끝내 달리지 않은 채 남는다. 그 열린 물음 곁에 즐거워하라는 권면이 나란히 적혀 있다는 사실이, 모름을 절망의 근거로 쓰지 못하게 한다. 3장은 안개와 식탁 사이에 독자를 세워 두고, 안개를 걷어 주는 대신 식탁을 가리킨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3:13) — 그 식탁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때의 질서를 본 눈이 이제 그 질서 안에서 우는 사람들을 본다 —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4: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eleq* — 뭇, 지금 손에 쥐어진 분깃.

미해결 질문

전도서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3:11의 *olam* — 영원인가, 세상인가, 숨겨진 것인가?

-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옮겨진 *olam*은 '아득한 지속'이 기본 결이나, 후대 전통은 '세상'으로도, 자음이 같은 *he'elam*(숨김)으로도 읽었다. 마음에 두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의 폭을 본문은 좁혀 주지 않는다. 보존.

Q2. 3:5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 이 돌은 무엇을 하는 돌인가?

- 밭을 망치는 돌인지 고르는 돌인지 세우는 돌인지, 스물여덟 때 가운데 행동의 뜻이 닫혀 있지 않은 유일한 쌍. 결의 쌍(안을 때·멀리 할 때)과 나란한 배치만 관찰로 두고 이월.

Q3. 3:15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 *nirdaf*의 폭은 어디까지인가?

- *radaf*(쫓다)의 수동 분사 *nirdaf*는 '지나가 버린 시간'으로도 '쫓겨난 자'로도 읽혀 왔다. 찾으시는 대상이 시간인지 사람인지 — 번역 폭째로 보존.

Q4. 3:18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barar*) — 거르심인가, 밝히 보이심인가?

- *barar*는 가려내다·골라내다·정련하다의 결을 가진 동사. 시험의 목적어("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는 분명한데 시험의 방식은 열려 있다. 보존.

Q5. 3:21 "인생들의 혼은 위로 ... 누가 알랴" — 이 질문과 12:7의 단정은 어떻게 공존하는가?

- 같은 책이 3장에서는 혼의 행방을 질문으로 열고 12:7에서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라고 말한다. 질문과 단정의 공존 자체를 봉합하지 않고 보존.

Q6. 3:17의 심판의 때는 언제인가 — 3:16의 현재진행형 악과 어떤 간격으로 놓여 있는가?

- 정의의 좌석에 지금 악이 앉아 있고(16절), 심판에는 때가 있다(17절). 그 때가 역사 안인지 너머인지 본문은 굿지 않는다. 기다림의 간격째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전도서 4장

ECC-004 · 시가서 · 히브리어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ein lahem menachem*)"가 한 절 안에서 두 번 울리는 학대의 직시(4:1)에서, 시기를 동력으로 진단한 성취(4:4)와 한 손의 평온(4:6)을 지나, 외로운 부자의 "내가 누구를 위하여"(4:8) 바로 곁에 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동행의 시(4:9-12)가 놓이는 — 고독의 진단과 작은 처방이 나란한 장.

관찰된 사실

전도서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다섯 무대의 이동: 학대의 거리(1~3절) → 일터(4~6절) → 홀로 사는 부자의 빈집(7~8절) → 길·들·밤의 동행(9~12절) → 왕궁과 광장(13~16절). 전부 "해 아래"(1:3·7·15절)라는 한 조명 밑.
- 소품: 눈물(*dimah*), 권세의 손(1절), 팔짱(5절), 펼친 한 손바닥과 움켜쥔 두 줌(6절), 부요 더미(8절), 일으키는 손(10절), 함께 누운 온기(11절), 세 겹 줄(12절), 감옥 문과 왕관(13~14절), 무수한 환호(16절).
- 소재의 두 갈래: 가르는 것들(눈물·권세·시기·부요·환호)이 장의 앞뒤를 차지하고, 잇는 것들(동무·온기·줄)이 한가운데(9~12절)에 모임.
- 형식 표지: *raiti*(내가 보았도다)가 1·4·7·15절에서 단원을 열고,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가 4·16절에서 닫고, *tov min*(~보다 낫다) 격언이 3·6·9·13절에 반복.
- 1절 안에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ein lahem menachem*)"가 두 번 — 빈 위로의 문장이 장의 배경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2장의 헛됨이 코헬렛 개인의 실험 보고였다면 4장은 거리의 공기 — 남의 눈물을 보는 장.
- 2~3절의 판정(죽은 이가 더 복되고 태어나지 않은 이가 그보다 복되다)이 주는 충격 — 그러나 눈물을 본 사람의 말투로 읽힘.
- 명암의 삼단 설계: 1~8절 점점 어두워짐 → 9~12절 온기 → 13~16절 다시 서늘함. 가장 따뜻한 단락이 정확히 한가운데.
- 8절의 독백 "내가 누구를 위하여" — 듣는 이가 없다고 본문이 먼저 말해 둔 빈방에 울리는 물음.
- 11절은 4장에서 유일하게 피부로 오는 절 — 수사 의문 형식이 몸으로 답하게 함.
- 1절의 어순: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 서술 아닌 명사구 제시, 눈물을 가리키기만 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 16절: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 사회의 맨 아래(눌린 자들의 눈물)에서 열고 맨 위(왕의 잇힘)에서 닫음 — 바닥의 고통에도 정상의 영광에도 곁이 비어 있다는 공통분모.

- 어미의 이동: 현재의 영탄("없도다")에서 미래의 부정("아니하리니")으로.
- 군중(1절) — 개인(7~12절) — 군중(16절)의 액자 구조. 온기는 액자 안쪽에서만 나옴.
- 4절과 16절이 같은 후렴("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으로 닫혀, 후렴 없는 9~12절이 도드라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학대받는 이들(ashuqim)과 학대하는 이들(무리), 죽은 이들·태어나지 않은 이(비교 항), 시기받는 일꾼과 이웃(4절), 팔짱 낀 우매자(5절), 홀로 모으는 부자(8절 — 4장의 유일한 직접 발화자), 넘어지는 이와 일으키는 동무(10절),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고 둔한 왕(13절), 무수한 백성(16절), 그리고 관찰자 코헬렛.
- 중심 대비: echad(하나·홀로, 8절~)와 shenayim(둘, 9절~) — 추상 개념이 아니라 일(9)·실패(10)·밤(11)·위협(12)의 네 국면으로 제시.
- 네 개의 관찰 보고: raiti 단원 1~3절(학대), 4~6절(시기와 평온), 7~12절(홀로와 둘), 13~16절(인기의 순환).
- 7~8절과 9~12절의 인접: 외로운 부자의 진단 직후 접속 표지 없이 동행의 시 — 처방이 명령문이 아니라 배치로 주어짐.
- 8절 인물의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라 비어 있는 목적어 — 수고에 끝이 없는데 "누구를 위하여"가 빈 채.
- 손의 다섯 용법: 누르는 권세의 손(1절), 접힌 팔짱(5절), 움켜쥔 두 줌과 펴서 담은 한 손(6절), 일으키는 손(10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학대의 거리 — 눈물, 권세의 손, 두 번 적힌 "위로자가 없도다", 죽은 이·태어나지 않은 이가 복되다는 판정.
- 컷 2 (4~6절): 일터 — 시기가 동력이라는 진단, 팔짱 낀 우매자, 한 손의 평온 격언.
- 컷 3 (7~8절): 빈집 — 끝없는 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의 독백, 불행한 노고 판정.
- 컷 4 (9~12절): 동행의 시 — 수고의 상, 넘어짐과 일으킴, 누움의 온기, 맞서는 둘, 세 겹 줄.
- 컷 5 (13~16절): 왕궁과 광장 — 감옥에서 왕좌로, 무수한 환호, 다음 세대의 식은 마음.
- 컷 4 내부 계단: 명제(9) — 사례 셋(10 일으킴 / 11 온기 / 12 맞섬) — 수의 상승(셋째 줄). 이 단락에만 hevel 후렴 없음.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ashuqim(אֲשֻׁקִּים) — 학대받는 이들. 수동 분사형 — 놀림을 당하고 있는 상태가 형태에 담김. 1절.
- menachem(מְנַחֵם) — 위로자. nacham(위로하다) 어근의 능동 분사. 1절에서 부정어와 함께 2회. 애가 1장의 후렴과 동일 어휘 — 배경.
- dimah(דִּמָּה) — 눈물, 집합 단수. / koach(כֹּחַ) — 힘·권세. 1절.
- qinah(קִינָה) — 시기·질투·열심. 부정적 시기와 거룩한 열심에 두루 쓰이는 폭 넓은 어휘. 4절.
- kaph(כַּף) — 펼친 손바닥(하나) / chophnayim(כּוֹפֵינָם) — 움켜쥔 두 줌(쌍수형). 6절의 형태 대비.
- nachat(נָחַת) — 평온·쉽. nuach(쉬다) 계열. 6절. 전 6:5·9:17에서 재등장.
- echad(אֶחָד) — 하나·홀로 / shenayim(שְׁנַיִם) — 둘. 8~12절의 중심 수사.
- chut hamshullash(חֹטַם שְׁלֹשָׁה) — 세 겹으로 꼰 줄. shalash(שְׁלֹשָׁה)의 분사형 수식. 12절.

- *yeled misken*(יֶלֶד מִסְכֵּן) — 가난한 젊은이. *misken*은 전도서에만 나오는 드문 단어, 9:15-16의 '가난한 지혜자'로 재등장. / *kesil*(כְּסִיל) — 둔한 미련함, 늙은 왕의 수식. 13절.
- *sheni*(שֵׁנִי) — 둘째('둘째 젊은이', 15절). / *dor*(דּוֹר) — 세대. 16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raiti*(보았다) 네 단원 + *tov min* 격언 네 기둥(3·6·9·13절) + *hevel* 후렴 두 번(4·16절)의 삼중 골격.
- *tov min*의 방향 전환: 3절은 존재를 내려놓는 가장 어두운 비교, 6절부터는 적은 것·함께인 것·낮은 것이 낫다는 쪽으로 이동 — 같은 형식이 절망과 처방을 모두 지음.
- "ein lahem menachem"의 1절 내 2회 반복 — 애가 1장(1:2,9,16,17,21)의 후렴과 같은 어휘를 쓰는 반복 형식.
- 7~8절(고독의 진단)과 9~12절(동행의 시)의 무표지 인접 — 명령 없이 배치로 놓인 처방.
- 9~12절 내부: 명제 — 사례 셋 — 수의 상승(하나→둘→셋)의 완결시. 4장에서 유일하게 *hevel* 후렴이 면제된 단락.
- 8절의 1인칭 독백 인용 — 3인칭 관찰 보고 안에 갑자기 열리는 내면의 창.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수메르 길가메시-후와와 단편 — 두 사람의 동행 모티프와 '세 겹 줄은 끊기지 않는다'에 상응하는 격언. 4:9-12와 형식을 공유하는 근동 전통 — 배경.
- 이집트 '자기 바(영혼)와 다투는 사람의 대화' — 삶보다 죽음이 낫다는 염세 문학 장르. 4:2-3과 장르가 닮음 — 배경.
- 이집트 '능변의 농부' 등 — 권세의 학대와 호소할 데 없는 약자를 다루는 근동 사회 비판 전통. 4:1의 배경.
- 감옥에서 왕좌로 — 근동 궁정 이야기의 신분 역전 화소(요셉 내러티브와 공유) — 배경.
- LXX: *menachem* → *parakalōn*(위로하는 이) 분사 / *hevel* → *mataiotēs* / *reut ruach* → *proairesis pneumatos*. MT 4장은 17절까지(한글·영어의 5:1 = MT 4:17) — versification 차이,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전 4:1 ↔ 애 1:2,9,16,17,21 (위로자가 없도다 — 같은 어휘의 후렴)
- 전 4:2-3 ↔ 욥 3:11-26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 어두운 판정의 동류)
- 전 4:4,16 ↔ 전 1:14 (바람을 잡는 것 — 권 전체 후렴)
- 전 4:9-12 ↔ 창 2:18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 '홀로'에 대한 정경의 첫 진단)
- 전 4:2 ↔ 전 9:4-6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 반대 방향의 판정과의 긴장)
- 전 4:14 ↔ 창 41:14,41 (감옥에서 나와 다스리게 된 이 — 신분 역전 화소)
- 전 4:1 ↔ 전 5:8 (가난한 자의 학대를 보거든 놀라지 말라 — 학대 관찰의 재방문)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낮의 거리 — 흐르는 눈물과 그 위에 드리운 권세의 손, 위로하러 오는 사람은 화면 어디에도 없다. 낮은 내레이션 — 죽은 지 오랜 이들이 더 복되고 태어나지 않은 이가 그보다 복되다. 화면이 일터로 — 분주한 손들과 빛나는 재주, 그 시선 끝에 이웃이 있다. 팔짱 낀 사람이 제 살을 축내고, 움켜쥔 두 줌과 평온이 담긴 한 손바닥이 나란히 놓인다. 불 꺼진 큰 집 — 재물 더미 사이에서 한 사람이 묻는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대답이 없다. 바깥 길 — 두 사람이 걷다 하나가 넘어지고 다른 하나가 일으킨다. 밤, 함께 누운 둘의 온기. 어둠 속 위협 앞에 등을 맞댄 둘, 세 겹으로 끈 줄이 당겨져도 끊어지지 않는다. 감옥 문이 열리고 가난한 젊은이가 왕관을 받는다. 광장을 덮는 환호 — 빨리 감기 — 같은 광장, 다음 세대, 식은 침묵. 바람이 지나가고, 암전.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위로자가 없도다, 두 번 — 그리고 둘의 시"
- 초별 부제: "학대받는 이들의 눈물과 두 번 적힌 '위로자가 없도다' 아래에서 시기의 동력과 한 손의 평온이 갈리고, 외로운 부자의 '누구를 위하여' 바로 곁에 둘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동행의 시가 놓이며, 감옥에서 오른 왕의 환호마저 한 세대의 김으로 식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9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raiti 네 단원 + tov min 네 기둥 + ein lahem menachem 반복 + 근동 격언·염세 문학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4:12의 세 겹 줄을 삼위일체나 특정 교리 상징으로 앞당겨 읽지 않고, 하나→둘→셋으로 오르는 격언의 수 진행 관찰로만 됨.
- 4:1의 menachem(위로자) 부재를 보헤사·메시아 기대로 봉합하지 않고, 애가 1장과 어휘를 공유하는 반복 형식 관찰로만 됨.
- 4:2-3의 어두운 판정을 교리적 절망이나 성급한 소망으로 다듬지 않고, 표정이 가려진 채 적힌 판정문 그대로 보존.
- 4:13-16을 특정 역사 인물(요셉·다윗 등) 알레고리로 확정하지 않고, 신분 역전 화소를 공유하는 우화풍 일화로만 됨.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전도서 4장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4:1)로 열어 학대받는 이들의 눈물과 두 번 적힌 "위로자가 없도다(ein lahem menachem)"를 직시한 뒤, 죽은 이와 태어나지 않은 이가 더 복되다는 어두운 판정(4:2-3), 모든 수고와 재주의 동력이 이웃의 시기라는 진단과 한 손의 평온(nachat,

4:6), 아들도 형제도 없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묻는 외로운 부자(4:7-8)를 거쳐, 그 바로 곁에 둘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동행의 시 — 일으킴·온기·맞섬·세 겹 줄(4:9-12) — 를 놓고, 감옥에서 왕이 된 젊은이의 환호가 한 세대 만에 식는 순환(4:13-16)으로 닫는, 헛됨의 관찰이 개인의 실험실에서 사회의 결로 확장되는 장이다.

한 문단: 한낮의 거리에서 카메라가 얼굴들을 훑는다. 흐르는 눈물, 그 위에 드리운 권세의 손 — 위로하러 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고, 본문은 그 없음을 두 번 적는다. 죽은 이들이 더 복되고 태어나지 않은 이가 그보다 복되다는 낮은 내레이션이 깔린다. 화면이 일터로 옮겨 가면 분주한 재주의 시선 끝에 이웃이 있고, 움켜쥔 두 줌 옆에 평온이 담긴 한 손바닥이 놓인다. 불 꺼진 큰 집에서 한 사람이 묻는다 —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대답이 없다. 그런데 바로 다음 화면에서 두 사람이 길을 걷는다. 하나가 넘어지자 다른 하나가 일으키고, 추운 밤에 함께 누워 온기를 나누고, 위협 앞에 등을 맞대고, 세 겹으로 꼰 줄이 당겨져도 끊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감옥 문이 열리고 가난한 젊은이가 왕관을 받지만, 광장을 덮던 환호는 다음 세대에서 식어 있다. 바람이 지나가고 암전 — 그러나 일으켜 주던 손의 잔상이 화면 한가운데 남는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해 아래 한 조명 밑의 다섯 무대(거리—일터—빈집—길과 밤—왕궁). 눈물·권세의 손 對 동무·온기·줄. 가르는 소재가 앞뒤, 잇는 소재가 한가운데.
2 첫 느낌·분위기	거리의 공기, 눈물을 본 말투. 어둠—온기—서늘함의 삼단 조명. 빈방에 울리는 독백과 몸이 답하게 하는 11절의 질문.
3 시작과 끝	바닥의 눈물에서 정상의 잊힘으로 — 양 끝 모두 곁이 비어 있음. 군중—개인—군중의 액자, 온기는 액자 안쪽에서만.
4 등장인물·사상	학대하는 무리와 눌린 무리, 팔짱 낀 우매자, 유일한 발화자인 외로운 부자, 일으키는 동무, 젊은 왕. 중심 대비는 echad와 shenayim — 일·실패·밤·위험의 네 국면.
5 장면 컷	학대(1~3)/시기(4~6)/홀로(7~8)/둘(9~12)/왕좌(13~16)의 다섯 컷. 컷 4는 명제—사례 셋—수의 상승으로 닫히는 완결시, hevel 후렴 면제.
6 의문·발견·정보	tov min 네 기둥의 방향 전환. menachem 부재와 일으키는 동무의 마주 봄. 2~3절 판정의 표정·세 겹 줄의 셋째 줄 미해결. 근동 격언·염세 문학 배경.
7 동영상	눈물의 거리 → 일터의 두 손 → 빈집의 독백 → 둘이 걷는 길과 세 겹 줄 → 식는 광장, 암전.
8 초별 제목·부제	"위로자가 없도다, 두 번 — 그리고 둘의 시"
9 기도·내면	손의 다섯 용법 가운데 내 손이 어느 용법으로 오래 움직이는지 본다. nachat — 한 손의 평온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ein lahem menachem, 두 번 적힌 빈 곳: 한 절 안의 같은 문장 반복은 전도서에서 드문 형식이다. 권세는 학대하는 쪽의 손에 있고 위로자는 없다 — 그리고 없다고 한 번 더 적는다. 애가 1장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두고 다섯 번 우는 그 후렴과 같은 어휘가, 여기서는 멸망한 도시가 아니라 일상의 거리에 적용된다. 본문은 빈 곳을 채우지 않고 빈 곳의 윤곽을 두 번 그어, 읽는 이가 그 윤곽을 지나치지 못하게 한다.

2. 결 2 — tov min, 같은 형식의 두 방향: "~보다 낫다"가 네 번(3·6·9·13절) 기둥처럼 서 있다. 첫째 기둥은 존재 자체를 내려놓는 가장 어두운 비교이고, 나머지 셋은 적은 것이 많은 것보다, 둘이 하나보다, 낮은 이가 높

은 이보다 낫다는 쪽으로 움직인다. 동일한 격언 형식이 절망의 문장과 처방의 문장을 모두 짓는다 — 4장의 비교급은 도피가 아니라 저울이고, 저울 위에 놓이는 것이 절마다 달라진다.

3. **결 3 — 무표지 인접, 진단 결의 처방:** 끝없는 수고의 외로운 부자(7~8절) 직후, 접속사도 명령문도 없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9절)이 온다. 본문은 '그러므로 동무를 사귀라'고 말하지 않는다. 고독의 진단 결에 동행의 격언을 놓아 둘 뿐이다. 그리고 그 단락에만 hevel 후렴이 붙지 않는다 — 헛됨의 지도 한가운데 후렴이 면제된 작은 구역 하나가, 명령 없이 배치만으로 표시되어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애 1:2,9,16,17,21 — "위로자가 없도다"의 후렴. 멸망한 도시의 어휘가 일상의 거리로 옮겨 적힘.
- 욥 3:11-26 —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4:2-3과 닿는 고통 언어의 동류.
- 창 2:18 —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 '홀로'에 대한 정경의 첫 진단이 4:9-12의 배경에 깔림.
- 전 9:4-6 —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4:2와 반대 방향의 판정이 같은 권 안에 공존.
- 전 9:15-16 — 가난한 지혜자(miskén)가 성읍을 건지고도 잊힘. 4:13-16의 어휘와 화소가 재방문됨.
- 창 41:14,41 — 감옥에서 나와 다스리게 된 이. 4:14의 신분 역전 화소.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에서 시작한다 — 본문이 가리키는 눈물을 따라 보고, 위로자가 없다는 문장을 두 번 읽는다.
- **멈춤 1:** 4절에서 멈춘다 — 내 수고의 엔진을 들여다본다. 거기서 무엇이 돌고 있는지.
- **멈춤 2:** 8절에서 멈춘다 — "누구를 위하여." 내 목적어 칸이 채워져 있는지 비어 있는지 본다.
- **끝:** 10절과 12절 사이에서 멈춘다 —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손, 함께 맞서 줄 등. 내 결의 줄이 몇 겹인지 세어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학대(1~3)·시기(4~6)·홀로(7~8)·둘(9~12)·왕좌(13~16)의 다섯 단원 완결
- [x] raiti 네 단원 표지와 hevel 후렴 두 번(4·16절)의 골격
- [x] tov min 네 기둥(3·6·9·13절)의 분포와 방향 전환
- [x] 7~8절과 9~12절의 무표지 인접 — 배치로 주어지는 처방
- [x] ein lahem menachem의 1절 내 2회 반복과 애가 후렴의 어휘 공유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전도서의 spine은 '해 아래 모든 것의 헛됨을 정직히 통과시켜,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닻에 이르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2:13 —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헛됨의 실험(1~2장), 때와 분깃과 하나님의 선물(3~11장),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결론(12장)으로 움직이는데, 4장은 둘째 국면의 입구에서 헛됨의 관찰이 처음으로 사회 전체의 결 — 학대의 구조, 시기의 경제, 고립된 축적, 권력의 순환 — 로 확장되는 지점이다. 코헬렛 개인의 실험실(1~2장)에서는 자기 손으로 지은 것들의 헛됨을 보았다면, 4장에서는 남의 눈물과 남의 빈집과 남의 왕좌를 본다. 그리고 이 직시는 권 후반의 닻과 끊어져 있지 않다 —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정직(4:1)은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2:24)이라 말하던 그 너그러움의 다른 얼굴이고, 5:8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로 재방문되며, 12:14의 "하나님

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가 마지막에 받아 든다. 4장이 두 번 적어 둔 위로자의 빈 칸은 권 안에서 끝내 채워지지 않은 채, 경외라는 닳을 향해 본문을 미는 무게로 남는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로자 없는 눈물의 직시에서 둘의 작은 격언으로 / 움켜쥔 두 줌(chophnayim)에서 평온이 담긴 한 손(kaph nachat)으로 / 광장의 환호에서 일으켜 주는 손의 길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4장은 '결이 비어 있는 네 장면'을 통과해 '결이 있는 한 단락'에 독자를 데려다 놓는 운동이다. 학대의 거리에, 시기의 일터에도, 부자의 빈집에도, 식어 가는 광장에도 결이 없다 — 그 한가운데 일으킴과 온기와 맞섬과 세 겹 줄이 놓인다. 다만 이 운동은 해결이 아니라 표시다. 학대의 구조는 그대로이고 환호의 수명도 그대로다. 본문은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쳤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둘이 만들 수 있는 것의 목록만 정확히 남긴다. 5장에서 이 운동은 성전 문턱으로 이어진다 — 거리를 살피던 눈이 하나님 앞에 서면, 처방은 다시 한 번 줄이는 쪽으로 간다. 말을 적게 하라.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사회 관찰 보고서다 — 학대, 시기, 고립, 권력 교체라는 네 장의 스냅 사진.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결'이라는 한 가지가 네 장면 전부를 꿰고 있다. 눈물 곁에 위로자가 없고(4:1), 수고 곁에는 비교하는 이웃만 있고(4:4), 재물 곁에 아들도 형제도 없고(4:8), 왕좌 곁에 기뻐해 줄 다음 세대가 없다(4:16). 헛됨(hevel)이 이 장에서 띠는 얼굴은 무상함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올라도, 결이 비어 있으면 그 전부 가 김처럼 흩어진다는 관찰. 그리고 본문이 이 비어 있음을 다루는 방식이 수면 아래의 또 한 겹이다. 본문은 위로자를 급조하지 않는다. 학대의 구조를 한 절 만에 뒤집지도 않는다. 다만 눈물을 두 번 가리키고, 그 곁에 둘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격언을 명령 없이 놓아 둔다. 직시와 처방이 둘 다 작다 — 그러나 둘 다 정직하다. 보이는 것을 부풀리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을 과장하지 않는 이 절제가, 전도서가 헛됨을 통과시키는 고유한 손길이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 줄 동무가 곁에 있는가 —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의 그 동무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학대의 구조를 혼자 고치라고 요구하지 않고, 시기 없는 성취를 증명하라고 다그치지도 않는다. 다만 움켜쥔 두 줌과 평온이 담긴 한 손바닥을 나란히 놓아 어느 손으로 살고 있는지 보게 하고(4:6), 끝없는 수고의 한복판에서 "누구를 위하여"라는 목적어 칸이 비어 있지 않은지 묻게 하며(4:8), 넘어짐을 전제로 한 동행 — 안 넘어지는 둘이 아니라 넘어질 때 일으켜 주는 둘 — 의 그림 네 컷을 보여 준다(4:9-12). 환호는 한 세대 만에 식는다고 본문이 미리 일러 두었으니(4:16), 남는 것은 광장의 함성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준 그 동무다.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 셋째 줄이 누구인지 본문은 끝내 밝히지 않은 채, 그 비워 둔 한 가닥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거리의 눈물을 살피던 눈이 성전 문턱 앞에 서고, 처방은 다시 줄이는 쪽으로 간다 —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5:2).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achat — 평온, 한 손에 담기는 몫.

미해결 질문

전도서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4:1의 화자는 왜 학대를 고치려 하지 않고 '본다'에 머무는가?

- 눈물을 두 번 가리키면서도 행동 처방이 없는 형식 — 관찰자의 위치가 무력함인지 정직함인지, 본문은 화자의 표정을 가린 채 보고만 남긴다. 보존.

Q2. 4:2-3의 판정(죽은 이·태어나지 않은 이가 더 복되다)은 코헬렛의 결론인가, 눈물을 본 직후의 토로인가?

- 욕 3장의 고통 언어와 닿는 결이면서도, 전 9:4("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과는 방향이 반대다. 권 안의 두 판정이 공존하는 채로 이월.

Q3. 4:4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 — '모든'은 과장 수사인가 전수 관찰인가?

- 성취 전체의 동력을 시기로 진단하는 문장의 폭이 어디까지인지, 시기 없는 수고의 가능성을 본문이 담았는지 열었는지 — 한쪽으로 정하지 않고 보존.

Q4. 4:8의 독백 "내가 누구를 위하여" — 그 사람의 말인가, 코헬렛 자신의 고백이 스민 것인가?

- 3인칭 보고 안에 1인칭 독백이 인용되는데, 인용 표지가 흐릿해 화자의 목소리와 겹쳐 들린다. 주어의 겹침을 그대로 보존.

Q5. 4:12의 세 겹 줄 — 둘을 말하던 시가 결구에서 셋으로 오르는 한 걸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격언의 수사적 상승인지, 더 늘어나는 동행인지 — 셋째 줄의 정체를 본문이 비워 두었다. 비워 둔 채로 이월.

Q6. 4:13-16의 젊은이와 왕은 특정 인물의 그림자인가, 이름 없는 우화인가 — 그리고 15절의 '둘째(sheni) 젊은이'는 누구인가?

- 감옥에서 왕좌로의 화소는 요셉을 떠올리게 하지만 본문은 이름을 주지 않고, '둘째 젊은이'의 지시 대상(같은 젊은이인지 그다음 교체자인지)도 문장이 열려 있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전도서 5장

ECC-005 · 시가서 · 히브리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5:2)라는 거리가 성전 문턱의 발걸음과 입을 절제하게 하고, 은을 사랑하는 자의 불면(5:10-12)과 벌거벗고 돌아가는 손(5:15)을 지나, 먹고 마시며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mattat Elohim*, 5:19)이라는 셋째 결론과 "기쁨으로 응답하심"(5:20)에 닿는 — 경외가 처음 명령형으로 발화되는(5:7) 장.

관찰된 사실

전도서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네 무대의 이동: 하나님의 집 문턱(1~7절) → 어느 지방의 행정 풍경(8~9절) → 두 침실(10~12절) → 한 소유주의 집과 식탁(13~20절). 성소에서 일상으로 내려오는 동선.
- 소품(성소): 삼가는 발, 듣는 귀, 제물(*zevach*), 절제되는 입, 서원(*neder*), 꿈(*chalom*) — 1~7절.
- 소품(거리·장부): 짓밟히는 정의와 공의, 밭의 소산, 은(*kesef*), 늘어나는 재산과 먹는 자들, 노동자의 단잠과 부자의 불면 — 8~12절.
- 소품(빈손·식탁): 재난, 아들 앞의 빈손, 모태와 벌거벗음, 어두운 데서 먹는 밥, 그리고 18~19절의 먹고 마시는 상과 몫(*cheleq*) — 13~20절.
- 형식 소재: 1~9절은 2인칭 명령("삼갈지어다·열지 말며·내지 말라·더디게 하지 말라·이상히 여기지 말라") — 1인칭 회고로 오던 전도서가 처음으로 길게 독자를 마주 보는 단락. 10절부터 금언·관찰("내가 보았나니")로 복귀.
- MT 번호: 히브리어 본문은 우리 5:1을 4:17로 세고 MT 5장은 19절 — 단락 구분 전승의 차이, 배경.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본문이 독자를 향해 돌아선 공기 — "너는"의 직접성. 그러나 명령의 내용이 낮춤(덜 말하라·발을 삼가라)이라 압박이 아니라 숨 고름으로 닿음.
- 음량의 설계: 성소의 낮춘 목소리(1~7) — 거리의 소음(8~9) — 단잠의 고요와 불면의 뒤척임(10~12) — 재난 뒤의 적막(13~17) — 식탁의 도란거림(18~20).
- 10절 "만족하지 못하고"의 이중 반복이 갈증처럼 울리고, 18절에서 "낙을 누리는 것"으로 처음 풀리는 안도.
- 12절의 미각 — *metuqah*(달다)가 잠에 붙음. 17절의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와 18절의 먹고 마심 — 같은 동작, 다른 빛.
- tov-min 비교 구문의 결: 듣는 것이 제물보다 나으니(1절),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5절) — 적은 쪽이 이기는 잠언식 비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shemor raglekha)."
- 20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maaneh)."
- 사람이 다가가는 동작(절제)으로 열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동작으로 닫힘 — 방향의 역전.
- 어미의 이동: 명령("삼갈지어다") → 서술("응답하심이니라"). 독자의 할 일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로.
- 관찰의 책이 "깊이 관찰하지 아니하리니"(20절)로 닫히는 결말 — 책의 동사가 내려놓아지는 마지막 절.
- 1절의 '듣는 것'과 20절의 '응답' — 부름과 응답의 짝이 장의 양 끝에 걸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하나님(하늘에 계신 분, 장 전체 8회), 너(1~9절 청자), 우매한 자들(1·4절), 사자(malakh, 6절 — 정체 미명시), 빈민(8절), 높은 자·더 높은 자·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8절), 왕(9절), 은을 사랑하는 자(10절), 먹는 자들(11절), 노동자와 부자(12절), 소유주와 아들(13~14절), 하나님께서 주신 바를 받는 한 사람(18~20절).
- 중심 사상: 7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yare)" — 3:14의 서술("경외하게 하려 하심")이 처음으로 명령형이 됨. 많음(걱정·꿈·말)을 헛됨으로 쓸고 "오직" 하나만 남기는 구문.
- 4~6절 서원 단락의 논리: 명령 — 이유 — 반복 — 비교 — 금지 — 수사 의문. 신 23:21-23과 같은 결 — 자발적인 말이 가장 무거운 빛이 되는 구조.
- 손의 동선: 멸하시게 될 손으로 한 것(6절) — 아들 앞의 빈손(14절) — 가지고 가지 못하는 손(15절) — 제몫을 받는 손(19절). 쥐는 손은 비고 받는 손은 참.
- 12절 잠의 저울: 소유의 양과 잠의 깊이가 반대로 감. 부요함이 '때문에'라는 이유로 불면의 원인이 됨.
- 10절 ohev kesef(분사 — 지속 상태)와 savea(만족)의 어긋남: 사랑하는 그 대상이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구문 — 배경.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하나님의 집 문턱 — 삼가는 발, 듣는 귀, 서원의 무게, 많은 꿈과 말, 경외의 명령형.
- 컷 2 (8~9절): 어느 지방 — 학대당하는 빈민, 층층의 감찰 위계, 밭의 소산을 받는 왕.
- 컷 3 (10~12절): 두 침실 — 은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랑, 노동자의 단잠, 부자의 불면.
- 컷 4 (13~17절): 한 소유주의 몰락 — 자기에게 해가 되는 소유, 재난, 빈손, 벌거벗고 옴과 돌아감, 어둠 속의 일평생.
- 컷 5 (18~20절): 식탁 — 수고 중의 낙, 몫, 하나님의 선물, 기쁨의 응답.
- 컷 4 내부의 액자: 13절 raah cholah("큰 폐단")로 열리고 16절 같은 어구로 닫히는 수미. 그 안에서 소유—재난—출생 회고—결산—일평생의 식사가 한 인생을 통과.
- 13절과 18절의 같은 동사 "내가 보았나니" — 첫 번째 봄은 폐단을, 두 번째 봄은 "선하고 아름다움"을 봄.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shemor raglekha(שְׁמֹר רַגְלֶךָ) — 네 발을 지키라. 1절. shamar는 '지키다·보존하다' 계열. 일부 사본 전통은 복수 '발들'.
- qarov lishmoa(קָרוֹב לְשֹׂמֵא) — 듣기 위해 가까이 있음. 부정사 구문 — 듣는 상태로 다가가 있음. 1절.
- zevach(זֶבַח) — 제물. 1절. / chalom(חֲלוֹם) — 꿈. 3·7절.

- *neder*(נָדַר) — 서원, 자발적으로 묶이는 약속. 4·5절. / *malakh*(מַלְאֲכָא) — 사자·전령. 6절. LXX는 '하나님 앞에 서'로 옮김.
- *yare*(יָרָא) — 경외하라. 7절, 명령형. 3:14의 서술을 명령으로 바꾸는 첫 발화.
- *gavoah*(גָּבוֹהַ) — 높은 자. 8절 한 절에 세 번 겹침 — 위계의 사다리를 어휘 반복으로 그림.
- *ohev kesef*(אָהֵב כֶּסֶף) — 은을 사랑하는 자(분사 — 지속 상태). 10절. / *hamon*(חֲמוֹן) — 풍요·무리·소란. 10절.
- *metuqah shenat haoved*(מְתוּקָה שְׁנַת הָעֶבֶד) — 일하는 자의 잠은 달다. 12절.
- *raah cholah*(רָעָה חוֹלָה) — '병든 약', 개역개정 "큰 폐단". 13·16절의 수미.
- *tov asher-yafeh*(טוֹב אֲשֶׁר-יָפֵה) — 선하고 아름다운. 18절, 전도서에서 여기만 나오는 짝.
- *cheleq*(חֶלֶק) — 몫·분깃. 18·19절. / *mattat Elohim*(מַתַּת אֱלֹהִים) — 하나님의 선물. 19절, 3:13의 재등장.
- *maaneh*(מַעֲנֶה) — anah 어근. '대답하다'와 '분주하게 하다'의 두 갈래로 번역들이 갈라짐. 20절. 미해결 보존.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명령 단락(1~9) + 금언 묶음(10~12) + 사례 이야기(13~17) + 선물 결론(18~19) + 응답의 결구(20) — 다섯 단 구성.
- 선물 결론의 누적: 2:24 → 3:12-13 → 5:18-19. 세 번째가 가장 길고 정돈됨 — *cheleq*(몫)가 붙고 "능히 누리게 하시며"의 사역이 더해짐. 8:15·9:7로 이어질 나선.
- '먹다' 동사의 다섯 번 분포(11·12·17·18·19절): 남의 재산을 먹는 입들 — 조건 무관한 단잠의 밥 — 어둠 속의 밥 — 선물의 밥상.
- 13~16절 *raah cholah* 수미 액자 + 13절/18절 "내가 보았나니"의 이중 봄 — 같은 눈이 폐단과 아름다움을 차례로 봄.
- *tov-min* 비교(1·5절)와 많음의 목록(걱정·꿈·말, 3·7절) — '덜한 것이 낫다'가 전반부의 뼈대.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서원(votive) 제도 — 메소포타미아·우가리트·이집트 신전의 봉헌 서원·상환 기록에 광범위하게 남은 근동 공통 관행. 본문이 서원을 설명 없이 전제하는 제도 배경.
- 꿈 — 근동에서 신탁 매체로 존중되어 해몽 문서가 만들어졌으나, 본문은 꿈을 걱정의 부산물(3절)·헛된 일의 동반자(7절)로 둬 — 배경.
- 층층 행정 위계(8절) — 지방 총독 위에 관리가 겹치던 페르시아 시대 행정 구조와 닿는다는 설명 — 배경.
- 은(kesef) — 근동에서 무게로 달아 쓰던 교환 수단. 10절의 물질 배경.
- LXX: 5:6의 *malakh*를 '하나님 앞에서'로, 5:9의 난해 구문을 '경작된 밭' 계열로 정리. MT 번호는 4:17부터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전 5:4-6 ↔ 신 23:21-23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죄 — 서원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니)
- 전 5:1 ↔ 삼상 15:22 (듣는 것이 제사보다 — 순종과 제물의 비교)
- 전 5:2 ↔ 시 115:3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 공간 대비의 공유)
- 전 5:4-6 ↔ 잠 20:25 (서원한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 전 5:15 ↔ 욥 1:21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 같은 어휘의 회귀)
- 전 5:18-19 ↔ 전 2:24 · 3:12-13 · 3:22 · 8:15 · 9:7-9 (먹고 마시며 수고 중의 낙 — 선물 결론의 나선)

- 전 5:10·15 ↔ 답전 6:7-10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 돈을 사랑함 — 후대의 울림,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돌계단 위의 발이 느껴진다 — 하나님의 집 문턱. 입은 닫히고 귀가 열린다. 화면이 위로 열린다 — 하늘, 그리고 까마득한 땅. 그 거리 사이에서 말들이 줄어든다. 서원 한 줄이 빛 문서처럼 떠오르고 "값으라"가 낮게 울린다. 꿈과 말이 많아지다가 한 문장만 남는다 —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지방의 거리, 빈민의 굶은 등 위로 관리들의 그림자가 층층이 올라간다. 은화가 쏟아지는데 목은 마르고, 한 방에서 노동자가 깊이 잠들고 다른 방에서 부자가 뒤척인다. 재난이 지나가고 아버지의 손이 아들 앞에서 비어 있다. 모태의 별거벗은 울음, 그대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방의 밥. 그런데 등불이 켜진다 — 한 식탁, 빵과 잔, 수고를 마친 손이 제 몫을 받는다. 그 사람은 지나간 날을 세지 않는다. 화면 너머에서 누군가 그 마음에 기쁨으로 대답하고 있다. 암전.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삼가는 발, 받는 손 — 문턱의 절제에서 식탁의 선물로"
- 초별 부제: "하나님의 집 문턱에서 발과 입을 삼가게 한 본문이, 서원의 무게와 은을 사랑하는 자의 불면과 별거벗은 빈손을 통과시킨 뒤, 먹고 마시며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셋째 결론과 기쁨의 응답에 이르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0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다섯 단 구성 + raah cholah 수미 + 선물 결론 나선 + 서원 제도·페르시아 행정 위계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5:18-19의 선물 결론을 은혜 교리의 진술로 앞당겨 봉합하지 않고, 2:24→3:13→5:19로 누적되는 본문 내 나선의 관찰로만 둬.
- 5:8의 "더 높은 자들"을 하나님으로 단정하지 않음 — 본문이 위계의 꼭대기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열린 채 보존.
- 5:20 maaneh를 '응답'으로도 '기쁨으로 사로잡으심'으로도 닫지 않고 번역 폭 자체를 미해결로 보존.
- 5:12의 잠을 청부(淸富)·소유 비판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두 침실의 병치 관찰로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전도서 5장은 "네 발을 삼갈지어다(shemor raglekha)"(5:1)로 하나님의 집 문턱에서 듣는 발걸음을 세우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5:2)의 거리로 말과 서원(neder)을 절제하게 한 뒤(5:1-7), 빈민 학대의 위계(5:8-9)와 은을 사랑하는 자의 갈증(5:10), 노동자의 단잠과 부자의 불면(5:12), 벌거벗고 와서 그대로 돌아가는 빈손(5:15)을 통과시키고, 먹고 마시며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누리게 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mattat Elohim)이라는 셋째 결론(5:18-19)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5:20)의 결구로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돌계단 위의 발이 느려진다. 하나님의 집 문턱 — 입은 닫히고 귀가 열린다. 하늘과 땅의 거리 사이에서 말들이 줄어들고, 서원 한 줄이 빗 문서처럼 떠오른다. 꿈과 말이 많아지다가 한 문장만 남는다 —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화면이 지방의 거리로 내려간다. 빈민의 굶은 등 위로 관리들의 그림자가 층층이 올라가고, 은화가 쏟아지는데 마시는 목은 계속 마른다. 두 개의 방 — 노동자는 적게 먹고도 깊이 잠들고, 부자는 부요함 때문에 뒤척인다. 재난이 지나간 뒤 아버지의 손이 아들 앞에서 비어 있고, 모태의 벌거벗은 울음이 돌아가는 길과 겹친다. 그런데 마지막에 등불이 켜진다. 한 식탁, 빵과 잔, 수고를 마친 손이 제 몫을 받는다. 그 사람은 지나간 날을 세지 않는다 — 화면 너머에서 누군가 그 마음에 기쁨으로 대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성소 문턱 → 지방 → 두 침실 → 식탁의 네 무대. 발·입·서원·꿈·은·잠·몫의 소품. 1~9절은 전도서 최초의 긴 2인칭 명령.
2 첫 느낌·분위기	본문이 독자를 향해 돌아섬 — 그러나 낮춤을 시키는 조용한 명령. 성소와 식탁의 고요 사이에 끼인 불면의 뒤척임. "만족하지 못하고"의 이중 갈증.
3 시작과 끝	사람의 절제("삼갈지어다")로 열려 하나님의 동작("응답하심이니라")으로 닫힘. 관찰의 책이 관찰을 멈추는 사람으로 끝남.
4 등장인물·사상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너. 우매한 자들·사자·빈민·위계·왕·노동자·부자·소유주. 중심은 5:7 — 경외의 첫 명령형.
5 장면 컷	성소(1~7)/지방(8~9)/두 침실(10~12)/빈손(13~17)/식탁(18~20)의 5컷. raah cholah 수미 액자와 "내가 보았나니"의 이중 봄.
6 의문·발견·정보	선물 결론의 나선(2:24→3:13→5:19). '먹다' 다섯 번의 분포. maaneh 번역 폭. 5:9 난해 구문. 서원 제도·페르시아 위계 배경.
7 동영상	문턱의 발 → 하늘과 땅 → 위계의 그림자 → 은의 갈증과 두 침실 → 빈손과 모태 → 등불 켜진 식탁의 응답, 압전.
8 초벌 제목·부제	"삼가는 발, 받는 손 — 문턱의 절제에서 식탁의 선물로"
9 기도·내면	취려던 손은 비고 받는 손은 채워짐을 본다. metuqah — 일하는 자의 단잠 한 절을 쥐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하늘과 땅의 거리, 말의 절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5:2)는 위치의 문장이 곧장 어법의 문장이 된다 —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거리가 침묵을 낳고, 듣는 것이 재물보다 앞서며(5:1), 서원하지 않는 편이 갇지 않는 서원보다 낫다(5:5). 전반부 전체가 tov-min 비교로 '덜한 것이 낫다'를 쌓아 올리고, 그 끝에 많음의 목록(걱정·꿈·말)을 헛됨으로 쓸어 둔 채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5:7)만 남긴다.
2. **결 2 — 잠의 경제학, 만족의 어긋남:**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5:10),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며(5:11), 부자는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5:12). 사랑의 대상과 만족의 출처가 어긋나는 구문 끝에, 먹는 양과 무관하게 단 노동자의 잠이 놓인다. 소유의 양과 잠의 깊이가 반비례하는 이 저울이, 13~17절의 사례 —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 재물, 재난, 아들 앞의 빈손, 벌거벗고 옴과 돌아감(욥 1:21과 같은 어휘) — 로 한 인생 분량만큼 확장된다.
3. **결 3 — 선물의 셋째 결론, 누림이라는 능력:** "먹고 마시며 ...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니라"(5:18). 2:24와 3:12-13에 이어 세 번째로 돌아온 이 결론은 이번에 가장 길고 가장 정돈되어 있다 — 몫(chelq)이 명명되고, "능히 누리게 하시며"라는 사역이 더해진다. 재물을 주시는 것과 누리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별개의 선물로 적히는 문법. 그리고 20절이 그 위에 결구를 엮는다 — 그는 생명의 날을 깊이 관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신 23:21-23 — 서원하고 갇지 않으면 죄, 서원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니 — 5:4-5의 율법 배경.
- 삼상 15:22 —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 5:1의 듣기 우선과 같은 결.
- 시 115:3 —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 5:2의 공간 대비를 공유하는 시가서의 선언.
- 잠 20:25 — 서원한 후에 살피면 그물이 되느니라 — 입이 몸을 움아매는 같은 그림.
- 욥 1:21 —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 5:15와 어휘 차원에서 겹치는 회귀.
- 전 2:24 · 3:12-13 · 8:15 · 9:7-9 — 선물 결론의 나선. 5:18-19는 그 셋째 굽이.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절의 발에서 시작한다 — 들어가는 걸음의 속도를 늦추고, 가져갈 것보다 들을 것을 먼저 떠올린다.
- **멈춤 1:** 2절에서 멈춘다 — 하늘과 땅. 그 거리 앞에서 내 말의 분량을 센다.
- **멈춤 2:** 12절에서 멈춘다 — 두 침실. 내 잠이 어느 방의 잠인지, 무엇 '때문에' 뒤척이는지 떠오른다.
- **끝:** 19절과 20절 사이에서 멈춘다 — 받은 몫과 세지 않는 날들. 결산을 멈추게 하는 기쁨이 내 식탁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명령 단락(1~9)·금언(10~12)·사례(13~17)·선물 결론(18~19)·결구(20)의 다섯 단 완결
- [x] 5:7 경외 명령형과 12:13 결론의 호응
- [x] raah cholah 수미 액자(13·16절)와 "내가 보았나니"의 이중 봄(13·18절)
- [x] 선물 결론 나선(2:24→3:13→5:19)의 위치 확인
- [x] 5:15 ↔ 욥 1:21 어휘 겹침과 5:20 maaneh 번역 폭의 보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전도서의 spine은 '해 아래 모든 것의 헛됨을 정직히 통과시켜,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닻에 이르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2:13 —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헛됨의 실험(1~2장), 때와 분깃과 하나님의 선물(3~11장),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결론(12장)으로 움직이는데, 5장은 그 가운데 구간의 한복판에서 경외가 처음 명령형으로 발화되는 국면이다. 3:14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서술로 말한 것을, 5:7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라고 독자의 정면에 세운다 — 12:13의 닻이 책 한가운데서 미리 올리는 종소리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5장의 예배 단락은 성전 제의가 형식으로 굳을 수 있는 시대에 '듣는 것이 제물보다 낫다'(5:1)는 사무엘의 오랜 결(삼상 15:22)을 지혜 문학의 언어로 다시 꺼내는 통로이고, 5:15의 별거벗은 회귀는 욕의 고백(욥 1:21)과 어휘를 공유하며 소유 너머의 신뢰를 정경 안에서 잇는다. 그리고 선물 결론의 나선 — 2:24에서 처음, 3:13에서 다시, 5:19에서 가장 또렷하게 — 은 헛됨의 정직한 직면이 절망이 아니라 너그러움의 발견으로 향한다는 권 전체의 심장을 이 장에서 가장 선명하게 고동치게 한다. 먹고 마시는 평범한 식탁을 선물로 주시는 분 — 그 너그러움이 5장의 좌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턱의 절제에서 식탁의 누림으로 / 하늘과 땅의 거리(5:2)에서 마음 안의 응답(5:20)으로 / 쥐려는 손(5:10-17)에서 받는 손(5:19)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5장은 '만족의 주소'를 옮기는 운동이다. 은과 풍요와 재산이라는 주소에서는 갈증과 불면과 빈손이 돌아오고(5:10-17),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소에서는 단잠과 뉘와 기쁨이 돌아온다(5:12, 18-20). 다만 이 운동은 5장 안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6장이 곧바로 같은 식탁의 어두운 반례 —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고도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6:2) — 를 보여 줄 것이므로, 5장의 식탁은 결론이 아니라 기준점이다. 절제로 열린 장이 누림으로 닫히고, 그 누림이 다음 장의 질문이 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예배 예절과 재물 격언이다 — 말을 줄이라, 서원을 갚으라, 돈을 조심하라는, 어느 지혜 전통에나 있을 법한 당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두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예배의 무게중심이 옮겨진다. 1~7절에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제물·서원·말)은 전부 줄어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 하나만 커진다 — 예배가 공급이 아니라 수신이 되는 방향. 둘째, 만족의 출처가 옮겨진다. 10절의 분사 ohev kesef — 은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 — 는 사랑하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19절의 사람은 받은 뉘으로 즐거워한다. 채움이 소유의 양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손에서 온다는 문법이, "능히 누리게 하시며"라는 사역 동사에 압축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이동이 20절에서 만난다 — 말을 줄이고 들으려 갔던 사람의 마음에, 이번에는 하나님 쪽에서 기쁨으로 말을 거신다(maaneh). 절제가 비운 공간을 응답이 채우는 것 — 5장에서 가장 깊은 물길은 이 교환이다. 다만 본문은 이것을 공식으로 굳히지 않는다. 8절의 확대당하는 빈민이 같은 장 안에 그대로 남아 있고, 감찰의 위계는 시간을 약속하지 않는다. 식탁의 등불과 거리의 눈물이 한 장에 공존하는 정직함 — 그것까지가 5장의 수면 아래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오늘 어느 방에서 잠드는가 — 적게 먹고도 단 노동자의 방인가, 부요함 때문에 뒤척이는 방인가. 그리고 내 식탁은 결산인가, 선물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부를 정죄하지 않는다 — 19절은 재물과 부요 자체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둔다. 본문이 겨누는 것은 방향이다. 사랑이 은을 향해 있으면 은이 아무리 쌓여도 만족이 오지 않고(5:10), 손이 쥐는 쪽으로만 움직이면 마지막에 비어 있으며(5:15), 마음이 결산을 멈추지 못하면 잠이 달아난다(5:12). 반대편에 놓인 것은 더 큰 소유가 아니라 받음이다 — 제 몫의 밥상, 수고 결의 낙, 그리고 세지 않아도 되는 날들. 20절의 사람은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관찰하지 않는다. 억지로 잊어서가 아니라, 기쁨이 마음을 먼저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헛됨을 가장 멀리까지 따라가 본 책이 건네는 이 식탁 — 그 등불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등불 켜진 식탁 바로 곁에서, 같은 것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기다린다 —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6:2).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attat Elohim* — 하나님의 선물, 누리이라는 능력.

미해결 질문

전도서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5:20의 *maaneh* —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것인가, 기쁨으로 '사로잡아 분주하게 하시는' 것인가?

- *anah* 어근의 두 갈래(대답하다 / 몰두하게 하다)에서 번역들이 갈라진다. 어느 쪽이든 주어는 하나님이지만, 결말의 그림 — 대화인가 채움인가 — 이 달라진다. 번역 폭을 미해결로 보존.

Q2. 5:6의 사자(*malakh*)는 누구인가 — 성전의 사신인가, 제사장인가, 하늘의 전령인가?

- 서원의 상황을 확인하러 온 인물로 보이나 본문은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 LXX가 '하나님 앞에서'로 풀어 옮긴 것 자체가 이 모호함의 오래된 증거. 보존.

Q3. 5:9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 위로인가 한숨인가?

- 왕마저 밭에 기대어 산다는 평등의 진술인지, 위계의 꼭대기까지 소산을 거두어 간다는 수탈의 진술인지 — 히브리어 구문(*melek lesadeh neevad*) 자체가 난해해 번역들이 갈라진다. 한쪽으로 닫지 않고 이월.

Q4. 5:8 "이상히 여기지 말라" — 감찰의 위계는 어디서 끝나는가?

- 높은 자 위의 더 높은 자들 — 그 사다리의 끝이 하나님이신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고, 감찰이 언제 내려오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4:1의 눈물("위로자가 없도다")과 이 절의 침묵 사이의 간격을 그대로 보존.

Q5. 5:1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 우매한 자들의 제물은 무엇이 악인가?

- 제물 자체인지, 들으려 하지 않는 채로 드리는 방식인지, 삶과 분리된 의례인지 — 본문은 '깨닫지 못함'만 말하고 내용을 열어 두지 않는다. 삼상 15:22와의 결만 메모하고 이월.

Q6. 5:7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 헛됨의 목록과 경외의 명령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 많은 꿈과 많은 말이 헛되다는 진술에서 경외의 명령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본문은 '오직(*ki*)' 한 단어로만 놓는다. 12:13의 결론이 왜 책 한가운데서 미리 올리는지 — 묵상 단계로 이월.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전도서 6장

ECC-006 · 시가서 · 히브리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고도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한 한 사람(6:2) 곁에 햇빛을 본 적 없는 낙태된 자(*nefel*)의 평안이 놓이고,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고하리요"(6:12)라는 두 질문으로 전반부가 접히는 — 전도서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이자 후반부의 문이 되는 경첩.

관찰된 사실

전도서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이동이 거의 없음: "해 아래"라는 한 조명 아래의 명암 대비. 차린 상의 집(1~2절) → 백 자녀의 마당과 어둠 속 *nefel*(3~6절) → 입·식욕·눈의 클로즈업(7~9절) → 명명과 그림자의 들판(10~12절).
- 소품(채움): 재물·부요·존귀(2절, 한 묶음), 백 명의 자녀, 많은 사는 날(3절), 천 년의 갑절(6절).
- 소품(비움): 빠진 무덤("안장되지 못하면", 3절), 어둠 두 번과 덮이는 이름(4절), 보지 못한 햇빛(5절), 채울 수 없는 식욕(7절), 그림자(12절).
- 이 장의 소품은 전부 '가진 것'인데 그것을 집어 드는 손 — 누림의 동사 — 가 빠져 있음.
- 형식: 1절 "내가 ... 보았나니"는 5:13과 같은 관찰 보고 서두. 사례 둘(1~6) + 격언 셋(7~9) + 결론부(10~12).
- 질문 다섯이 본문 안에서 하나도 답을 받지 않음: 8절 둘, 11절 하나, 12절 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5:19(능히 누리게 하시며 — 하나님의 선물) 직후의 급전환: 같은 어휘 목록이 정반대 그림으로 — 커튼이 닫히는 공기.
- "악한 병(*raah cholah*)"이라는 진단명 — 슬픔이 아니라 병명으로 부르는 관찰자의 어조.
- 역광의 설계: 본문이 햇빛을 직접 언급하는 유일한 곳(5절)이 빛을 못 본 *nefel* 곁. 어둠 쪽에 침(*nachat*)이, 빛 쪽에 허기가 놓임.
- 3~6절의 점층 계산: 백 자녀 → 장수 → 만족 없음 → 매장 없음 → *nefel*이 낫다 → 천 년의 갑절이라도 → 다 한 곳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결론이 어두워짐.
- 장이 진행될수록 단언이 줄고 의문문이 늘 — 두 손을 펴 보이며 끝나는 솔직함이 독자를 같이 묻게 만듦.
- 12절 *mi yodea*(누가 알랴) — 전도서가 아끼는 의문 형식(2:19; 3:21), 형태는 끝까지 열린 질문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 '보았다'(관찰 단언)에서 '누가 알랴'(앞의 한계 고백)로 — 한 장 안에서 인식의 방향이 꺾임. 시작과 끝 모두 "해 아래에서"라는 같은 표지를 공유.
- 어미 곡선: "보았나니 ... 것이라"의 단정에서 "알며 ... 고하리요"의 의문으로.
- 카메라 이동: '어떤 사람'의 집(한 사례)에서 '사람(adam)' 일반(인류 전체)으로 빠져나가며 그림자가 길어짐.
- 12절의 두 질문이 7:1("좋은 tov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과 단어 차원에서 맞물리는 이음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어떤 사람(부족함 없이 받은 자), 다른 사람(대신 누리는 타인), 백 자녀의 장수자, 낙태된 자(nefel), 지혜자와 우매자(8절),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8절), 자기보다 강한 자(10절), 하나님(2절에 두 번 호명).
- 인용 대사 0 — 모든 인물이 코헬렛의 관찰 안에 무언의 정물로 놓고, 말하는 이는 관찰자 한 사람뿐.
- 중심 사상: 소유와 누림의 분리. 5:19에서 한 묶음이던 '주심+누리게 하심'이 6:2에서 풀림 —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이 별개의 선물이라는 관찰. 같은 간격이 재물(1~2)·자녀와 수명(3~6)·음식(7)·보는 것(9)의 네 영역에서 반복.
- 10절: '이미' 3회(이미 있는 것·이미 명명·이미 안 바 됨) — 1:9와 같은 결. 결론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 — '강한 자'의 이름은 비워 둠.
- adam(사람)과 adamah(흙)의 어원 올림 — 명명 자체가 출처(흙)를 담은 한계의 표시. 욥 9:32의 다툼 불가능과 마주 보는 결 — 배경.
- 3절 "안장되지 못하면" — 조건 하나가 백 자녀·장수 전체를 뒤집는 저울. 6절 "한 곳" — 3:20을 받아 가장 긴 삶과 가장 짧은 존재의 종착지가 겹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차린 상의 빈 의자 — 받은 주인이 앉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집.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 컷 2 (3~6절): 백 자녀와 천 년의 갑절 vs nefel — 가장 긴 삶과 가장 짧은 존재의 비교, 어둠에 덮이는 이름, 더 평안하다는 판정, 한 곳으로 모이는 끝.
- 컷 3 (7~9절): 입·식욕·눈 — 채울 수 없는 식욕, 답 없는 두 질문, 눈의 봄과 영혼의 떠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 컷 4 (10~12절): 명명된 사람 — '이미' 3회, 다룰 수 없는 강한 자, 헛됨을 더하는 많은 말, 그림자 위의 두 질문.
- 컷 경계 표지: 컷 1과 컷 3이 같은 후렴("이것도 헛되어", 2·9절)으로 닫힘. 컷 2의 이중 비교(3절 '낫다'·5절 '더 평안함') — tov min 비교가 어둠의 방향으로 쓰이는 용례로, 7:1부터의 tov 연쇄 형식을 예고.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raah cholah(ראה חולה) — 악한 병. chalah(병들다)의 분사형. 5:13의 어구 재등장. 2절.
- nefel(נפל) — 낙태된 자. naphal(נפל, 떨어지다)에서 온 명사, 직역 '떨어진 것'. 3절.
- nefesh(נפש) — 한 장에 네 번, 네 얼굴: 소원(2절)·만족하지 못함(3절)·식욕(7절)·떠돌(9절).

- *nachat*(נָחַת) — 평안·쉽. *nuach*(נָוַח) 계열. 5절.
- *mareh enayim*(מַרְאֵה עֵינַיִם) — 눈으로 보는 것. / *halokh nefesh*(חַלּוֹךְ נֶפֶשׁ) — 영혼의 떠돌음, 개역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9절.
- *reut ruach*(רְעוּת רוּחַ) — 바람을 잡는 것. 9절을 끝으로 책에서 더 나오지 않는 어구 — 형태 관찰.
- *niqra shemo*(נִקְרָא שְׁמוֹ) — 그의 이름이 불렸다(수동형). / *adam*(אָדָם) — 사람, *adamah*(אֲדָמָה)·*afar*(אֶפְרַיִם)와 올리는 이름. 10절.
- *tsel*(צֵל) — 그림자. / *mi yodea*(מִי יוֹדֵעַ) — 누가 알랴. / *tov*(טוֹב) — 낙· 좋음. 12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관찰 보고(1절 서두) + 사례 둘(1~2, 3~6) + 격언 셋(7~9) + 결론부(10~12)의 네 단 구성.
- 5:18-19 ↔ 6:1-2의 거울 배치: 같은 어휘 목록(재물·부요·누림·하나님의 주심)이 밝은 면과 그늘 면으로 나란히 — 선물 선언 바로 옆에 그 그늘 사례를 두는 편집.
- 6:12의 두 질문이 후반부의 목차: "무엇이 낙(*tov*)인가" → 7:1부터의 *tov* 비교 연쇄(7:1·2·3·5·8), "그 후에 무슨 일" → 7:14; 8:7; 10:14의 반복 되올림. 6장 끝 = 전반부(1~6장)를 접고 후반부(7~12장)를 여는 경첩.
- 10절 '이미' 3회 — 1:9의 "이미 있던 것"과 호응하는 기시(既視)의 어법.
- 후렴 "이것도 헛되어"가 컷 1과 컷 3을 닫음(2·9절). 3~6절은 숫자 점층(100명→2,000년)과 비교 구문의 이중 사용으로 어둠의 정점을 쌓음.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매장의 박탈 — 근동 비문·조약 저주문에서 무덤 없는 죽음은 최고 수위의 수치·형벌. 3절 "안장되지 못하면"의 무게 배경.
- 백 명의 자녀·장수 — 근동의 복 이상형(욥 1:2의 열 자녀, 사 8:30의 칠십 아들과 같은 사회 배경).
- 이집트 염세 문학 '삶에 지친 자와 그의 바(Ba)의 대화' — 죽음을 삶보다 낫다고 노래하는 성찰 장르. 6:3-6 비교 구문의 장르 배경 — 전도서가 이 공통 형식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는 본문의 몫.
- 그림자(*tsel*) — 근동 시가의 덧없음 심상(시 39:5-6; 144:4와 공유) — 배경.
- LXX: *hevel*을 *ματαιότης*로, '악한 병'을 *ἀρρωστία πονηρά*로 옮김. 6:9의 *halokh nefesh*는 풀어 옮겨 직역과 거리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전 6:1-2 ↔ 전 5:18-19 (누리게 하심이 선물 — 같은 어휘의 밝은 면과 그늘 면)
- 전 6:3-6 ↔ 욥 3:11-16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던가 — 낙태된 자와 닿는 가장 가까운 탄식)
- 전 6:10 ↔ 욥 9:32-33 (사람이 아니신 분과 재판에 나아갈 수 없음 — 다툼의 불가능)
- 전 6:6 ↔ 전 3:20 (다 한 곳으로 — 흠에서 와서 흠으로)
- 전 6:12 ↔ 시 39:5-6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 *tsel*의 시가서 평행)
- 전 6:10 ↔ 창 2:7; 3:19 (*adam*과 *afar* — 명명에 담긴 출처)
- 전 6:12 ↔ 전 7:1-14 (두 질문에 응답을 시작하는 *tov* 연쇄와 7:14의 '그 뒤 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잔칫상이 차려진 집 — 재물과 부요와 존귀, 빠진 것이 없다. 그런데 주인의 의자가 비어 있고 낮선 사람이 앉아 먹는다. 화면 밖의 낮은 목소리 —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화면이 바뀐다. 마당을 채운 백 명의 자녀, 수없이 뜨고 지는 해. 행렬의 끝에 무덤이 없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햇빛을 본 적 없는 작은 존재가 어둠 속을 지나간다 —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천 년이 두 번 흘러도 모든 길은 한 곳으로 모인다. 클로즈업 —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멈추지 않는 허기. 눈앞의 빵과 떠도는 영혼. 이름이 불린다 — adam, 흙에서 온 이름. 강한 자와 다룰 수 없다는 문장이 지나가고, 들판 위로 그림자가 길어진다. 두 질문이 자막으로 떠오른다 —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고하리요. 화면이 다음 장을 향해 열린 채 어두워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차린 상의 빈 의자 — 전반부를 접는 두 질문"
- 초벌 부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고도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한 사람 곁에 햇빛을 본 적 없는 낙태된 자의 평안이 놓이고, '무엇이 낙인가 · 그 후에는 어떠한가'라는 두 질문으로 전반부 여섯 장이 접히는 전도서의 경첩"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5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5:18-19↔6:1-2 거울 배치 + 6:12 경첩 구조 + 매장 박탈·다산의 근동 배경 + nefesh 4용법)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6:2의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심'을 징벌·시험 등 신학적 원인론으로 봉합하지 않고, 이유의 침묵 자체를 관찰로 보존.
- 6:3-6의 낙태된 자 비교를 생명 가치에 대한 교리 판단으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의 비교 구문과 욕 3의 평행 관찰로만 둬.
- 6:10의 '강한 자'를 하나님으로 단정하지 않고, 본문이 이름을 비워 둔 그대로 미해결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전도서 6장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6:1)라는 관찰 보고로 열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고도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해 다른 사람이 누리는 사례(6:2, raah cholah)와 백 명

의 자녀·천 년의 갑절보다 낙태된 자(nefel)가 낫다는 가장 어두운 비교(6:3-6)를 지나, 채울 수 없는 식욕(nefesh, 6:7)과 이미 명명된 사람(niqra shemo, 6:10)의 한계를 거쳐,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고하리요"(6:12)라는 답 없는 두 질문으로 전반부 여섯 장을 접는, 전도서의 경첩이다.

한 문단: 잔칫상이 차려진 집에서 시작한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 — 빠진 것이 없는데 주인의 의자가 비어 있고, 낯선 사람이 앉아 먹는다. 화면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진단한다 — 악한 병이로다. 마당을 채운 백 명의 자녀와 수없이 뜨고 지는 해가 이어지지만 행렬의 끝에 무덤이 없고, 화면이 어두워지면 햇빛을 본 적 없는 작은 존재가 어둠 속을 지나며 "더 평안함이라"는 판정을 받는다. 천 년이 두 번 흘러도 모든 길은 한 곳으로 모인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멈추지 않는 허기, 눈앞의 빵과 떠도는 영혼이 클로즈업되고, 어디선가 이름이 불린다 — adam, 흙에서 온 이름. 강한 자와 다룰 수 없다는 문장이 지나간 들판 위로 그림자가 길어지고, 두 질문이 자막으로 떠오른 채 화면은 다음 장을 향해 열린 채 어두워진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해 아래" 한 조명 아래의 명암 대비. 채움의 소품(재물·백 자녀·이천 년) 곁에 빠진 소품(무덤·누림의 동사). 답 없는 질문 다섯.
2 첫 느낌·분위기	5:19 직후의 커튼 닫힘. "악한 병"이라는 진단명. 어둠 속에 숨이 놓이는 역광. 숫자가 커질수록 어두워지는 점층 계산.
3 시작과 끝	'보았다'(단언)에서 '누가 알랴'(한계 고백)로 — 인식의 방향이 꺾임. 한 집의 사례에서 사람(adam) 일반으로 카메라가 빠짐.
4 등장인물·사상	인용 대사 0 — 전원 무언의 정물. 중심 사상은 소유와 누림의 분리 —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이 별개의 선물이라는 관찰.
5 장면 컷	빈 의자(1~2)/백 자녀와 nefel(3~6)/입·식욕·눈(7~9)/명명과 두 질문(10~12) 4컷. "이것도 헛되어" 후렴이 컷 1·3을 담음.
6 의문·발견·정보	5:18-19↔6:1-2 거울. nefesh 네 굴절. 6:12 경첩. 이유의 침묵 미해결. 매장 박탈·다산의 근동 배경.
7 동영상	차린 상의 빈 의자 → 어둠 속의 평안 → 채울 수 없는 입 → 명명된 이름 → 그림자 위의 두 질문, 열린 채 잠전.
8 초별 제목·부제	"차린 상의 빈 의자 — 전반부를 접는 두 질문"
9 기도·내면	받은 목록과 누리는 목록이 같은 목록인지 본다. 누리는 힘이 따로 선물이라는 것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5:19의 음화:** 5장 끝은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능히 누리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불렀다. 6:2는 같은 어휘 목록으로 그 그늘 면을 보고한다 — 주셨으나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경우. 밝은 면을 말한 바로 옆에 어두운 면을 두고 이유를 봉합하지 않는 이 배치가, 전도서라는 책의 관찰 방식 자체를 보여 준다. 선물은 선물이되, 소유와 누림이 한 묶음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정직.

2. **결 2 — nefesh의 네 굴절:** 한 단어가 장 전체를 펜다. 영혼이 바라는 소원(2절),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3절), 채울 수 없는 식욕(7절), 떠도는 영혼(9절). 번역이 네 번 갈아입는 이 단어의 분포가, 6장의 문제를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담는 속의 깊이'로 옮겨 놓는다. 수고가 입으로 모여드는데 그 아래의 nefesh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3. **결 3 — 경첩의 두 질문:** 12절은 묻고 답하지 않는다 — 무엇이 낙(tov)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고하리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7:1)이 tov라는 같은 단어로 말을 시작하고, 7:14과 8:7이 '그 뒤 일'의 물음을 되받는다. 6:12의 두 질문은 전반부의 결산이자 후반부의 목차다 — 한 장의 끝이 책의 허리가 되는 경첩.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전 5:18-19 —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 6:1-2가 그 그늘 면을 보고하는 거울.
- 욥 3:11-16 —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던가 ...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 낙태된 자 비교와 닿는 가장 가까운 탄식.
- 욥 9:32-33 — 사람이 아닌신 분과 재판에 나아갈 수 없음 — 6:10의 '다룰 수 없음'과 마주 보는 변론의 한 계.
- 전 3:20 —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 6:6의 '한 곳'이 받는 선행 문장.
- 시 39:5-6 —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 6:12 tsel의 시가서 평행.
- 창 2:7; 3:19 — 흙(afar)으로 지어진 사람(adam) — 6:10 명명된 인간의 어원 배경.
- 전 7:1-14 — tov 비교 연쇄와 7:14의 '그 뒤 일' — 6:12 두 질문에 응답을 시작하는 후반부 입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2절에서 시작한다 — 차려진 상과 빈 의자. 받은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갈라진 광경을 천천히 본다.
- **멈춤 1:** 2절의 두 호명에서 멈춘다 — 주신 분과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 같은 분. 그 사이의 침묵을 견딘다.
- **멈춤 2:** 5절에서 멈춘다 — 햇빛을 본 적 없는 존재의 평안. 어둠 속에 놓인 쉽이라는 역광 앞에 선다.
- **멈춤 3:** 7절에서 멈춘다 — 입과 식욕. 내 수고가 모여드는 문과, 그 아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속을 본다.
- **끝:** 12절의 두 질문에서 끝난다 — 무엇이 낙인가, 그 후는 어떠한가. 답을 쥐지 않은 채 다음 장의 문 앞에 선다.

F · 자족성 점검

- [x] 관찰 보고(1)·사례 둘(1~6)·격언 셋(7~9)·결론부(10~12)의 네 단 완결
- [x] 5:18-19와 6:1-2의 거울 호응
- [x] nefesh 네 굴절(2·3·7·9절)의 분포
- [x] "이것도 헛되어" 후렴(2·9절)과 tov min 비교의 이중 사용(3·5절)
- [x] 6:12 두 질문과 7:1·7:14의 이음새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전도서의 spine은 '해 아래 모든 것의 헛됨을 정직히 통과시켜,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닻에 이르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12:13 —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book-telos)이다. 권의 흐름은 헛됨의 실험(1~2장), 때·분깃·하나님의 선물(3~11장),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결론(12장)으로 움직이는데, 6장은 그 가운데 전반부를 닫는 가장 어두운 골짜기다. 이 책의 심장이 '먹고 마심을 선물로 주시는 너그러움'(2:24; 3:13; 5:18-19)이라면, 6장은 그 너그러움의 선언 바로 옆에 누리지 못하는 사례를 두는 정직이다 — 선물을 과장하지 않고, 그들을 숨기지 않는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받음과 누림이 갈라진 이 간격은 소유가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증언으로 정경 안에 놓이고, 채울 수 없는 nefesh의 허기

는 채움의 출처가 해 아래에 있지 않다는 물음을 연다. 그리고 6:12가 발행한 두 질문 — 무엇이 좋은가, 그 후에는 어떠한가 — 은 7장부터의 후반부가 갇혀 가는 차용증이며, 그 상황의 끝이 12:13의 경외다. 6장은 어둠으로 닫히는 장이 아니라, 어둠을 정확히 계량해 다음 여섯 장의 질문으로 정제하는 경첩이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례에서 답 없는 두 질문으로 / 채움의 목록(재물·백 자녀·이천 년)에서 채워지지 않는 nefesh로 / 전반부의 관찰 축적에서 후반부의 목차 발행(6:12)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6장은 '보았다'에서 '누가 알랴'로 움직이는 운동이다 — 관찰의 단언으로 열어 얹의 한계 고백으로 닫는. 다만 이 한계 고백은 포기가 아니라 정제다. 한 집의 비극이 모든 사람의 물음으로 넓어지고, 여섯 장의 관찰이 질문 두 개로 압축되며, 그 두 질문이 7장 이후의 길을 깬다. 7:1의 tov 연쇄가 첫 질문을 받고, 초상집(7:2)이 잔칫집보다 낫다는 역설이 6장의 어둠을 이어받는다. 6장의 벡터는 전도서 전권을 '헛됨의 정직한 직면에서 창조주 경외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한가운데 관절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부자의 비극 보고다 — 가졌으나 누리지 못한, 어느 시대에나 있는 이야기.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누림의 출처가 움직인다. 6장이 네 영역(재물·자녀와 수명·음식·보는 것)에서 반복해 보여 주는 것은, 누림이 소유에 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 재물도 백 명의 자녀도 천 년의 갑절도 누림을 자동으로 데려오지 못한다. 5:19이 누리게 하심을 별도의 선물이라 불렀다면, 6장은 그 선물이 소유와 분리될 수 있음을 그늘 쪽에서 증언한다. 더 깊은 물길은 2절의 두 호명이다 — 주신 분과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 같은 분이라는 문장을, 본문은 변호도 고발도 없이 그대로 둔다. 하나님을 화면 밖으로 치우지 않으면서 이유도 지어내지 않는 이 정직이, 전도서가 헛됨을 다루는 방식의 핵심이다. 그리고 nefesh의 네 굴절이 그 아래에 깔린다 — 채워지지 않는 속은 가진 것의 부족이 아니라 답는 그릇의 깊이 문제이며, 그 깊이는 해 아래의 어떤 목록으로도 메워지지 않는다는 단서. 6장에서 가장 깊은 데를 흐르는 것은 이 물음이다: 채움이 해 아래에 없다면, 그 속은 무엇을 향해 파였는가.

J·실존적 부름 — 불씨

내가 전 것 가운데 받은 목록과 누리는 목록은 같은 목록인가 — 그 둘 사이의 간격이 오늘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부를 경멸하라고도, 더 가지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차려진 상과 빈 의자를 보여 주고, 채워지지 않는 식욕의 문장을 들려주고, 그림자 같이 지나가는 날들 위에 두 질문을 띄운다.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 이 물음은 독자를 절망에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낙의 출처를 다시 묻게 하려는 것이다. 6장은 답을 주지 않은 채 독자를 7장의 문 앞에 세워 둔다. 초상집이 잔칫집보다 낫다는 다음 장의 역설이 이 질문을 받으러 오고 있다는 것 — 질문이 버려지지 않고 상황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이 어두운 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두 질문이 발행되자마자 7장이 같은 단어로 말을 시작한다 — "좋은(tov)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7:1), 초상집의 문이 열린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efesh — 채워지지 않는 속, 네 번 갈아입은 한 단어.

미해결 질문

전도서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하나님께서 왜 그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는가(6:2) — 이유의 침묵을 어떻게 둘 것인가?

- 징벌인지, 시험인지, 설명 없는 현실 그 자체인지 — 본문은 광경만 보여 주고 원인을 비워 둔다. 주신 분과 받으신 분이 같은 분이라는 정직만 남는다. 보존.

Q2.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6:3) — 왜 매장 하나가 백 자녀와 장수 전체를 뒤집는 저울이 되는가?

- 근동의 매장 관습이 배경을 비추지만, 본문이 이 조건에 실은 무게의 정확한 결 — 끝이 거두어지지 못한 삶의 의미 — 는 미해결로 이월.

Q3. 낙태된 자가 "더 평안함이라"(6:5) — 이 nachat(쉽)의 폭은 어디까지인가?

- 욥 3:11-16의 탄식("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과 가장 가까운 결인데, 전도서가 이 비교로 무엇을 재고 있는지 — 존재 자체의 평가인지 행복 없는 긴 삶의 고발인지 — 본문이 한쪽으로 닫지 않는다. 보존.

Q4. 6:8 하반절 — "살아 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는 정확히 무엇을 묻는가?

- 처세를 아는 가난한 자조차 유익이 없다는 것인지, 가난한 자의 삶이 지혜자의 삶과 같은 한계에 놓인다는 것인지 — 구문 자체가 난해하게 압축되어 있다. 형태 그대로 이월.

Q5. 6:9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 이 절은 권면인가 진단인가?

- 눈앞의 것에 머무는 쪽이 낫다고 말한 직후 그것마저 헛되다고 한다. 본문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문장의 결이 닫혀 있지 않다. 보존.

Q6. 6:10의 "자기보다 강한 자" — 누구인가?

- 하나님인지, 죽음인지, 이미 정해진 질서인지 — 본문은 이름을 대지 않는다. 욥 9:32의 재판 불가능과 마주 보는 결만 기록하고, 지시 대상은 비워 둔 그대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전도서 7장

ECC-007 · 시가서 · 히브리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tov shem mishemen tov*)"(7:1)라는 소리 유희로 열리는 '~보다 나옴(*tov min*)'의 연작이 6:12의 '무엇이 좋은가'에 첫 대답을 내놓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7:14)의 두 날 병행을 지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yashar*)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chishvonot*)을 낸 것이니라"(7:29)로 닫히는 — 초상집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후반부의 개막.

관찰된 사실

전도서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셋: 격언의 회랑(1~12절) — 그 안에 마주 선 초상집(*bet evel*)과 잔칫집(*bet mishteh*) — 하나님의 작업장(13~14절) — 1인칭 관찰의 책상(15~29절).
- 소품(향·소리): 좋은 기름(*shemen*)의 향, 술(*sir*)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sirim*) — 소리만 요란하고 술을 끓이지 못하는 불.
- 소품(거래·문서): 뇌물 꾸러미(7절), 유산 문서(11절), 두 그늘 —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12절).
- 소품(사냥·셈): 올무·그물(*metsodim*)·포승(26절), 하나에 하나를 더하는 셈의 도구(27절).
- 소재의 역전: '좋다(*tov*)'가 끌고 가는 장에서 좋은 쪽으로 꼽힌 것들이 전부 어두운 쪽 — 죽음·초상·슬픔·책망·끝·참음. 밝은 쪽(출생·잔치·웃음·노래·시작)이 '못한 것' 칸에 배치됨.
- 6:12의 "무엇이 좋은가(*mah tov*)"와 7:1의 첫 단어 *tov* — 질문과 대답이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경계 배열.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7:1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 정면으로 들어오는 문장. 그러나 2절이 수신인을 밝힘: 끝을 받는 쪽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
- '낫다'의 북소리 반복 — 거꾸로 달린 저울이 처음엔 어리둥절하다가 점차 편안해지는 결. 밝은 쪽을 좋다고 우기지 않아도 되는 방.
- 7:6 소리 그림 — 가시나무 불은 탁탁 요란하고 환하나 화력이 없어 술이 끓지 않음. 요란함과 따뜻함의 분리. 끝에 *hevel*이 불음.
- 호흡 세 박자: 회랑 산책(1~12) — 정지·"보라"(13~14) — 책상 앞 장부 정리(15~29).
- 23~24절 첫 실패 보고: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고도다." 1장의 "내가 보았노라"에서 7장의 "찾지 못하였다"로 — 같은 차분함, 다른 방향.
- 8~9절의 *ruach* 세 번: *erekh ruach*(긴 숨 — 참음)·*gevah ruach*(높은 숨 — 교만)·급한 숨(9절). 마음의 상태가 숨의 길이·높이로 그려짐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tov shem mishemen tov)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 29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yashar)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chishvonot)을 낸 것이니라."
- 비교 격언으로 열고 창조의 평결로 닫힘. 저울의 문장에서 기원의 문장으로. 29절의 골격은 역접 하나 — 지으셨으나/낸 것이니라, 정직 하나와 꾀들 여럿의 단수·복수 대조.
- 닫히기 직전의 마지막 보고가 실패 보고(28절 "찾지 못하였느니라")이고 그다음에 깨달은 것 하나(29절)가 옴 — 못 찾은 목록 끝의 찾은 것 하나.
- 무대 동선: 초상집 문 앞에서 시작해 창조의 작업대에서 끝남 — 죽는 날에서 지으신 날로, 시간을 거꾸로 걷는 장.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지혜자/우매한 자(마음의 주소가 다른 두 부류 — 4절), 의인/악인(어긋난 결말로 등장 — 15절), 산 자(2절 — 끝을 마음에 두라고 호명됨), 종(21절), 성읍의 열 권력자(19절), 여인(26절),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28절), 하나님(13·14·18·26·29절 — 행하시고 굽게 하시고 병행하게 하시고 지으신 분. 1장의 1회보다 출연 증가).
- 중심 사상의 경첩은 lev(마음): 마음에 돌지어다(2) — 마음에 유익(3) — 마음이 사는 집(4) — 급한 마음(9) — 마음을 두지 말라(21) — 네 마음도 안다(22) — 내 마음이 찾았다(25·28). 격언의 과녁이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거처.
- 13~14절의 뼈대: 명령(보라) — 질문(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랴) — 처방(형통한 날 기뻐하고 곤고한 날 되돌아보라) — 근거(두 날의 병행,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심). 무지가 사고가 아니라 설계로 진술됨.
- 1:15과 7:13의 짝: 익명이던 굽음의 행위자("구부러진 것")가 7장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짐 — 행위자의 실명화.
- 12절 두 그들의 차이: 모양은 같으나 능력이 다름 — 돈의 그들은 가려 주고 지혜의 그들은 살림("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 21~22절: 듣지 않을 자유의 근거가 자기 인식 —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초상집의 격언들 — 이름/기름, 초상/잔치, 슬픔/웃음, 두 마음의 두 집, 책망/노래, 솔 밑 가지 나무.
- 컷 2 (7~12절): 길 위의 격언들 — 탐욕·뇌물, 끝/시작, 참음/교만, 급한 노, 옛날 타령 금지, 유산 같은 지혜, 두 그늘.
- 컷 3 (13~14절): 보라 — 굽게 하신 것, 두 날의 병행, 백지로 남은 장래.
- 컷 4 (15~22절): 허무한 날의 관찰 — 멸망하는 의인·장수하는 악인, 과잉 경계의 거울 대칭(16~17절), 양손의 그림과 경외의 출구(18절), 죄 없는 의인 없음(20절), 모든 말에 마음 두지 말라(21~22절).
- 컷 5 (23~29절): 찾는 자의 보고 — 떨어진 지혜, 울무 같은 여인, 하나에 하나를 더하는 셈, 천에 하나,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많은 꾀들.
- 컷 1·2 내부 장치: 격언이 전부 둘씩 짝 — 저울 양쪽에 하나씩 올려 다는 형식이 열두 절 내내 유지. 16~17절은 경고의 꼬리까지 같은 꼴의 거울 대칭.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shem*(שֵׁם) — 이름·평판 / *shemen*(שֶׁמֶן) — 기름·향유. 1절 *tov shem mishemen tov* — tov로 열고 닫는 거울 구문 + 자음 유희(*paronomasia*). LXX에서는 소리가 사라지고 뜻만 남음.
- *bet evel*(בֵּית אֵוֶל) — 초상집·애곡의 집 / *bet mishteh*(בֵּית מִשְׁתֶּה) — 잔칫집·'마시는 집'. 2절에서 마주 섬. / *sof*(סוֹף) — 끝. "모든 사람의 끝."
- *sirim/sir*(סִירִים/סִיר) — 가시나무들/솔. 6절의 두 번째 소리 유희 — 가시나무가 소리로도 솔과 뒤엉킴.
- *erekh ruach*(אַרְךָ רוּחַ) — 긴 숨·오래 참음 / *gevah ruach*(גְּבוּהַ רוּחַ) — 높은 숨·교만. 8절. 9절의 '급한 마음'도 *ruach*.
- *avat*(אֵוָה) — 굽게 하다. 13절. 1:15의 *meuvvat*(구부러진 것)과 같은 어근.
- *tsaddiq oved betsidqo*(צַדִּיק אֹוֶד בְּצִדְקוֹ) — 자기 의로움 안에서/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 전치사 *be*의 폭으로 번역이 갈림. 15절.
- *yere elohim*(יָרָא אֱלֹהִים) —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8절 — 12:13의 결론 어휘가 미리 등장. 동사 *yatsa*(나가다)와 함께 '벗어남'의 출구 그림.
- *oz*(זֶז) — 힘.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능력 있게(*taoz*)."/ *metsodim*(מְצוֹדִים) — 그물들. 26절.
- *cheshbon*(חֶשְׁבֹּן) — 이치·셈. 25·27절 / *chishvonot*(חִשְׁבֹּנוֹת) — 꾀들·고안들. 29절. 둘 다 어근 *chashav*(셈하다·고안하다) — 전도자의 '이치'와 사람의 '꾀들'이 같은 어근에서 갈라짐. LXX는 *chishvonot*을 λογισμούς πολλούς로 옮김.
- *yashar*(יָשָׁר) — 곧음·정직. 29절. LXX εὐθεῖα — 13절의 굽음과 곧음의 대조가 번역에서도 유지됨.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tov-min* 연작(1~12절) + 보라 명령의 축(13~14절) + 1인칭 관찰(15~22절) + 수색 보고(23~29절) — 회랑·작업장·책상의 세 단 구조.
- 연작의 모든 격언이 둘씩 짝 — 비교의 저울이 장의 기본 가구. 16~17절은 거울 대칭, 18절이 그 한가운데서 양손으로 묶음.
- 27절의 방법 진술: *achat leachat*(하나에 하나를 더하여) — 1장의 총괄("다 보았노라")과 다른 부기(簿記)의 문제. 28절은 회계 장부 끝의 수색 결과 보고.
- 셈으로 이치(*cheshbon*)를 찾던 사람이 마지막에 발견한 것이 사람들의 셈(*chishvonot*) — 형식과 결론이 같은 어근에서 만남.
- 7:1의 거울 구문(*tov...tov*)과 7:29의 역접 구문(지으셨으나/낸 것이니라) — 여닫는 두 문장이 각각 대칭과 대조로 짜임.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이 ~보다 낫다' 비교 격언 — 근동 지혜 문학의 공유 형식. 아메넴오페의 교훈에 같은 꼴의 비교 잠언 다수 — 배경.
- 이집트 '삶에 지친 사람과 그의 바(영혼)의 대화' — 죽음을 향유 냄새·귀향에 비기는 회의 문학. 7:1의 장르 공기 — 배경.
- 고대 근동의 초상 풍습 — 곡하는 이들과 공식 애곡 기간이 일상이던 문화. *bet evel*의 생활 배경.
- 뇌물이 재판과 명철을 흐린다는 경고(7:7) — 근동 법·지혜 문서의 공유 주제 — 배경.

- LXX: shem/shemen 소리 유희 증발, chishvonot → λογισμούς πολλούς, yashar → εὐθὴ — 번역 폭의 증거,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전 7:1-12 ↔ 전 6:12 (무엇이 좋은가 — 질문과 tov-min 연작의 응답)
- 전 7:13 ↔ 전 1:15 (구부러진 것/굽게 하신 것 — 행위자가 채워지는 짝)
- 전 7:18 ↔ 전 12:13 (경외하는 자는 벗어난다 ↔ 하나님을 경외하라 — 결론 어휘의 선행 등장)
- 전 7:20 ↔ 왕상 8:46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 같은 명제)
- 전 7:26 ↔ 잠 5:3-5 · 7:21-27 (올무·그물·스올로 내려가는 길 — 음녀 모티프의 닿음)
- 전 7:2 ↔ 시 90:12 (모든 사람의 끝을 마음에 둠 ↔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 전 7:5 ↔ 잠 15:31-32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귀 — 생명의 경계)
- 전 7:29 ↔ 창 1:27-31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심 — 창조의 기원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향유 병이 열린다 —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길 양쪽에 두 집이 보인다. 왼쪽은 초상집, 곡소리와 검은 옷. 오른쪽은 잔칫집, 등불과 웃음. 카메라가 발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간다 — 지혜자의 마음이 왼쪽 문지방을 넘고, 우매한 자의 마음이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부엌에서 가시나무 단이 탁탁 요란하게 타다가 흑 꺼진다 — 술은 끓지 않았다. 회랑에 저울들이 걸려 있다 — 끝과 시작, 참음과 교만, 옛날과 오늘. 어두운 쪽 접시가 내려가 있다. 회랑 끝에서 걸음이 선다 —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작업대 위의 굵은 막대를 아무 손도 펴지 못하고, 벽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의 달력이 나란히 걸렸는데 장래 쪽은 백지다. 등불 켜 책상에서 한 사람이 주판알을 하나씩 옮긴다 — 하나에 하나를 더하여. 천 개의 얼굴이 지나가고 손가락이 한 얼굴에 멈춘다. 장부의 나머지 줄은 비어 있다. 마지막 화면 — 사람을 곧게 깎아 세우신 손, 그리고 그 곧은 사람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쌓여 가는 설계 도면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향유 냄새가 한 번 스치고,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거꾸로 달린 저울 — 초상집에서 배우는 산 자"
- 초벌 부제: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의 소리 유희(7:1)로 열린 '~보다 나움'의 연작이 초상집의 유익을 달아 보이고, 굽게 하신 것과 두 날의 병행(7:13-14) 앞에 서며, 찾지 못한 수색 보고 끝에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7:29) 하나를 쥐는 — 전도서 후반부의 개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1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tov-min 연작 + shem/shemen·sir/sirim 소리 유희 + 1:15↔7:13 행위자 채움 + 아메넬오페 비교 격언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7:1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를 죽음 예찬이나 염세 철학으로 단정하지 않고, 수신인이 산 자 (7:2)라는 본문 내부의 결로만 둬.
- 7:15-18(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을 중용 윤리나 처세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해석 폭(자기 의 경계·위선 경계 등)을 미해결로 보존. '경외하는 자는 벗어난다'는 출구의 위치만 관찰.
- 7:26-28을 여성관의 명제로 확장하지 않고, 잠언 음녀 모티프와의 닿음(26절)과 9:9의 다른 결을 함께 두어 미해결로 이월.
- 7:29를 원죄 교리의 진술로 봉합하지 않고, 정직 하나와 꾀들 여럿의 단수·복수 대조라는 문장 관찰로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전도서 7장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tov shem mishemen tov)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7:1)라는 소리 유희의 격언으로 6:12의 질문 "무엇이 좋은가"에 '~보다 나옴(tov min)'의 연작(7:1-12)으로 응답하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급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7:13)와 형통한 날·곤고한 날의 병행(7:14) 앞에 서고, 멸망하는 의인과 장수하는 악인(7:15)·의의 과잉 경계(7:16-18)·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7:28)이라는 난해한 관찰들을 닫지 않은 채 통과한 끝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yashar)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chishvonot)을 낸 것이니라"(7:29)는 단 하나의 깨달음을 쥐는 — 전도서 후반부의 개막이다.

한 문단: 향유 병이 열리고 격언이 걸린다 —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길 양쪽에 초상집과 잔칫집이 마주 서고, 카메라는 발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간다 — 지혜자의 마음은 곡소리 나는 집으로, 우매한 자의 마음은 등불 환한 집으로. 부엌에서는 가시나무 불이 요란하게 타다가 술을 끓이지 못한 채 꺼진다. 회랑의 저울들 — 끝과 시작, 참음과 교만, 옛날과 오늘 — 마다 어두운 쪽 접시가 내려가 있다. 회랑 끝에서 명령 하나가 걸음을 세운다 —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아무 손도 펴지 못하는 굽은 막대, 나란히 걸린 두 날의 달력, 백지로 남은 장래. 그리고 등불 켜 책상에서 한 사람이 주판알을 하나씩 옮긴다 — 천 개의 얼굴 가운데 하나에서 손가락이 멈추고, 장부의 나머지 줄은 비어 있다. 수색은 실패로 닫히는데, 그 실패의 끝에서 단 하나의 깨달음이 온다 —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향유 냄새가 한 번 더 스치고 7장이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격언의 회랑 — 하나님의 작업장 — 관찰의 책상, 세 무대. 마주 선 두 집(초상집/잔칫집). 향유·술·가시나무·두 그늘·올무·셈 도구. 거꾸로 달린 저울의 소재 배치.
2 첫 느낌·분위기	끝을 받는 쪽이 산 자라는 발견. '낫다'의 북소리. 가시나무 불의 소리 그림. 처음 나오는 실패 보고("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고다"). 숨의 길이로 그려진 마음(ruach 셋).

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비교 격언(7:1)에서 창조의 평결(7:29)로 — 죽는 날에서 지으신 날로 시간을 거꾸로 걷는 동선. 못 찾은 목록 끝의 찾은 것 하나. 정직 하나/죄들 여럿의 단수·복수 대조.
4 등장인물·사상	마음의 주소가 다른 두 부류. 하나님의 출현 증가(13·14·18·26·29절). 경첩 어휘 lev(마음). 1:15의 익명 행위자가 7:13에서 실명으로. 장래의 무지가 설계로 진술됨.
5 장면 컷	초상집 격언(1~6)/길 위 격언(7~12)/보라(13~14)/허무한 날의 관찰(15~22)/찾는 자의 보고(23~29) 5컷. 격언은 전부 둘씩 짝, 16~17절은 거울 대칭.
6 의문·발견·정보	shem/shemen·sir/sirim 두 겹의 소리 유희. cheshbon(이치)과 chishvonot(죄들)의 같은 어근. 부기 문체의 수색 보고. 7:15-18·7:28의 미해결 보존. 아메넬오페 비교 격언 배경.
7 동영상	향유 → 두 집과 두 마음 → 꺼지는 가시나무 불 → 저울의 회랑 → 굵은 막대와 백지 달력 → 주판알과 빈 장부 → 곧게 지으신 손과 쌓이는 도면, 압전.
8 초별 제목·부제	"거꾸로 달린 저울 — 초상집에서 배우는 산 자"
9 기도·내면	두 집 사이의 길에서 마음의 거처를 묻는다. 낸 죄들의 도면은 덮고 지으신 곧음만 바라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결 1 — tov min, 거꾸로 달린 저울:** 6:12이 "무엇이 좋은가"를 묻자 7장은 첫 단어부터 tov로 응답한다. 그런데 그 대답의 저울이 거꾸로 달려 있다 — 죽는 날이 출생보다, 초상집이 잔칫집보다, 슬픔이 웃음보다, 책망이 노래보다 낫다고. 이 역전은 염세가 아니라 주소 변경이다. 격언들이 겨냥하는 과녁이 몸의 동선이 아니라 마음(lev)의 거처이기 때문이다 —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7:4). 끝(sof)이 보이는 집에 마음을 둔 사람만이 끝나지 않은 날들을 제대로 산다는 — 그 역설의 무게가 열두 절의 저울마다 얹혀 있다.

2. **결 2 — 두 날의 병행, 경외의 인식론:** 7:13-14는 후반부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1:15에서 익명이던 굵음의 행위자가 여기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한 분의 손에서 병행되며, 장래의 무지가 사고가 아니라 설계로 진술된다 —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일을 모르는 것이 결함이 아니라 두 날을 다 그분의 손에서 받게 하는 조건이라면, 곤고한 날의 "되돌아 보아라"는 절망의 동작이 아니라 그 날에도 주어진 과제다. 12:13의 경외가 결론이 되려면 이 인식이 먼저 서야 한다 — 7장이 그 기둥을 세운다.

3. **결 3 — yashar와 chishvonot, 곧음과 죄들:** 29절의 평결은 같은 어근의 두 단어 위에 서 있다. 전도자가 하나에 하나를 더해 찾던 것이 cheshbon(이치, 7:25·27)이고, 사람이 낸 것이 chishvonot(죄들, 7:29) — 둘 다 chashav(셈하다)에서 왔다. 셈으로 이치를 추적하던 수색이 끝내 발견한 것은, 사람들 또한 저마다 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한 동작(정직하게 지으심)과 사람의 많은 동작(죄들을 냄)이 단수와 복수로 마주 보는 이 문장은, 굵게 하신 것(7:13)과 곧게 지으신 것(7:29)을 한 장 안에 공존시킨 채 — 굵음의 뜻도 곧음의 회복도 발설하지 않고 닫힌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전 6:12 — "무엇이 좋은가" — 7장 tov-min 연작이 응답하는 질문.
- 전 1:15 —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 7:13에서 행위자가 채워지는 짝.
- 전 12:13 — "하나님을 경외하고" — 7:18의 '경외하는 자는 벗어난다'가 미리 내미는 닻.

- 왕상 8:46 —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 7:20과 같은 명제, 성전 봉헌 기도와 지혜 문학의 합류.
- 잠 5:3-5 · 7:21-27 — 음녀의 길과 올무 — 7:26 모티프의 닿음.
- 시 90:12 —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 끝을 마음에 두는 산 자(7:2)와 같은 결.
- 창 1:27·31 — 사람의 창조와 "심히 좋았더라" — 7:29 '정직하게 지으심'의 기원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7:1을 소리 내어 읽는 데서 시작한다 — tov shem mishemen tov. 이름과 기쁨이 입 안에서 부딪치는 동안, 내게 남을 것이 향인지 이름인지 묻게 된다.
- 멈춤 1: 7:4에서 멈춘다 — 내 마음의 주소. 몸은 여러 곳을 다니지만 마음이 어느 집에 세 들어 사는지를 묻는다.
- 멈춤 2: 7:14에서 멈춘다 —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그 날에도 할 일이 있다는 문장을, 백지로 남은 장래와 함께 켜다.
- 끝: 7:20과 7:29 사이에서 멈춘다 — 죄 없는 의인은 없고, 그러나 정직하게 지으셨다. 고발과 존엄이 한 장 안에 함께 있다. 꾀들의 목록과 지으신 곧음을 같이 켜다.

F · 자족성 점검

- [x] tov-min 연작(1~12)·보라의 축(13~14)·1인칭 관찰(15~22)·수색 보고(23~29)의 네 단 완결
- [x] 6:12 질문과 7:1 응답의 경계 호응
- [x] shem/shemen·sir/sirim 두 겹 소리 유희의 보존
- [x] 1:15 ↔ 7:13 행위자 채움의 다리
- [x] cheshbon/chishvonot 같은 어근의 머리-꼬리 대응
- [x] 7:15-18·7:28 난해 본문의 미해결 보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전도서의 spine은 '해 아래 모든 것의 헛됨을 정직히 통과시켜,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닻에 이르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이다"(12:13)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헛됨의 실험(1~2장), 때와 분깃과 하나님의 선물(3~11장),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결론(12장)으로 움직이는데, 7장은 가운데 구간의 후반을 여는 문이다 — 6:12이 던진 "무엇이 좋은가"에 처음으로 대답이 놓이기 시작하는 곳. 그 대답이 초상집과 슬픔과 끝이라는 사실은, 이 책의 경외가 밝은 날만 골라 디디는 경외가 아님을 보여 준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7:29가 큰 이정표다 — 창세기 1장의 "심히 좋았더라"가 '정직하게 지으셨으나'로 회고되고, 창세기 3장 이후의 굴절이 '많은 꾀들'로 요약된다. 창조의 선함과 인간의 굴절을 한 문장에 담는 이 평결은, 헛됨의 원인을 창조주의 숨씨가 아니라 사람의 썸에 두면서도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 — 지으신 곧음이 문장의 앞쪽에, 평결의 기초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7:18에서 12:13의 어휘(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미리 등장한다 — 의의 과잉과 악의 방종이라는 두 벼랑 사이에서, 권의 결론이 닻이 되기 전에 먼저 출구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무엇이 좋은가'라는 질문(6:12)에서 거꾸로 달린 저울의 첫 대답(7:1-12)으로 / 익명의 굽음(1:15)에서 하나님의 손(7:13)과 두 날의 병행(7:14)으로 / 찾지 못한 수색(7:23-28)에서 '정직하게 지으셨으나'(7:29)라는 단 하나의 깨달음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7장은 '좋은'의 기준점을 잔칫집에서 초상집으로 옮기는 운동이다. 전반부(1~6장)가 해 아래의 모든 항목 — 쾌락·사업·소유·명예 — 을 결산하고 적자를 보고했다면, 7장부터는 그 적자 안에서 그래도 '나은 것'을 골라내는 비교의 작업이 시작된다. 그 비교가 도착하는 곳이 두 군데다 — 사람 쪽에서는 끝을 마음에 두는 산 자(7:2), 하나님 쪽에서는 두 날을 병행하게 하신 손(7:14). 그리고 장의 마지막 운동은 시간을 거슬러 오른다 — 죽는 날에서 지으신 날로, 관 곁에서 창조의 작업대로. 8장은 이 운동을 이어받아 죽는 날을 주장할 자가 없다는 데까지, 인간의 한계를 더 깊이 파 내려간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어두운 격언집이다 — 죽음이 낮고, 슬픔이 낮고, 의인이 멸망하고, 천에서 하나도 못 찾는다는.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모든 어두운 격언의 수신인이 산 자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7:2) — 끝을 보여 주는 목적이 삶을 꺾는 데 있지 않고 마음에 유익을 주는 데 있다(7:3). 초상집은 절망의 전시장이 아니라 산 자를 빚는 교실이다. 둘째, 하나님의 출현이 늘어난다. 1장에서 단 한 번이었던 분이 7장에서는 행하시고 굽게 하시고 병행하게 하시고 지으신 분으로 거듭 나오신다 — 헛됨의 보고서가 깊어질수록 그 보고서의 배후 행위자가 더 자주 호명되는 역설. 셋째, 실패가 결론을 연다. 지혜를 찾던 수색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7:24)로, 사람을 찾던 수색은 빈 장부(7:28)로 닫히는데, 바로 그 실패의 바닥에서 단 하나의 깨달음 —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 이 솟는다. 쥐지 못한 손이 마지막에 받아 쥐는 것은 수색의 전리품이 아니라 기원의 진술이다. 본문은 그 진술이 무엇을 회복하는지 발설하지 않은 채, 다만 끝음이 꺾들보다 먼저였다는 순서만 정확하게 남기고 멈춘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 마음은 지금 어느 집에 세 들어 사는가 — 끝이 보이는 집인가, 끝을 잊게 하는 집인가. 곤고한 날이 올 때 나는 그 날을 사고로 여기는가, 아니면 형통한 날과 함께 병행되도록 두신 다른 한 날로 받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슬픔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두 집을 보여 주고, 마음이 어느 문지방을 넘는지 따라가게 하고, 술을 끓이지 못하는 요란한 불을 들려준다. 그리고 두 날의 달력 앞에서 장래 쪽 페이지가 백지임을 확인하게 한다 — 그 백지가 불안의 근거가 아니라 두 날을 다 한 손에서 받게 하는 조건일 수 있다는 것까지만. 마지막으로 본문은 독자의 기원을 상기시킨다 — 너는 꺾들의 목록이기 전에 정직하게 지어진 존재라고. 자기의 셈들이 쌓아 올린 도면 더미 아래에서 지으신 곧음을 다시 발견하는 일 — 그 발견으로의 부름이 7장이 산 자에게 건네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끝을 마음에 둔 산 자의 시선은 이제 그 끝의 주권으로 옮겨 간다 — "생명을 머물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으며"(8:8), 누가 죽는 날을 주장하라는 물음이 8장을 연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yashar* — 정직하게, 곧게 지으셨다.

미해결 질문

전도서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7:1 —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까닭은 어디까지 말해졌는가?

- 본문이 주는 근거는 7:2의 절반 —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이름(shem)이 죽는 날에야 완성되기 때문인지, 끝이 보여야 삶이 보이기 때문인지, 격언은 더 풀지 않는다. 좋은 이름과의 연결도 병치로만 놓여 있다. 보존.

Q2. 7:15-18 —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무엇의 경계인가?

- 자기 의로 부풀어 오름의 경계인지, 의를 무기로 삼는 태도의 경계인지, 보응 신학에 대한 과신의 경계인지 — 해석사가 갈라져 온 난해 본문. 본문이 직접 주는 것은 출구 하나 —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18절). 경계의 내용은 비워 두고 출구의 위치만 보존.

Q3. 7:18 —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 — 이것과 저것은 무엇인가?

- 16절과 17절의 두 경고인지, 의와 지혜라는 두 길인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14절)의 두 날인지 — 지시 대상이 열려 있다. 양손이 무언가를 함께 쥐는 그림 자체만 선명하다. 보존.

Q4. 7:26 — 사망보다 쓴 여인은 실제 인물인가 의인화인가?

- 올무·그물·포승의 그림이 잠언 5·7장의 음녀 모티프와 닿아 있어, 특정 여인의 보고인지 어리석음의 의인화인지 갈래가 열린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를 피하려니와"라는 출구만 본문이 직접 준다. 보존.

Q5. 7:27-28 —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여자는 한 사람도" — 염세인가 반어인가 인용인가?

- 전도서에서 가장 논쟁적인 절. 화자의 쓰라린 토로, 당대 격언의 인용 후 반박, 과장된 반어 — 읽기의 갈래가 모두 살아 있다. 9:9("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과의 거리, 그리고 28절 직후 29절이 '모든 사람'의 꾀들로 일반화된다는 배열만 관찰로 두고 닫지 않는다. 보존.

Q6. 7:13의 "굽게 하신 것"과 1:15의 "구부러진 것" — 채워진 행위자는 무엇을 여는가?

- 1장에서 익명이던 굽음이 7장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진술된다. 그 굽음이 심판인지 설계인지 단련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고, 14절은 다만 두 날의 병행과 장래의 무지를 곁에 놓는다. 굽게 하신 뜻은 미해결로, 굽음과 곧음(7:29 yashar)이 한 장 안에 공존한다는 사실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전도서 8장

ECC-008 · 시가서 · 히브리어

"왕의 말은 권능(*shilton*)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8:4)의 묻지 못하는 궁정과 어긋난 장부 — 벌을 받는 의인들과 상을 받는 악인들(8:14) — 한복판에서, 눈은 어긋남을 보고 마음은 경외하는 자들의 잘 됨을 안다(8:12)는 이중 진술이 서고,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8:17)의 3중 부정이 지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장.

관찰된 사실

전도서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동선: 얼굴 클로즈업(1절) → 왕궁 알현실(2~4절) → 벽 너머의 어두운 언저리 — 바람·죽는 날·전장(8절) → 성읍 거리의 장례 행렬(10절) → 어긋난 장부(14절) → 식탁(15절) → 밤의 살핍(16~17절). 궁정에서 거리로, 식탁으로, 밤으로 내려옴.
- 소품(빛): 지혜가 얼굴에 내는 광채(1절) — 안쪽에서 켜 등불의 그림. 굳은 윤곽(*oz panim*)이 풀림.
- 소품(궁정): 왕좌, 하나님을 가리켜 들어 올린 맹세의 손(2절), 저울 없이 통과되는 왕의 말(4절), 낮춘 발걸음(3절).
- 소품(한계): 가둘 수 없는 바람, 달력에 없는 죽는 날, 제대 허가(*mishlach*) 없는 전장(8절), 그림자(13절).
- 소품(거리·식탁·밤): 상여와 거룩한 곳의 문턱(10절), 지체되는 판결문(11절), 빵과 잔(15절), 밤에도 감기지 않는 눈(16절).
- 소재의 두 무더기: 사람이 짊 수 없는 것들(바람·죽는 날·전쟁의 때·장래·하나님의 행사) 對 쥐고 있다고 믿는 것들(왕의 말·징벌 집행·장례 격식·상벌 장부) — 8장의 긴장이 이 사이에 걸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명암의 곡선: 광채(1절)로 열려 점점 어두워지다가 식탁의 불빛 하나(15절)가 켜지고 밤(16~17절)으로 닫힘.
- 2~4절 알현실의 밀도: 발걸음까지 조심해야 하는 공기.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가 문을 닫는 느낌 —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방.
- 11절은 꾸밈음이 아니라 관찰: 판결문의 배달이 늦으면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역학을 화내지 않고 받아 적음.
- 12~13절의 온도 변화: "장수하거니와 / 또한 내가 아노니" — 양보와 확신이 한 호흡 안. 고백이 관찰을 지우지 않고 나란히 섬.
- 13절 그림자(*tsel*)의 얇음: 백 번의 악행과 장수라는 두꺼운 시간이 '그림자 같은 날'로 불리는 순간 얇아짐.
- 9절부터 1인칭 관찰 동사의 연쇄: 보고 살펴보았는데(9) — 본즉(10) — 아노니(12) — 이르노니(14) — 보았는데(16) — 살펴보니(17). 보는 사람의 장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pesher)를 아는 자이나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 17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 지혜자(chakham)가 머리와 꼬리에 놓이는 수미 — 지혜자를 찾는 질문으로 열고 지혜자의 한계로 닫음. 같은 초상이 빛에서 한계로 이동.
- 어미의 이동: "~이나"의 물음에서 "~못하리로다"의 단정으로 — 그런데 그 단정은 알 수 없음을 아는 단정.
- 1절의 둘째 질문(이치를 아는 자가 누구냐)이 17절에서 '아무도 다 풀지 못한다'는 응답을 받음 — 열일곱 절 거리의 마주 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지혜자(1·5·17절 — 광채로 등장, 한계 고백으로 퇴장), 왕(2~4절 —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는 권력), 악인들(10~14절 — 성대한 장례·백 번의 악행·장수·상), 의인들(14절 — 별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12절), 잠 못 드는 자(16절), 하나님(2·12~13·15·17절 — 맹세의 증인, 경외의 대상, 날들을 주신 분, 모든 행사의 주인), 전도자(보고 살피는 눈).
- 중심 사상 1 — 8:11: 판결문(pitgam)의 배달 속도가 사람의 내면을 만들. 지연 → 담대함의 역학.
- 중심 사상 2 — 8:12-13의 이중 진술: 양보절(죄인의 장수를 다 인정) + 확신절(그래도 내가 아노니) — 본 것과 아는 것이 어긋난 채 한 구문 안에 공존. 어느 쪽도 철회되지 않음.
- 8:14의 어긋난 배달: 별은 의인들의 칸으로, 상은 악인들의 칸으로 —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도다"라고만 말하고 설명하지 않음.
- 9절 lera lo(그를 해롭게)의 모호: 다치는 쪽이 지배받는 자인지 권력을 준 자 자신인지 대명사가 열려 있음 — 미해결.
- 15절 식탁의 누적: 2:24 → 3:13 → 5:18-19 → 8:15 네 번째. 이번 어조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shabach)" — 권유에서 찬양으로.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지혜와 얼굴 — 이중 질문, 광채, 풀리는 사나움.
- 컷 2 (2~9절): 왕 앞에서 — 명령 준수 권면(2~5), 때와 판단의 회귀(5~6), 장래의 무지(7), 네 가지 불가능(8),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9).
- 컷 3 (10~14절): 어긋난 장부 — 악인의 장례와 망각(10), 더딘 판결문과 담대한 마음(11), 이중 진술(12~13), 뒤바뀐 상벌(14).
- 컷 4 (15절): 식탁의 결론 — 희락 찬양, 수고하는 날 동안 함께 있을 몫.
- 컷 5 (16~17절): 밤과 3중 부정 — 잠 못 드는 자, 하나님의 모든 행사, 알아낼 수 없음.
- 컷 2 내부의 경사: 명령형 권면 → 한계 진술 → 네 겹의 '없음'. 처세 기술에서 불가능 목록으로 내려감.
- 컷 3의 배열: 어긋남 두 장면(10·14절)이 팔호처럼 감싸고 한가운데 지연의 심리학(11)과 이중 진술(12~13)이 버텨.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pesher*(פֶּשֶׁר) — 이치·풀이. 히브리어 구약에서 8:1 단 한 번. 다니엘서 아람어 *peshar*(해석)와 친족, 쿰란 주석 장르 *pesharim*의 어원 계열. LXX는 λύσις(풀이·해결) — 배경.
- *oz panim*(עַז פָּנִים) — 얼굴의 사나움·굳음(직역 '얼굴의 강함'). 동사 *yeshunne*(변하다)가 그 굳음을 풀. 8:1.
- *shilton*(שִׁלְטָן) — 권능·권세. 8:4·8:8, 구약에서 전도서에만. 동족 동사 *shallit*(주장하다)이 8절에 겹침.
- *et umishpat*(עֵת וּמִשְׁפָּט) — 때와 판단. 8:5~6에 거듭 나오는 짝 — 3장 '때' 시의 회귀.
- *ruach*(רוּחַ) — 바람/숨/영의 중의. "바람을 가둘(*kala*) 사람이 없다"(8:8) — 바람으로 읽든 생명의 숨으로 읽든 사람의 손 밖.
- *mishlachat*(מִשְׁלַחַת) — 면제·놓아줌. 8:8 "전쟁할 때를 모면할" — 전장의 제대 허가가 없다는 그림.
- *pitgam*(פִּתְגָּם) — 판결문·칙령. 페르시아 행정 차용어. 구약에서 전 8:11과 에 1:20.
- *tsel*(צֵל) — 그림자. 8:13. 전 6:12("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과 같은 단어.
- *yare Elohim*(יָרֵא אֱלֹהִים) —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8:12에 부정사+분사의 겹으로 강조, 8:13에서 부정으로 뒤집힘.
- *shabach*(שָׁבַח) — 찬양하다. 8:15 "희락(*simchah*)을 찬양하노니". 4:2에서는 죽은 자들을 '찬양'하던 동사 — 같은 동사의 이동, 형태 관찰만.
- *matsa*(מָצָא) — 찾다·알아내다. 8:17 한 절에 세 번. *lo yukhal limtso* — 능히 찾아낼 수 없다.
- *maaseh haElohim*(מַעֲשֵׂה הָאֱלֹהִים) — 하나님의 행사. 8:17. 전 3:11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계열.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얼굴(1) + 궁정(2~9) + 어긋난 장부(10~14) + 식탁(15) + 밤의 3중 부정(16~17)의 다섯 단 구조.
- 8:8의 4중 '없음' 아나포라: 바람 — 죽는 날 — 전쟁 — 악. 부정의 사슬이 권력 단락의 바닥을 이룸.
- 8:12-13의 양보 구문: 현실 관찰을 다 인정한 뒤("장수하거니와") 확신을 진술("또한 내가 아노니") — 모순을 봉합하지 않고 나란히 두는 문법.
- 8:17의 점층 사다리: 일반인 → 애쓰는 자 → 지혜자. 주어의 자격이 올라갈수록 부정이 단단해짐 — 지혜서의 자기 한계 봉인.
- 식탁 후렴의 누적: 2:24 → 3:13 → 5:18-19 → 8:15. 관찰이 어두워질수록 식탁 문장의 확신이 올라가는 반비례.
- 관찰 동사 연쇄(9~17절): 보고·본즉·아노니·이르노니·보았는데·살펴보니 — 1인칭 보고 문체의 밀도.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이집트 프타호텟의 교훈 — 상관·권력자 앞 절제와 침묵의 처세 문학. 8:2-5의 장르 배경.
- 아히카르의 말(엘레판티네 아람어 사본) — 아시리아 궁정 서기관의 처세 격언. 왕의 말과 진노 앞 신중 — 배경.
- *pitgam*은 페르시아 행정 용어 차용 — 칙령·판결문의 역참 전달 체계가 어휘에 남음. '판결문의 배달 속도'(8:11) 그림의 배경.
- 근동의 성대한 장례 = 명예의 마지막 도장 — 악인이 그 도장을 받는 8:10의 아이러니 배경.
- LXX: *pesher* → λύσις, 8:10 '잊어버린 바'(veyishtakkechu) → ἐπιγνέθησαν(칭찬받았다, veyishtabbechu 독법) — 한 글자 차이의 사본 갈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전 8:5-6 ↔ 전 3:1-8:3:17 (때와 판단 — 3장 '때' 시의 회귀, "모든 일에든지")
- 전 8:15 ↔ 전 2:24 · 3:13 · 5:18-19 (먹고 마시는 선물 결론의 네 번째 누적)
- 전 8:11-14 ↔ 전 12:14 (지체되는 판결문 ↔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의 심판 — 지연이 끝내 만나는 결산)
- 전 8:17 ↔ 욥 28:12-28 (찾을꼬·찾아낼 수 없음 — matsa 계열의 한계 고백, 경외로 닫히는 두 지혜서)
- 전 8:10-14 ↔ 시 73:2-17 (악인의 행동을 보다가 성소에서 종말을 깨닫는 시 — 어긋남과 마주 보는 노래)
- 전 8:2-4 ↔ 잠 16:14-15 · 잠 24:21-22 (왕의 진노와 얼굴빛,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 궁정 처세의 정경 내 짝)
- 전 8:1 ↔ 민 6:25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 얼굴빛의 정경적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어둠 속에서 얼굴 하나가 떠오른다 — 굳은 윤곽이 풀리고 광채가 번진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나. 알현실이 펼쳐진다. 왕좌, 낮춘 발걸음, 맹세했던 손의 기억. 왕의 말이 떨어지는데 아무도 묻지 못한다. 벽이 투명해지고 그 너머가 보인다 — 가둘 수 없는 바람, 달력에 없는 죽는 날, 제대 허가 없는 전장. 거리로 바뀐다. 성대한 상여가 거룩한 곳 문턱을 지나 성읍을 가로지르고, 며칠 뒤 그 이름은 불리지 않는다. 장부가 펼쳐진 방 — 판결문은 지체되고 심장들이 굽어진다. 장부의 줄이 어긋나 별은 의인들의 칸으로, 상은 악인들의 칸으로 들어간다. 한구석에서 낮은 음성 — 그래도 내가 아노니,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식탁이 차려진다. 빵과 잔, 흔들리는 불빛 —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밤이다. 등불 곁에서 살피고 또 살피던 사람이 눈을 들고 말한다 —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등불이 점 하나로 남고,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장수하거니와, 내가 아노니 — 어긋난 장부 앞의 이중 진술"
- 초벌 부제: "빛나는 얼굴의 질문(pesher)으로 열려, 묻지 못하는 왕의 권능(shilton)과 네 가지 불가능(8:8), 더딘 판결문(pitgam)과 뒤바뀐 상벌의 장부를 지나, 보면서도 안다는 이중 진술(8:12-14)과 네 번째 식탁(8:15)에 머문 뒤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8:17)의 3중 부정으로 닫히는 — 어긋난 정의 앞에서 경외가 시험되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8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다섯 단 구조 + 8:8 4중 아나포라 + 8:17 점층 사다리 + 궁정 처세 문학·pitgam 행정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8:12-13의 이중 진술을 '인과응보 교리의 재확인'으로 봉합하지 않고, 본 것(14절)과 아는 것(12절)이 한 구문 안에 공존하는 형태의 관찰로만 둬.
- 8:11을 엄벌의 옹호나 사법 제도론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판결 지연과 마음의 담대함 사이 역학의 관찰로 보존.
- 8:15의 희락을 쾌락주의나 체념의 명제로 단정하지 않고, 2:24→3:13→5:18-19→8:15로 쌓이는 후련의 형태 관찰로 둬.
- 8:17의 알 수 없음을 회의주의 선언으로 확장하지 않고, 욕 28장과 마주 보는 지혜서의 자기 한계 고백 관찰로 이월.
- 8:2-5의 왕명 준수를 정치적 복종의 교훈으로 단정하지 않고, 궁정 처세 장르의 형식 관찰과 맹세(2절)의 무게 관찰로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전도서 8장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pesher)를 아는 자이나"(8:1)라는 빛나는 얼굴의 질문으로 열려, 묻지 못하는 왕의 권능(shilton, 8:2-4)과 네 가지 불가능 — 바람·죽는 날·전쟁·악(8:8) — 을 지나, 악인의 성대한 장례(8:10)·더딘 판결문과 담대해지는 마음(8:11)·뒤바뀐 상벌의 배달(8:14)이라는 어긋난 장부 한가운데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8:12)의 이중 진술을 세우고, 네 번째 식탁의 찬양(8:15)을 차린 뒤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8:17)의 3중 부정으로 닫히는 — 어긋난 정의 앞에서 경외가 시험되는 장이다.

한 문단: 어둠 속에서 얼굴 하나가 떠오르고, 굳은 윤곽이 풀리며 광채가 번진다. 알현실이 펼쳐진다 — 왕좌, 낮춘 발걸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던 손. 왕의 말이 떨어지는데 아무도 묻지 못한다. 벽 너머가 보인다 — 가둘 수 없는 바람, 달력에 없는 죽는 날, 제대 허가 없는 전장. 거리에서는 성대한 상여가 거룩한 곳 문턱을 지나가고, 며칠 뒤 그 이름은 불리지 않는다. 판결문은 어딘가에서 지체되고, 그 사이 사람들의 심장이 굼어진다. 장부의 줄이 어긋나 별은 의인들의 칸으로, 상은 악인들의 칸으로 배달된다. 그 한복판에서 낮은 음성이 들린다 — 그래도 내가 아노니,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식탁이 차려진다 — 빵과 잔, 흔들리는 불빛,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그리고 밤. 등불 곁에서 살피고 또 살피던 사람이 눈을 들고 말한다 —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등불이 점 하나로 남고 8장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얼굴 클로즈업 → 알현실 → 거리의 장례 → 어긋난 장부 → 식탁 → 밤. 쥘 수 없는 것들과 쥐었다고 믿는 것들의 두 무더기.
2 첫 느낌·분위기	광채로 열려 밤으로 닫히는 명암 곡선, 한복판의 등불 하나(15절).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알현실의 밀도. 화내지 않고 적은 마음의 역학(11절).
3 시작과 끝	지혜자(chakham)가 머리와 꼬리에 — 지혜자를 찾는 질문(1절)으로 열고 지혜자의 한계(17절)로 닫는 수미.

단계	핵심 발견
4 등장인물·사상	왕·악인들·의인들·경외하는 자들·잠 못 드는 자, 네 번 등장하시는 하나님. 중심 사상은 판결문의 배달 속도(8:11)와 이중 진술(8:12-13).
5 장면 컷	얼굴(1)/궁정(2~9)/어긋난 장부(10~14)/식탁(15)/밤(16~17)의 5컷. 컷 2는 처세에서 불가능으로 내려가는 경사, 컷 3은 어긋남이 팔호처럼 감싸는 배열.
6 의문·발견·정보	구약에 한 번뿐인 pesher. 8:17의 점층 사다리. 식탁 후렴의 누적과 반비례. 8:10의 사본 갈래(잇힘/칭찬). 궁정 처세 문학과 pitgam의 행정 배경.
7 동영상	폴리는 얼굴 → 묻지 못하는 알현실 → 상여와 지체되는 판결문 → 어긋난 장부와 낮은 음성 → 식탁 → 밤의 고백, 압전.
8 초별 제목·부제	"장수하거니와, 내가 아노니 — 어긋난 장부 앞의 이중 진술"
9 기도·내면	배달이 늦은 날들에 굶어졌던 마음을 본다. 보는 것과 아는 것 사이의 좁은 길에 설명을 구하지 않고 선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이중 진술, 보면서도 아는 문법:** 8:12-13은 양보절로 현실을 다 인정한다 — 죄인이 백 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그 위에 확신절이 선다 — 또한 내가 아노니,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증거(8:14)는 반대쪽을 가리키는데 확신은 철회되지 않고, 관찰도 지워지지 않는다. 본 것만 남기면 냉소가 되고 아는 것만 남기면 눈감음이 되는 갈림에서, 본문은 둘 다 쥔 채 버티는 제3의 문법을 보여 준다 — 설명 없이 견디는 신앙의 정직한 구문이다.

2. **결 2 — 네 가지 불가능과 권능의 한계:** 왕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고(8:3) 그 말에는 권능(shilton)이 있다(8:4). 그러나 8:8이 같은 어근으로 한계를 긋는다 — 바람을 주장할(shallit) 사람도,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묻지 못하게 하는 권력 위에, 아무도 다스리지 못하는 네 영역 — 바람·죽음·전쟁·악 — 이 둘러서 있다. 절대 권력의 방 안에서 절대적 한계를 같은 단어로 발음하는 배열 — 궁정 처세 권면이 끝내 닿는 곳은 처세 너머의 측량 불가다.

3. **결 3 — 식탁 후렴의 누적과 부정의 사다리:** 먹고 마시는 결론은 이번이 네 번째다(2:24 → 3:13 → 5:18-19 → 8:15). 관찰이 어두워질수록 식탁 문장은 확신을 더해, 여기서는 찬양(shabach)이 된다. 그리고 곧바로 8:17의 사다리가 선다 — 보통 사람도, 애쓰는 자도, 지혜자도 능히 찾아내지(matsa) 못한다. 누릴 수 있는 것(오늘의 몫)과 알 수 없는 것(하나님의 행사 전체)이 나란히 확정되는 결말 — 욕 28장이 같은 동사로 찾기의 실패를 고백한 뒤 경외로 닫혔던 동선과 같은 계열의 결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전 3:1-8:3:17 — 모든 일에 때와 판단이 있다 — 8:5-6의 회귀, '때' 시의 산문 재진술.
- 전 2:24 · 3:13 · 5:18-19 — 먹고 마시는 선물 결론 — 8:15는 네 번째이자 가장 확신에 찬 후렴.
- 전 12:14 —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의 심판 — 지체되던 판결문(8:11)이 끝내 만나는 결산.
- 욕 28:12-28 — 지혜를 어디서 찾을꼬 — matsa 계열의 한계 고백과 경외로 닫히는 두 지혜서의 병렬.
- 시 73:2-17 — 악인의 행동을 보다가 성소에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은 노래 — 8:10-14의 어긋남과 마주 봄.
- 잠 16:14-15 · 24:21-22 — 왕의 진노와 얼굴빛,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 궁정 처세의 정경 내 짝.
- 민 6:25 —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 8:1 얼굴 광채의 정경적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8:1에서 시작한다 — 지혜가 얼굴에 하는 일. 내 굳은 표정이 풀린 적이 언제였는지 떠올린다.
- **멈춤 1:** 8:11에서 멈춘다 — 배달이 늦은 판결문과 담대해진 마음. 늦어진 정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굽어졌는지 살핀다.
- **멈춤 2:** 8:12와 8:14 사이에서 멈춘다 — 내가 본 것과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 둘이 어긋나는 날 어느 쪽을 지워 왔는지 묻는다.
- **끝:** 8:15와 8:17 사이에서 멈춘다 — 오늘의 뒤편 식탁과, 끝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사. 누릴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같은 손에 쥔다.

F · 자족성 점검

- [x] 얼굴(1)·궁정(2~9)·어긋난 장부(10~14)·식탁(15)·밤(16~17)의 다섯 단 완결
- [x] 지혜자(chakham) 수미 — 1절의 질문과 17절의 한계 고백
- [x] shilton/shallit의 권능-한계 대응(8:4 ↔ 8:8)
- [x] 어긋남 팔호(10·14절)와 한가운데의 이중 진술(12~13절)
- [x] 식탁 후렴(8:15)의 누적 위치와 3중 부정(8:17)의 결말 대응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전도서의 spine은 '해 아래 모든 것의 헛됨을 정직히 통과시켜,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닻에 이르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12:13)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헛됨의 실험(1~2장), 때와 분깃과 하나님의 선물(3~11장),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결론(12장)으로 움직이는데, 8장은 가운데 국면에서 경외가 가장 혹독하게 시험되는 시험대다 — 정의가 어긋나는 현장(벌을 받는 의인들, 상을 받는 악인들)을 눈앞에 두고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8:12)이라는 얇이 철회되지 않는지를 묻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더딘 판결문(pitgam, 8:11)은 12:14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에서 도착지를 얻는다 — 지연은 부재가 아니라 아직 배달 중인 시간임이 권의 끝에서 확정되는 것이다. 또한 8:17의 알 수 없음은 읊 28장의 동선 — 찾을 수 없다는 고백 끝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 과 같은 계열에 서서, 측량의 실패가 경외의 문턱이 되는 지혜서의 길을 공유한다. 어긋난 장부를 정직하게 펼쳐 둔 채 건디는 8장이 있어야, 12장의 닻이 현실을 외면한 구호가 아니라 어긋남을 다 통과한 결론이 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지 못하는 궁정(8:2-4)에서 아무도 다스리지 못하는 네 영역(8:8)으로 / 어긋난 장부(8:10-14)에서 철회되지 않는 이중 진술(8:12-13)로 / 네 번째 식탁의 찬양(8:15)에서 3중 부정의 한계 고백(8:17)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8장은 '쥐었다고 믿는 손'에서 '퍼서 받는 손'으로 미는 운동이다. 왕의 권능도 바람 앞에서 멈추고, 장부의 셈도 배달이 어긋나며, 지혜자의 측량도 하나님의 행사 앞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세 겹의 한계가 확정될 때마다 본문은 사람의 손에 다른 것을 쥐여 준다 — 어긋남 한복판의 확신(12절), 오늘의 식탁(15절), 그리고 알 수 없음을 발음할 수 있는 입(17절). 9장에서 이 운동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한 가지 일" — 죽음 — 앞으로 이어지고, 산 자의 분깃과 힘을 다하는 손의 권면으로 변주된다. 8장의 벡터는 전권을 '측량의 실패에서 경외라는 닻으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가장 어두운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권력과 부조리의 보고서다 — 묻지 못하는 왕, 명예롭게 묻히는 악인, 늦는 판결문, 뒤바뀐 상벌.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이 장의 침묵과 발화가 갈라지는 결이 있다. 전도자는 왕 앞에서 말을 아끼라고 권하면서(8:3-4), 하나님의 행사 앞에서는 '알 수 없다'를 세 번이나 발음한다(8:17). 권력 앞의 침묵은 처세이지만 신비 앞의 고백은 예배의 문턱이다 — 입을 닫는 대상과 여는 대상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장의 숨은 좌표다. 둘째, 자연의 다른 얼굴이 있다. 판결문이 늦어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관찰(8:11)은 뒤집으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간이 회개의 여백으로 열려 있다는 그림이기도 하다 —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12:14의 결산이 권 끝에 서 있는 한 자연은 부재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셋째, 이중 진술의 출처가 비어 있다. "또한 내가 아노니"의 근거를 본문은 제시하지 않는다 — 증거가 아니라 경외 자체에서 자라는 앎이 있다는 것, 보이는 장부가 어긋나 있어도 마지막 장부의 주인을 신뢰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8장은 논증하지 않고 다만 한 구문 안에 보여 준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긋난 장부를 볼 때 어느 쪽을 지워 왔는가 — 본 것을 지워 눈을 감았는가, 아는 것을 지워 냉소했는가. 그리고 판결이 늦어진 시간에 내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 담대해졌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어긋남을 부정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 별을 받는 의인들과 상을 받는 악인들을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정직하게 발음한다(8:14). 그리고 같은 입으로 "또한 내가 아노니"를 발음한다(8:12). 그 사이의 좁은 길 — 보면서도 알고, 알면서도 계속 보는 길 — 위에 식탁이 차려져 있다(8:15). 설명이 도착하지 않은 날에도 빵과 잔이 오늘의 몫으로 놓이고, 측량을 끝내려는 손이 퍼질 때 알 수 없음의 고백이 예배의 문턱이 된다(8:17). 어긋난 장부 앞에서 냉소도 눈감음도 아닌 제3의 문장을 가질 수 있는가 — 그 물음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알 수 없음의 고백 다음에 모두가 아는 한 가지가 온다 —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9:3), 죽음 앞에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역설과 산 자의 분깃이 펼쳐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peshar* — 이치, 끝내 다 풀리지 않는 매듭의 풀이.

미해결 질문

전도서 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peshar*(8:1) — '사물의 이치'는 무엇의 풀이인가, 그리고 지혜는 왜 얼굴에서 먼저 드러나는가?

- 구약에 한 번뿐인 단어. 매듭을 푸는 일이라는 그림(LXX λύσις)과, 그 풀이가 논증이 아니라 광채 — 굳은 얼굴(oz panim)의 풀림 — 로 나타난다는 배열. 지혜의 첫 증거가 표정이라는 문장의 결을 닫지 않고 보존.

Q2. 8:10 — 악인들은 '잊힌' 것인가 '칭찬받은' 것인가, 이 문장의 매듭은 어디서 풀리는가?

- MT의 *veyishtakkechu*(잊어버린 바 되었으니)와 LXX가 증언하는 *veyishtabbechu*(칭찬받았다)의 한 글자 갈래. 거룩한 곳을 떠나 드나들던 자들이라는 구문의 모호까지 겹침. 어느 독법이든 악인의 마지막이 명예의 격식으로 단장되는 아이러니는 남지만, 문장 자체는 미해결로 둔다. 보존.

Q3. 8:12-13 — "또한 내가 아노니"의 앓은 어디서 오는가?

- 증거(14절)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데 확신은 철회되지 않는다. 이 앓의 출처 — 전승인지, 경외 자체인지, 12:14의 결산을 미리 켜 것인지 — 를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의 공존 형태만 보존.

Q4. 8:14 — 어긋난 배달 앞의 hevel은 어떤 결인가?

- 별이 의인들의 칸으로, 상이 악인들의 칸으로 들어가는 날을 두고 "이것도 헛되도다"라고만 말한다. 이 hevel이 텅없음인지, 부조리인지, 측량 불가의 탄식인지 — 1:2부터 끌고 온 단어의 폭 안에서 닫지 않고 이월. 보존.

Q5. 8:15 — 네 번째 식탁의 찬양(shabach)은 체념인가 수용인가?

- 어긋난 장부를 펼쳐 둔 채로 차린 식탁. 죽은 자들을 기리던 동사(4:2)가 살아서 누리는 기쁨을 기리는 데로 옮겨 온 이동까지 겹친다. 관찰이 어두워질수록 식탁 문장의 확신이 올라가는 반비례의 이유 — 본문이 말하지 않으므로 보존.

Q6. 8:17 — 3중 부정의 '알 수 없음'은 방법론의 고백인가 예배의 문턱인가?

- 일반인 → 애쓰는 자 → 지혜자로 올라가는 부정의 사다리. 읊 28장이 같은 동사 계열(matsa)로 찾기의 실패를 말한 뒤 경외로 닫혔던 동선과의 거리. 지혜서가 자기 직업의 한계를 봉인하는 이 구문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 권의 끝(12:13-14)에 이르기 전까지 닫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전도서 9장

ECC-009 · 시가서 · 히브리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beyad haElohim*) 있으니"(9:1)라는 개막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한 결국(*mikreh*)의 정직한 인정 위에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kvar*)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9:7)는 명령형 연쇄가 흰 옷과 향 기름의 일상을 축제로 여는 — 전도서에서 가장 충만한 선물 결론.

관찰된 사실

전도서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네 번의 교체: 모든 것을 덮는 큰 손(1~6절) → 등불 켜진 한 집의 식탁(7~10절) → 경주로·전쟁터·물가(11~12절) → 포위된 작은 성읍(13~16절). 둘째 무대만 2인칭.
- 잔치의 소품: 음식물(빵), 포도주, 흰 의복, 머리의 향 기름, 결의 아내, 등불.
- 포획의 소품: 재난의 그물(*metsodah*), 새의 울무(*pach*), 큰 흉벽, 전쟁 무기(*kele qerav*).
- 두 손: 1절 — 모두를 진 하나님의 손(*beyad haElohim*), 10절 —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는 사람의 손.
- 소재의 두 무더기(잔치 對 재난)에 공통으로 걸린 끈: '알지 못함'(1·5·12절).
- 형식 소재: 7~10절 명령형 연쇄 + 각 명령 뒤의 *ki*(이는 ~임이니라) 근거절 — 명령과 근거의 짝 구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7절에서 책이 처음으로 독자를 "너는"이라고 호명 — 관찰의 책이 권면의 책으로 어조를 바꿈.
- 2절 목록을 읽는 동안 의인·악인·정·부정·제사·비제사의 구분선이 하나씩 지워지는 감각, 그 한가운데 4절의 "소망(*bittachon*)"이 불쑥 켜짐.
- 명암 대비: 1~6절 잿빛(죽은 자들·잊힌 이름들) → 7절부터 환함(흰 옷·기름·등불). 어둠을 지우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인정한 다음의 빛.
- 7~9절은 후각·촉각의 절 — 빵 냄새, 포도주, 기름의 향, 흰 천의 빛. 감각이 명령의 형태로 옴.
- 7절 "벌써(*kvar*)"의 침착함 — 명령의 근거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과거형 보고.
- 4절의 어순: 가장 천한 생물(산 개)의 살아 있음이 가장 위엄 있는 맹수(죽은 사자)의 주검보다 낫다는 배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곧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 모든 것을 왼 손으로 열려 많은 것을 허무는 한 사람으로 닫힘. 양끝이 다 불안정(알 수 없음 / 무너짐)한데 정중앙(7~10절)에 잔칫상.
- 어미의 지도: 보고("~임이니라", 1절) — 명령("~할지어다", 7~10절) — 격언("~하느니라", 18절).
- 18절의 "한 죄인"이 10:1의 "죽은 파리들"로 이어지는 경계 — 격언의 그림이 사물의 그림으로 옮겨 가는 이음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의인들·지혜자들(1절), 2절의 짝들(의인/악인, 선한 자, 깨끗한 자/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 드리는 자/드리지 아니하는 자, 선인/죄인, 맹세하는 자/맹세를 무서워하는 자), 산 개와 죽은 사자, 죽은 자들, 사랑하는 아내, 빠른 경주자·용사·지혜자·명철자·지식인(11절), 물고기와 새, 큰 왕과 가난한 지혜자(misken chakham), 다스리는 자와 우매한 자들, 한 죄인.
- 하나님의 등장 세 번 — 1절(손에 쥐심), 7절(벌써 기쁘게 받으심), 9절(해 아래의 날들을 주심). 전부 쥐시거나 주시는 쪽.
- 중심 사상: 7절의 ki — 잔치의 근거가 보상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수납(kvar ratsah). 받으셨으니 먹으라는 순서.
- 9절의 chelek(몫·분깃) — 2:10, 3:22, 5:18-19에서 수고의 결산이던 단어가 함께 사는 사람과 헛된 평생의 날들에 붙음.
- 11절 다섯 비상관: 능력 다섯(빠름·용맹·지혜·명철·지식)과 결과 다섯(선착·승리·음식·재물·은총)의 어긋남 — 근거는 "시기와 기회(et vapega)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 5~6절: 죽은 자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없어진 지 오래" — 1절의 사랑·미움(알 수 없음)과 같은 짝이 다른 방향으로 두 번 쓰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하나님의 손과 한 결국 —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 수 없음, 의인과 악인의 일들이 모두 일반,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감.
- 컷 2 (4~6절): 산 개의 잠언 — 산 자의 소망, 죽은 자의 무지·무상(無償)·잇힘, 없어진 지 오래인 사랑·미움·시기.
- 컷 3 (7~10절): 잔치 명령 — 빵과 포도주(7), 흰 옷과 기름(8), 아내와 몫(9), 손의 일과 스올의 부정 4연쇄(10).
- 컷 4 (11~12절): 경주로의 어긋남과 그물 — 다섯 비상관, 홀연히 임하는 재앙의 날.
- 컷 5 (13~16절): 포위된 성읍의 우화 — 가난한 지혜자의 구원과 잇힘, 멸시받는 지혜.
- 컷 6 (17~18절): 두 격언 — 조용한 말 對 호령, 지혜 對 무기, 그리고 한 죄인.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beyad haElohim(בְּיָד הָאֱלֹהִים) — 하나님의 손 안에. yad는 손·권한의 폭.
- mikreh(מִכְרֶה) — 결국·만나는 일. qarah(마주치다) 어근. 2:14-15(지혜자와 우매자) → 3:19(사람과 짐승) → 9:2-3(의인과 악인)으로 반경이 넓어짐.
- bittachon(בִּטְחוֹן) — 소망·신뢰. 구약에 드문 명사(왕하 18:19). / keleb chai · aryeh met — 산 개와 죽은 사자. 개는 천대의 그림(삼상 24:14).

- *sakhar*(שָׁחַר) — 상·샷. / *zekher*(זֵכֶר) — 기억·이름. 9:5의 잊힘.
- *lekh ekhol*(לֶךְ אֲכַל) — 가서 먹으라. / *kvar*(כָּבַד) — 별써·이미, 구약에서 전도서에만 나오는 부사. / *ratsah*(רָצָה) — 기뻐 받다·열납하다, 레위기 제의의 결을 가진 동사.
- *begadim levanim*(בְּגָדִים לְבָנִים) — 흰 옷들. / *shemen*(שֶׁמֶן) — 기름. / *ishah asher ahavta* — 내가 사랑하는 아내. / *chelek*(חֶלֶק) — 몫·분깃.
- *Sheol*(שְׁאוֹל) — 스올. LXX는 ᾗδης(하데스). / *cheshbon*(חֶשְׁבֹּן) — 계획·셈. 7:25·27의 '궁리'와 같은 단어.
- *et vapega*(עַתְּ וּפְגָא) — 시기와 기회. *pega*는 *paga*(부딪치다) 어근의 드문 명사(왕상 5:4). / *qallim*(קָלִים) — 빠른 자들.
- *metsodah*(מִצְדָּה) — 그물. / *pach*(פָּח) — 울무. / *ir qetanah* — 작은 성읍. / *misken chakham*(מִסְכֵּן חָכָם) — 가난한 지혜자. *misken*은 전도서 고유어(4:13).
- *benachat*(בְּנֵי חַת) — 조용히·평온함 가운데. 4:6의 *nachat*가 부사로 재등장. / *kele qerav* — 전쟁 무기. / *chote echad* — 한 죄인.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어둠(1~6) — 잔치(7~10) — 어긋남(11~12) — 우화(13~16) — 격언(17~18)의 다섯 단. 빛이 어둠 한가운데 놓인 배치.
- 7~10절 명령형 일곱: 가라·먹으라·마시라·희게 하라·그치지 않게 하라·살라·하라. 책에서 유일하게 2인칭 명령이 몰린 구간.
- 선물 본문의 연쇄: 2:24 → 3:12-13 → 3:22 → 5:18-20 → 8:15 → 9:7-10. 앞의 다섯은 "~보다 나은 것이 없다"의 관찰문, 여섯 번째에서 처음으로 명령문.
- 컷 3 내부의 동심원: 식탁(7) → 몸(8) → 결의 사람(9) → 손의 일(10). 안에서 바깥으로 한 겹씩.
- 부정의 연쇄 대칭: 10절 스올의 부정 4연쇄(일·계획·지식·지혜 없음) ↔ 11절 비상관의 부정 5연쇄.
- 13~16절은 *mashal*(우화) 형식 — 작은 성읍·큰 왕·큰 흥벽·가난한 지혜자라는 무명(無名)의 출연진.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길가메시 서사시(고바벨론판) 시두리의 권면 — 배·옷·머리·아내의 항목 순서가 9:7-9와 겹치는 평행 — 배경.
- 이집트 하프 연주자의 노래 — 죽음 앞에서 향유와 고운 옷을 권하는 장르 — 배경.
- 근동 포위전의 흥벽(공성 보루) 전술 — 9:14 우화의 무대 — 배경.
- 평행문헌과의 차이 관찰: 시두리류 권면에는 "별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수납의 근거가 없음 — 비교는 배경으로만, 차이는 기록으로만.
- LXX: 9:2 *hakkol*을 ματαιότης로(*hevel* 쪽 자음 전송 반영 가능성), *Sheol*을 ᾗδης로, 9:9 *re'eh*를 ἰδὲ로 — 번역·전송 폭의 증거, 배경.
- 코헬렛 랍바가 작은 성읍을 몸의 알레고리로 푼 후대 해석사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전 9:7-10 ↔ 전 2:24-26 · 3:12-13 · 3:22 · 5:18-20 · 8:15 (선물 권면 연쇄의 여섯 번째이자 최장·유일한 명령형)
- 전 9:13-16 ↔ 전 4:13-16 (가난하고 지혜로운 자의 구원과 잊힘 — 두 장의 모티프 합류)

- 전 9:5 ↔ 전 1:11 (이름과 기억의 소멸 — 권 전체를 관통하는 잊힘의 결)
- 전 9:11-12 ↔ 전 3:1-8 (et — 모든 일의 때가 여기서는 알 수 없는 때로)
- 전 9:1-3 ↔ 전 8:8 (죽음을 주장할 권한 없음 → 한 결국의 평준화로 이어지는 계단)
- 전 9:7-8 ↔ 시 104:15 (포도주와 기름 —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선물의 시편 배경)
- 전 9:7 ↔ 사 22:13 · 고전 15:32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 같은 그림이 절망의 구호로 쓰인 본문들과의 거리, 관찰로만)
- 전 9:4 ↔ 삼상 24:14 · 삼하 9:8 (죽은 개 — 천대받는 개의 용례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화면 가득 손바닥이 펼쳐진다 —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손금 위로 의인과 악인, 제사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의 행렬이 같은 문으로 들어가고, 문 안쪽에서 이름들이 흐려진다 —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구석에서 개 한 마리가 살아서 짖는다 —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낮기 때문이니라. 내레이션이 처음으로 정면을 본다 — 너는 가서. 등불 켜진 식탁, 김 오르는 빵, 따라지는 포도주, 빨랫줄에서 걸히는 흰 옷, 이마로 흘러내리는 향 기름, 곁에 앉는 아내. 연장을 쥐는 손 — 힘을 다하여. 창밖이 어두워지고 자막 —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경주로에서 가장 빠른 주자가 넘어지고, 그물이 물고기 떼 위로 내려오고, 새가 울무에 걸린다 — 홀연히. 작은 성읍에 흥벽이 오르고, 남루한 한 사람의 말로 성읍이 살아나는데, 잔치에 그의 의자만 비어 있다. 조용한 음성이 호령을 이기고, 무기 더미 위에 지혜가 얹히다가,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에 금을 낸다. 어둠 속에서 흰 옷자락 하나가 오래 빛나고,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벌써 받으셨다 — 한 결국 위의 잔칫상**"
- 초벌 부제: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개막과 한 결국(mikreh)의 정직한 인정 위에서,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kvar ratsah)를 근거로 한 일곱 명령형이 빵·포도주·흰 옷·향 기름·아내·손의 일을 축제로 펼치고, 다섯 비상관과 잊힌 가난한 지혜자의 우화가 그 결을 지키는 — 전도서 선물 결론의 절정"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5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선물 본문 연쇄의 문법 전환 + 명령형 일곱 + 부정 연쇄 대칭 + 시두리 평행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9:7의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를 칭의나 은혜 교리의 진술로 봉합하지 않고, 명령형 연쇄를 받치는 완료형 시제와 ratsah의 제의 결이라는 관찰로만 둬.

- 9:2-3의 한 결국을 내세 부정이나 보응 부정의 명제로 확장하지 않고, mikreh의 반경이 권을 지나며 넓어지는 분포의 관찰로 보존.
- 9:8의 흰 옷·기름을 성결·성령의 상징으로 풀지 않고, 잔칫날의 소품에 '항상'이라는 부사가 붙은 사물 관찰로만 둬.
- 9:11의 시기와 기회를 운명론이나 섭리 교리로 단정하지 않고, 1절의 '하나님의 손'과 어떻게 겹치는지를 미해결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전도서 9장은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beyad haElohim) 있으니"(9:1)라는 개막 아래 의인과 악인에게 임하는 한 결국(mikreh, 9:2-3)을 끝까지 정직하게 인정하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9:4)는 잠언으로 살아 있음을 밑천으로 세운 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kvar) 기쁘게 받으셨음 이니라"(9:7)로 시작하는 일곱 명령형의 잔치(9:7-10)를 펼치고, 다섯 비상관(9:11-12)과 성읍을 건지고도 잊힌 가난한 지혜자의 우화(9:13-16), 두 격언(9:17-18)으로 닫히는 — 전도서에서 가장 충만한 선물 결론이다.

한 문단: 화면 가득 손바닥이 펼쳐진다 —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인지 미움인지는 알 수 없다. 의인과 악인, 제사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가 같은 문으로 들어가고, 문 안쪽에서 이름들이 흐려진다. 그 어둠의 구석에서 개 한 마리가 살아서 짖는다 —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때 책이 처음으로 독자를 정면으로 본다 — 너는 가서. 등불 켜진 식탁, 김 오르는 빵, 포도주, 빨랫줄에서 건히는 흰 옷, 이마로 흘러내리는 향 기름, 곁에 앉는 아내, 연장을 쥐는 손. 명령이 일곱 번 떨어지는데 그 전부가 한 완료형 위에 서 있다 —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창밖에서는 가장 빠른 주자가 넘어지고 그물이 내려오고 새가 울무에 걸린다. 작은 성읍이 한 가난한 사람의 지혜로 살아나는데 잔치에 그의 의자만 비어 있다. 조용한 말이 호령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 한 죄인이 많은 선에 금을 낸다 — 어둠 속에서 흰 옷자락 하나가 오래 빛나고, 9장이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큰 손 → 식탁 → 경주로 → 성벽의 네 무대. 잔치의 소품과 포획의 소품. 두 손(쥐시는 손 / 일하는 손).
2 첫 느낌·분위기	처음으로 "너는"이라고 호명하는 본문. 지워지는 구분선과 불쑥 켜진 소망. 어둠을 인정한 다음의 빛. "벌써"의 침착함.
3 시작과 끝	모든 것을 권 손(1절)에서 많은 선을 무너뜨리는 한 죄인(18절)으로. 불안정한 양끝 사이 정중앙의 잔칫상. 보고—명령—격언의 어미 지도.
4 등장인물·사상	2절의 짝들, 산 개와 죽은 사자, 아내, 가난한 지혜자, 한 죄인. 하나님은 세 번 — 전부 쥐시거나 주시는 쪽. 중심은 7절의 ki — 수납이 명령보다 먼저.
5 장면 컷	어둠(1~6)/잔치(7~10)/어긋남(11~12)/우화(13~16)/격언(17~18). 컷 3 내부는 식탁→몸→사람→일의 동심원.

단계	핵심 발견
6 의문·발견·정보	명령형 일곱과 선물 본문의 문법 전환. mikreh 반경의 확장. 행위자 없는 사랑·미움. 시두리 평행과 '별써'의 차이.
7 동영상	손바닥 → 산 개의 짓음 → 등불 켜진 식탁 → 그물과 올무 → 비어 있는 구원자의 의자 → 흰 옷자락의 잔광, 암전.
8 초별 제목·부제	"별써 받으셨다 — 한 결국 위의 잔칫상"
9 기도·내면	명령보다 먼저 와 있던 한 단어 — 별써. 그 단어만 쥐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mikreh, 평준화가 잔치를 받친다:** 한 결국이라는 단어의 반경은 권을 지나며 넓어져 왔다 — 지혜자와 우매자(2:14-15), 사람과 짐승(3:19), 그리고 의인과 악인(9:2-3). 가장 넓어진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충만한 권면이 나온다. 어둠이 빛을 위협하는 배치가 아니라 어둠이 빛의 토대가 되는 배치다. 결국을 끝까지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의 빵이 당연한 소유가 아니라 받은 선물로 다시 계산된다.
- 결 2 — kvar ratsah, 완료형이 명령형을 받친다:** 일곱 명령(가라·먹으라·마시라·희게 하라·그치지 않게 하라·살라·하라)의 근거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과거형 보고다 — 별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ratsah는 레위기에서 제물이 열납될 때 쓰이는 동사로, 제단의 언어가 식탁에 와 있다. 이전 다섯 번의 선물 본문(2:24, 3:12-13, 3:22, 5:18-20, 8:15)이 전부 "~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관찰문이었는데, 여섯 번째에 이르러 처음으로 명령문이 된다 — 관찰이 확신의 문법으로 격을 바꾸는 순간이다.
- 결 3 — miskan chakham, 잊힌 구원자:** 작은 성읍을 건진 가난한 지혜자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9:15). 4:13-16의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의 잊힘과 1:11의 "기억됨이 없으리라"가 이 우화로 모인다. 그런데 본문은 잊힘을 들어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 — 성읍은 실제로 건져졌다. 기억이 지워져도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라는 것, 그 잊힘과 실재의 동거를 우화는 화해시키지 않은 채 보여 준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전 2:24-26 · 3:12-13 · 3:22 · 5:18-20 · 8:15 — 선물 권면의 연쇄. 9:7-10은 그 여섯 번째이자 가장 길고, 유일한 명령형.
- 전 4:13-16 —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의 구원과 잊힘 — 9:13-16과 합류하는 모티프.
- 전 1:11 — 기억됨이 없으리라 — 9:5의 이름 잊힘과 같은 결.
- 전 8:8 — 죽는 날을 주장할 권한 없음 — 9장 도입의 직전 계단.
- 시 104:15 —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 7~8절 소품의 시편 배경.
- 사 22:13 · 고전 15:32 —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 같은 그림이 절망의 구호로 쓰인 본문들과, 수납을 근거로 둔 9:7 사이의 거리(관찰로만).
- 전 12:13 —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 잔치의 권면이 끝내 합류하는 권의 닻.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9:1에서 시작한다 — 다 살펴봤더니 답이 아니라 손이 나왔다는 문장. 내 살핌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같이 세어 본다.
- **멈춤 1:** 9:4에서 멈춘다 —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 있음 자체가 밀천으로 계산되는 장부 앞에서.

- **멈춤 2:** 9:7에서 멈춘다 —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식탁의 근거가 내 성과의 결산인지, 먼저 와 있는 수납인지.
- **끝:** 9:15와 9:18 사이에서 멈춘다 — 잊힌 구원자와 한 죄인. 기억되지 않아도 실재했던 선과,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금. 둘 다 쥐고 다음 장으로 간다.

F · 자족성 점검

- [x] 어둠(1~6)·잔치(7~10)·어긋남(11~12)·우화(13~16)·격언(17~18)의 다섯 단 완결
- [x] 1절의 손과 10절의 손 — 쥐시는 손 안에서 일하는 손의 대응
- [x] 명령형 일곱과 ki 근거절의 짝 구조
- [x] 10절 부정 4연쇄와 11절 부정 5연쇄의 대칭
- [x] 18절 "한 죄인"이 10:1 "죽은 파리들"로 이어지는 이음매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전도서의 spine은 '해 아래 모든 것의 헛됨을 정직히 통과시켜,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닻에 이르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12:13)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헛됨의 실험(1~2장), 때와 분깃과 하나님의 선물(3~11장),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결론(12장)으로 움직이는데, 9장은 둘째 국면의 절정 — 선물 권면이 여섯 번 쌓이다가 처음으로 명령형의 옷을 입는 지점이다. 권의 heart가 '먹고 마심을 선물로 주시는 너그러움'이라면, 9장은 그 너그러움이 관찰의 거리를 거두고 독자의 팔을 잡아끄는 국면이다 — 너는 가서 먹으라.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창세기 3장이 들여온 죽음의 평준화가 여기서 가장 넓게 인정되는데(의인과 악인이 한 결국), 바로 그 인정 위에 제의의 동사가 식탁에 놓인다 —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ratsah, 열납의 결). 무엇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9장은 밝히지 않은 채 완료형만 준다. 그 미해결의 완료형이, 헛됨의 통로를 지나는 사람에게 잔치를 허락하는 근거로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 12장의 경외가 음울한 체념이 아니라 받은 자의 응답이 되도록 — 권의 끝을 미리 받치고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 결국의 정직한 인정(9:1-6)에서 일곱 명령형의 잔치(9:7-10)로 / 관찰의 문법("나은 것이 없다")에서 명령의 문법("가서 먹으라")으로 / 쥐고 계신 큰 손(9:1)에서 일을 얻는 작은 손(9:10)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9장은 죽음의 평준화를 잔치의 토대로 뒤집는 운동이다. 어둠을 줄이거나 가리는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 의인과 악인이 한 결국이고, 죽은 자에게는 상도 이쁨도 없고, 사람은 자기의 때를 모른다. 그 정직의 바닥에서 명령이 떨어진다 — 가라, 먹으라, 마시라. 그리고 이 명령의 물살은 11~18절의 어긋남과 잊힘을 지나면서도 꺾이지 않은 채, 10~11장의 마지막 권면들("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로 향하는 길)와 12장의 닻으로 흘러간다. 9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정직한 어둠에서 받은 잔치로, 받은 잔치에서 경외로' 끌고 가는 운동의 가장 환한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모순처럼 보인다 — 가장 어두운 평준화 직후에 가장 환한 잔치 명령이라니.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질서가 움직인다. 첫째, 순서가 본질이다. 잔치가 어둠을 잊기 위한 도피라면 어둠보다 먼저 나왔을 텐데, 본문은 결국의 어둠을 여섯 절에 걸쳐 다 통과시킨 다음에야 식탁을 차린다. 도피가 아니라 직면 이후의 향유다. 둘째, 근거의 시제가 본질이다. 일곱 명령은 전부 한 완료형 위에 서 있다 —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먹고 마심이 성과의 보상이라면 결산이 끝나기 전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수납이 이미 끝났다면 잔

치는 증명의 부담에서 풀려난다. 셋째, 9장의 하나님은 세 번 등장하시는데 전부 쥐시거나 주시는 쪽이다 — 손에 쥐시고(1절), 받으시고(7절), 날들을 주신다(9절). 알 수 없음(사랑인지 미움인지, 자기의 때)으로 가득한 장에서, 알 수 있는 것으로 남겨진 유일한 정보가 이 세 동사다. 본문은 그 셋만 손에 쥐여 주고, 나머지 물음은 열어 둔 채 멈춘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내 식탁을 결산 대기 중인 중간 보급으로 먹는가, 벌써 받으신 것의 잔치로 먹는가. 내 옷장의 흰 옷은 어느 날을 기다리며 걸려 있는가 — '항상'이라는 부사를 견딜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낙관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의인과 악인이 들어가는 같은 문을 보여 주고, 죽은 사자 곁에서 짓는 산 개를 보여 주고, 등불 켜진 식탁과 흘러내리는 향 기름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식탁 곁에 완료형 하나를 남겨 둔다 —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9:7). 잔치의 근거가 내 손의 결산이 아니라 먼저 와 있는 수납이라면, 독자는 같은 결국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늘의 빵을 들 수 있다. 9장은 답을 미루는 대신 손에 잡히는 것들을 먼저 건넨다 — 빵, 포도주, 흰 옷, 기름, 결의 사람, 그리고 오늘 손이 얻은 일. 그 구체성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마지막 격언(9:18)이 사물의 그림으로 이어진다 —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10:1), 작은 것의 파괴력을 세는 격언들이 시작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kvar* — 벌써, 명령보다 먼저 와 있던 완료형.

미해결 질문

전도서 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림 단계로 이월.

Q1. 9:1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 누구의 사랑이고 누구의 미움인가?

- 행위자가 비워진 문장. 직전 구절이 "하나님의 손 안"이므로 그 손의 기율기로도, 사람들에게서 올 호의와 적의로도 읽히는데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는 한정만 붙는다. 보존.

Q2. 9:2 첫머리 — MT의 *hakkol*(모든 것)과 LXX의 *ματαιότης*(헛됨), 어느 전승이 앞서는가?

- 자음 הכל/הכל 한 글자의 차이가 두 갈래 전승으로 남았다. '모든 것이 일반'으로 읽는 길과 '헛됨이 모든 것 안에'로 읽는 길 — 본문비평의 미해결로 이월. 보존.

Q3. 9:7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 무엇을 근거로, 언제 이루어진 수납인가?

- *ratsah*의 제의 결(열납)과 완료형 시제만 본문이 준다. 어떤 행위자, 어떤 근거로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것인지 9장 안에는 설명이 없다. 일곱 명령형 전체가 이 미해결의 완료형 위에 서 있다. 보존.

Q4. 9:8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 문자적 차림의 명령인가, 일상을 잔치로 삼으라는 그림인가?

- 흙과 땀의 생활에서 '항상' 흰 옷이 가능한가라는 물음 앞에, 본문은 옷과 기름이라는 사물만 주고 그 나머지를 말하지 않는다. 사물 그대로 보존.

Q5. 9:11 "시기와 기회(et vapega)" — 우연인가, 1절의 '하나님의 손'과 어떻게 겹치는가?

- 모든 것이 손 안에 있다는 개막과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한다는 관찰이 한 장 안에 나란하다. 우연의 언어와 주권의 언어가 서로를 배제하는지 포개지는지 — 본문은 둘 다 그대로 둔다. 보존.

Q6. 9:15 가난한 지혜자는 성읍을 "건졌"는가, 건질 수 있었는가 — 그리고 그 잊힘은 어디까지인가?

- 동사를 '건졌다'로 읽는 길과 '건질 수 있었으나 듣지 않았다'(16절의 멸시와 이어 읽는 길)로 읽는 번역 갈래가 있다. 4:13-16의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의 잊힘과 합류하는 이 우화에서, 기억의 소멸과 구원의 실재가 어떻게 같이 서는지도 열어 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전도서 10장

ECC-010 · 시가서 · 히브리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10:1)는 비대칭의 저울 위에, 분노 앞에서 제 곳(*maqom*)을 지키는 처신(10:4)과 뒤집힌 행렬(10:5-7), 무딘 철의 날 갈기(10:10)와 자기를 삼키는 입술(10:12), 그리고 심중의 말까지 나르는 새(10:20)가 차례로 놓이는 — 헛됨의 세계 안에서 여전히 유효한 작은 지혜들의 잠언 모음.

관찰된 사실

전도서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의 콜라주: 향유 작업대(1절) → 길(3절) → 궁정(4절) → 행렬의 길가(5~7절) → 공사장·채석장·벌목장(8~9절) → 뱀 부리는 마당(11절) → 성읍 가는 길(15절) → 잔칫상(16~17절) → 새는 집(18절) → 침실(20절). 한 컷짜리 무대 열 개의 빠른 전환.
- 소품(후각): 죽은 파리들과 향 제조자(*roqech*)의 기름 — 가장 하찮은 것이 최고급 소품을 망치는 첫 장면.
- 소품(생활): 말과 걷는 발(7절), 함정·담·뱀·돌·나무(8~9절), 무딘 철 연장(10절), 서까래와 새는 지붕(18절), 떡·포도주·돈(19절), 공중의 새(20절). 성전 기물 0.
- 소재의 두 무더기: 아주 작은 것들(파리·무딘 날·말 한 마디·놓은 손) 對 그것이 무너뜨리는 큰 것들(향기름·지혜와 존귀·집·나라). 저울이 작은 쪽으로 기울.
- 배열의 결: 1~3 우매의 비대칭 — 4~7 궁정 — 8~11 일터 — 12~15 입 — 16~19 나라와 집 — 20 다시 말.
- 10:1은 9:18("한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느니라")의 두 번째 절처럼 이어지는 경첩 — 같은 저울이 사람에서 파리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후각으로 열리는 장 — 그것도 향기가 아니라 악취. 뒤로 갈수록 소리(입·입술·저주·새의 전언)로 번짐.
- 10절의 체감: 무딘 칼로 일해 본 사람의 피로 — 부엌에서 매일 확인되는 문장.
- 5~7절의 자세: 길가에서 행렬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분한 "내가 보았노니" — 분노 없는 기록.
- 12~14절: 먹는 기관인 입이 제 주인을 삼키는 그림. 끝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가 나란히.
- 온도: 거의 전부 건조한 관찰인데 16~17절의 2인칭 호명("네게 화가/복이 있도다")에서만 오름.
- 4절 *marpe* — '공순함'의 어근이 *rapha*(고치다). 침착이 처세가 아니라 치료의 그림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 나라."
- 날것으로 열고 날것으로 닫힘 — 기름에 빠져 죽은 가장 작은 날것과, 침실의 말을 나르는 날개 가진 것 (baal hakenafayim).
- 시작은 냄새(막아도 새는 악취), 끝은 소리(닫아도 새는 말) — 막을 수 없이 퍼지는 것 둘이 양 끝을 지킴. 18절의 새는 집도 같은 결.
- 시작은 법칙의 선언, 끝은 그 법칙의 가장 내밀한 적용(심중의 말까지).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지혜자와 우매자, 주권자(4~5절), 높은 지위의 우매한 자와 낮아진 부자들(6절), 말 탄 종들과 걷는 고관들(7절), 네 직업의 일꾼(8~9절), 술객과 뱀(11절), 어린 왕과 아침의 대신들 / 귀족들의 아들 왕과 정한 때의 대신들(16~17절), 게으른 자(18절), 왕과 부자(20절), 공중의 새. 하나님은 이 장에 등장하지 않으심 — 전도서에서 드문 장.
- 중심 사상: 비대칭 — 파리 몇 마리 對 향기름 한 병, 적은 우매 對 지혜와 존귀. 무게의 산수가 맞지 않는 저울. 9:18과 같은 법칙의 변주.
- 8~9절: 잠 26:27의 인과응보 문형이 도덕 평가 없는 직업 위험의 목록으로 옮겨 앓음 — 일 자체에 깃든 중립적 위험.
- 10절: 위험 목록 직후의 권면이 '일을 그만두라'가 아니라 '날을 갈라' — 연장 관리로 내려온 지혜.
- 4절: 분노 앞의 동작이 떠남이 아니라 머무름 — maqom을 지키는 발, marpe가 큰 허물을 가라앉힘.
- 11절 원문: ein yitron lebaal halashon — '혀의 주인에게 yitron이 없다'. 1:3의 결산어가 실무 잠언에 재등장 (10절에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비대칭의 법칙 — 파리와 기름, 오른쪽·왼쪽, 길에서 드러나는 우매.
- 컷 2 (4~7절): 궁정 — 분노 앞의 머무름,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뒤집힌 행렬.
- 컷 3 (8~11절): 일터 — 네 가지 노동의 위험, 무던 철과 날 갈기, 때늦은 주술.
- 컷 4 (12~15절): 입 — 은혜로운 말과 자기를 삼키는 입술, 말 많음과 알 수 없는 장래, 성읍 길도 모르는 수고.
- 컷 5 (16~19절): 나라와 집 — 두 나라의 아침 대구, 서까래와 새는 집, 잔치·포도주·돈.
- 컷 6 (20절): 침실 — 심중의 저주와 날개 가진 전령.
- 경첩: 8절의 뱀이 11절에서 다시 물고, 12~14절의 말 잠언이 20절에서 한 번 더. 16~17절은 같은 틀에 단어만 바꾼 거울 대구.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zevuve mavet(זֶבֻּוּב מָוֶת) — 죽음의 파리들. '죽음'과 '죽이는' 사이가 열림. LXX μυῖαι θανατοῦσαι.
- shemen roqeach — 향 제조자의 기름. / sikhlut(סִיחְלוּת) — 우매, 1:17부터 이어지는 단어.
- lev(לֵב) — 마음. 오른쪽(yamin)·왼쪽(semol)의 방향 대비(2절).
- maqom(מָקוֹם) — 곳·위치(4절). / marpe(מַרְפֵּא) — 공순함, 어근 rapha(고치다). LXX ἰαμα(치료).
- gummats(גֻּמָּט) — 함정(8절). 구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 / gader — 담. / nachash — 뱀.

- *qahah*(קָחָה) — 무더다(10절). 렘 31:29-30·겔 18:2의 '이가 시다'와 같은 동사. / *barzel* — 철.
- *yitron*(יִטְרוֹן) — 유익·남는 것. 10절과 11절에 연속 등장 — 1:3 강령 질문의 단어.
- *lachash*(לָחַשׁ) — 주술·속삭임. *nachash*(נָחָשׁ)와의 소리 닮음. / *baal halashon* — 혀의 주인(술객).
- *chen*(חֵן) — 은혜로움(12절). / *bala*(בָּלָא) — 삼키다. / *holelut*(חֹלְלוּת) — 미친 것(13절), 1~2장의 단어가 다시.
- *atsaltayim*(אַטְסַלְתַּיִם) — 게으름의 쌍수형(18절). / *meqareh* — 서까래 구조. / *dalaph*(דָּלַף) — 새다, 잠 19:13·27:15의 물방울 그림.
- *kese fyaneh et hakkol* — '돈이 모든 것에 응답한다(anah)'(19절 직역). / *madda*(מַדָּה) — 심중, LXX συνείδησις. / *baal hakenafayim* — 날개들의 주인(20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여섯 묶음의 잠언풍 모음(1~3/4~7/8~11/12~15/16~19/20) — 독립 잠언이되 배열에 결이 있음.
- *yitron*의 강하: 1:3의 우주 규모 결산어가 연장 한 자루(10절)와 주술 한 번(11절)의 이득 계산으로 내려옴.
- 16~17절의 거울 대구: 왕의 출신과 식탁의 시각·목적만 바뀌 끼운 화/복 선언 — 이 장에서 유일하게 온도가 오르는 2인칭.
- 새는 것들의 연쇄: 약취(1절) — 새는 집(18절) — 새어 나가는 말(20절).
- 날개 달린 것들의 틀: 죽은 파리(1절)로 열고 날개 가진 전령(20절)으로 닫힘 — 형태 관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이집트 '이푸웨르의 훈계' — 종이 좋은 옷, 귀인이 누더기 — 10:5-7 뒤집힌 세계의 토포스 — 배경.
- 아람어 '아히카르의 말' — 말(言)을 되잡을 수 없는 새에 비유 — 10:20의 배경.
- 이집트 궁정 교훈 문학 — 상관의 분노 앞 침착의 처세 전통 — 10:4의 배경.
- LXX: *zevuv mavet* → '죽게 하는 파리들', *marpe* → ἰαμα(치료), *madda* → συνείδησις(의식·양심) — 번역 폭의 증거,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전 10:1 ↔ 전 9:18 (적은 우매 ↔ 한 죄인 — 같은 저울의 두 문장)
- 전 10:8-9 ↔ 잠 26:27 (함정 문형 — 인과응보 구도와 중립적 위험 관찰의 거리)
- 전 10:5-7 ↔ 잠 30:21-23 · 사 3:4-5 (종이 임금됨 — 뒤집힌 질서의 그림들)
- 전 10:4 ↔ 잠 16:14 · 전 8:2-4 (왕의 진노 앞의 처신)
- 전 10:10 ↔ 렘 31:29-30 · 겔 18:2 (*qahah* — 무더지는 날과 시려지는 이)
- 전 10:11 ↔ 시 58:4-5 (술객의 소리를 듣지 않는 독사)
- 전 10:18 ↔ 잠 19:13 · 27:15 (*dalaph* —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 전 10:10-11 ↔ 전 1:3 (*yitron* — 강령 질문의 단어가 실무 잠언으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향유 가게의 어두한 실내 — 호박색 기름 위에 떠 있는 검은 점 몇 개, 코를 찌르는 냄새. 자막 —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길 위에서 한 사람이 걸음마다 제 우매를 광고하며 지나간다. 궁정에서 주권자의 얼굴에 분이 오르고, 한 신하가 떠나려던 발을 제 곳에 도로 내려놓는다. 성문 길가로 행렬이 지나간다 — 말 위에는 종들, 먼지 속에는 걸어가는 고관들. 카메라는 화내지 않고 오래 바라본다. 공사장 — 함정 결

의 발, 닭 틈의 뱀, 구르는 돌, 튀는 나무. 벌목장에서 무딘 도끼가 두 배로 휘둘리다가, 한 사람이 앉아 날을 간다. 숫돌 소리. 뱀 부리는 마당에서는 술객이 입을 떼기 전에 뱀이 먼저 문다. 잔칫상 둘 — 아침 햇살에 벌써 기울어진 술잔과 등불 아래 정한 때의 식탁. 내려앉는 서까래, 천장에서 듣는 물방울. 침실의 어둠 속에서 입술이 달짝이고, 창턱의 새 한 마리가 그 소리를 물고 날아오른다. 마지막 자막 —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리라. 날갯소리, 암전.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죽은 파리의 저울 — 날을 가는 시간"
- 초별 부제: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비대칭의 법칙(10:1) 아래, 분노 앞의 머무름(10:4)과 뒤집힌 행렬(10:5-7), 일에 갇든 위험과 날 갈기(10:8-10), 자기를 삼키는 입술(10:12-14)과 두 나라의 아침(10:16-17)이 놓이고, 심중의 말까지 새가 전하는(10:20) — 헛됨의 세계 안 작은 지혜들의 잠언 모음"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7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여섯 묶음 배열 + 9:18 경첩 + 16~17절 거울 대구 + ANE 뒤집힌 세계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0:1의 비대칭을 '작은 죄도 조심하라'는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9:18과 이어지는 저울 관찰과 어순(파리가 주어)의 사실로만 둬.
- 10:5-7의 뒤집힌 행렬을 특정 정치 질서의 옹호나 비판으로 단정하지 않고, "내가 보았노니"라는 관찰자 시선의 기록으로 보존.
- 10:8-9를 잠 26:27식 인과응보 교리로 봉합하지 않고, 도덕 평가가 비워진 직업 위험 목록이라는 문형 차이의 관찰로 둬.
- 10:19의 돈 문장을 배금주의 비판 설교로 확장하지 않고, 반어인지 사실 묘사인지 표정이 비워진 미해결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전도서 10장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10:1)는 비대칭의 법칙으로 9:18의 저울을 이어받은 뒤, 분노 앞에서 제 곳(maqom)을 지키는 처신(10:4)과 종이 말 타고 고관이 걷는 뒤집힌 행렬(10:5-7), 일 자체에 갇든 네 가지 위험과 날 갈기의 지

해(10:8-10), 자기를 삼키는 우매자의 입술(10:12-14), 화와 복이 식탁의 시각으로 갈리는 두 나라의 아침(10:16-17), 그리고 심중의 말까지 새가 나르는 세계(10:20)를 잠언풍의 짧은 문장들로 늘어놓는 — 헛됨의 세계 안에서도 유효한 작은 지혜들의 모음이다.

한 문단: 향유 가게의 어두운 실내에서 시작한다. 호박색 기름 위에 검은 점 몇 개가 떠 있고, 코를 찌르는 냄새와 함께 법칙 하나가 선언된다 — 작은 것이 큰 것을 망친다. 길 위에서 한 사람이 걸음마다 제 우매를 광고하고, 궁정에서는 한 신하가 주권자의 분노 앞에서 떠나려던 발을 제 곳에 도로 내려놓는다. 성문 길가로 뒤집힌 행렬이 지나간다 — 말 위에는 종들, 먼지 속에는 고관들. 화면은 화내지 않고 바라본다. 공사장과 벌목장에서 함정과 뱀과 돌과 나무가 일하는 사람을 위협하는데, 본문의 처방은 일을 그만두라가 아니라 날을 갈라는 것이다. 숯돌 소리가 깔리고, 술객이 입을 떼기 전에 뱀이 먼저 물고, 우매자의 입술이 제 주인을 삼킨다. 잔칫상 돌이 지나간다 — 아침부터 기울어진 술잔과 정한 때의 식탁. 서까래가 내려앉고 지붕이 새고, 마지막은 침실이다. 어둠 속 입술이 달짝이는 소리를 창턱의 새 한 마리가 물고 날아오른다 — 심중의 말까지 새는 세계에서, 10장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한 컷짜리 무대 열 개의 콜라주(향유 가게→궁정→일터→잔칫상→침실). 성전 기물 없는 생활의 소품들. 작은 쪽으로 기운 저울.
2 첫 느낌·분위기	약취로 열려 소리로 번지는 장. 부엌에서 확인되는 10절. 길가의 차분한 "보았노니". 16~17절에서만 오르는 온도.
3 시작과 끝	죽은 파리(1절)로 열고 날개 가진 전령(20절)으로 닫힘. 시작은 냄새, 끝은 소리 — 막을 수 없이 새는 것들의 수미.
4 등장인물·사상	지혜자·우매자·주권자·일꾼들·술객·두 왕·새.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 드문 장. 중심 사상은 비대칭과 정비.
5 장면 컷	여섯 컷(법칙/궁정/일터/입/나라와 집/침실). 뱀과 말 잠언의 경첩, 16~17절의 거울 대구.
6 의문·발견·정보	yitron의 강하(1:3→10:10-11). qahah — 무더지는 날과 시려지는 이. gummats 단독 출현. 화/복을 가르는 식탁의 시각.
7 동영상	기름 위 검은 점 → 뒤집힌 행렬 → 숯돌 소리 → 두 개의 식탁 → 새는 지붕 → 말을 물고 날아오르는 새, 암전.
8 초벌 제목·부제	"죽은 파리의 저울 — 날을 가는 시간"
9 기도·내면	무더진 채 힘만 쓰던 연장을 본다. marpe — 고침의 어근을 가진 공순함만 쥐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비대칭의 법칙, 파리와 기름: 한쪽 접시에 파리 몇 마리, 다른 쪽에 향 제조자의 기름 한 병 — 저울은 파리 쪽으로 기운다. 9:18이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느니라"로 말한 무게의 산수를 10:1이 곤충과 기름으로 다시 말하고, 18절이 놓아 버린 손과 내려앉은 서까래로 한 번 더 말한다. 무너뜨리는 데는 한 마리면 충분하고 세우는 데는 평생이 든다는 이 안 맞는 산수가, 장 전체의 잠언들을 떠받치는 법칙이다.

2. 결 2 — yitron의 강하, 결산어가 연장의 날로: 1:3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결산을 묻던 단어 yitron이, 10:10~11에서는 갈리지 않은 날과 때늦은 주술의 이득 계산에 두 번 쓰인다. 우주 규모의 질문이

답을 받기 전에, 그 질문의 단어가 손바닥 크기의 지혜에 먼저 쓰이는 것이다. 결산이 끝나지 않은 세계에서도 작은 흑자는 계산된다 — 숫돌 앞에 앉는 시간이 그 흑자다.

3. 절 3 — 새는 것들, 냄새에서 말까지: 악취는 병을 막아도 새고(1절), 집은 손을 놓은 만큼 새고(18절), 말은 침실 문을 닫아도 샌다(20절). 막을 수 없이 퍼지는 것들이 장의 양 끝과 한가운데를 지킨다. 그래서 이 장의 지혜는 거창한 체계가 아니라 새는 곳을 막는 동작들이다 — 날을 갈고, 제 곳을 지키고, 말을 아끼고, 정한 때에 먹는 것.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전 9:18 —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뜨림 — 10:1과 같은 저울의 두 문장, 장 경계가 끊은 한 호흡.
- 잠 26:27 — 함정을 파는 자가 그것에 빠짐 — 같은 문형이 인과응보에서 중립적 위험 관찰로 옮겨 앉는 거리.
- 잠 30:21-23 · 사 3:4-5 — 종이 임금됨, 아이들이 고관이 됨 — 뒤집힌 질서의 그림들.
- 잠 16:14 · 전 8:2-4 — 왕의 진노 앞의 처신 — 10:4의 머무름과 닿는 궁정 지혜.
- 렘 31:29-30 · 겔 18:2 — 이가 시다 — 무더지는 날(qahah)과 같은 동사의 다른 출현.
- 시 58:4-5 — 술객의 소리를 듣지 않는 독사 — 10:11의 뱀과 주술의 배경 그림.
- 잠 19:13 · 27:15 —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delef) — 10:18 새는 집의 정경 내 친족.
- 전 1:3 — yitron의 강령 질문 — 10:10-11에서 실무 규모로 재등장.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0:1에서 시작한다 — 내 평생의 존귀가 파리 한 마리 무게의 우매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산수를 받아 든다.
- **멈춤 1:** 10:4에서 멈춘다 — 분노 앞에서 떠나고 싶었던 날들. 머무는 발이 고침(marpe)의 동작이라는 문장 앞에 선다.
- **멈춤 2:** 10:10에서 멈춘다 — 무더진 줄 알면서 힘으로만 밀던 내 연장들. 숫돌 앞에 앉는 시간이 흑자라는 계산을 처음 해 본다.
- **끝:** 10:12와 20절 사이에서 멈춘다 — 같은 입이 은혜의 통로도 되고 제 주인을 삼키는 입구도 된다. 심중의 말까지 새는 세계에서, 오늘 내 입의 장부를 들여다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여섯 묶음(1~3/4~7/8~11/12~15/16~19/20)의 모음 구조 완결
- [x] 9:18과의 경첩 + 1:3 yitron의 재등장 — 권 안의 자기 인용 확인
- [x] 죽은 파리(1절)와 날개 가진 전령(20절)의 틀
- [x] 16~17절 거울 대구와 18~19절 집의 그림
- [x] 새는 것들(악취·지붕·말)의 분포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전도서의 spine은 '해 아래 모든 것의 헛됨을 정직히 통과시켜,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닻에 이르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12:13)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헛됨의 실험(1~2장), 때와 분깃과 하나님의 선물(3~11장),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결론(12장)으로 움직이는데, 10장은 둘째 국면의 끝머리 — 결론을 두 장 앞둔 곳에서 일상의 연장들을 정비하는 장이다. 주목할 사실은 이

장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 속에서, 9:18부터 이어지는 비대칭의 법칙과 뒤집힌 행렬의 관찰이 12장의 결론을 준비한다 — 지혜가 파리 한 마리에게도 지는 세계, 자격과 배치가 어긋나는 세계를 정직하게 측량해 두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닳이 값싼 낙관이 아니라 그 세계 전부를 통과한 결론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완전한 회복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사는 사람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를 이 장이 보여 준다 — 갈아 둔 낱, 지킨 위치, 아낀 말. 작은 정비들이 큰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의 충실인 셈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대칭 법칙의 선언(10:1)에서 정비의 동작들(10:4·10·12·18)로 / 나라와 궁정의 큰 화면(10:5·7·16-17)에서 연장의 날과 심중의 말 한 줄(10:10·20)로 / 9:18의 저울에서 11:1의 모험("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0장은 '깨지기 쉬운 줄 알면서도 알아 두는' 운동이다. 지혜의 패배 가능성(파리 한 마리면 충분하다)을 먼저 선언해 놓고, 그 위에 날 갈기와 머무름과 말 아낌의 권면을 쌓는다. 패배 선언과 권면 사이의 아홉 절이 이 장의 긴장이고, 본문은 그 긴장을 풀지 않은 채 다음 장으로 넘긴다 — 정비가 끝난 손에 11장이 쥐여 주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물 위에 던지는 떡, 알 수 없는 세계 앞의 모험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쓴 관찰의 연속이다 — 파리가 기름을 이기고, 우매한 자가 높은 데 앉고, 돈이 모든 것에 응답한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이 쓴 목록의 한가운데에 다정한 동작들이 심겨 있다. 날을 갈아라, 네 곳을 떠나지 말라, 정한 때에 먹어라 — 세계가 뒤집혀 있다는 보고와 그 세계 안에서 오늘 할 수 있는 동작의 목록이 한 장에 같이 있다. 절망의 문법이 아니라 정비의 문법이다. 둘째, 4절의 공순함(marpe)이고침(rapha)의 어근을 가진다는 사실이 이 정비의 결을 보여 준다 — 분노 앞의 머무름은 굴종이 아니라 치료의 동작으로 그려져 있다. 큰 허물이 가라앉는 것은 떠나는 발이 아니라 머무는 발 아래에서다. 셋째, yitron의 강하가 있다. 해 아래 모든 수고의 결산이라는 우주 규모의 질문이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채로, 그 질문의 단어가 연장 한 자루의 이득 계산에 쓰인다. 큰 결산이 열려 있는 동안에도 작은 흑자는 오늘 계산된다는 것 — 본문은 그 가능성을 명제로 발설하지 않은 채, 다만 숫돌 앞에 앉은 사람을 보여 주는 데서 멈춘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무더진 줄 알면서 힘으로만 밀고 있는 날을 몇 자루나 들고 있는가. 분노 앞에서 떠나려던 내 발은, 머무름이 고침의 동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완벽한 방어를 약속하지 않는다 — 파리 한 마리면 평생의 향기름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해 둔다. 그러나 그 비대칭의 세계에서 본문이 보여 주는 사람들은 무력하지 않다. 한 신하가 떠나려던 발을 도로 내려놓고, 한 일꾼이 솥돌 앞에 앉고, 한 지혜자가 은혜로운 말을 고른다.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이 갈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 것 — 그 작은 충실들이 12장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의 삶이다. 새는 세계에서 새는 곳을 막는 손, 그 손의 동작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정비를 마친 손에 전도자는 안전 대신 모험을 쥐여 준다 —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11:1), 알 수 없는 세계 앞의 분산과 파종이 시작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arpe* — 고침의 어근을 가진 공순함, 분노 앞에 머무는 발.

미해결 질문

전도서 1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zevuve mavet(10:1) — 죽은 파리들인가, 죽음을 가져오는 파리들인가?

- '죽음의 파리들'이라는 연계형이 양쪽으로 열려 있고, LXX는 '죽게 하는 파리들'(μυῖαι θανατοῦσαι) 쪽을 택했다. 이미 죽어 떠 있는 것의 그림과 죽음을 옮기는 것의 그림은 같은 문장을 다르게 움직인다. 보존.

Q2. 10:2의 오른쪽·왼쪽 — 이 방향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몸의 심장은 누구에게나 왼쪽 가까이에 있는데 본문은 방향으로 무언가를 말한다. 힘의 손인지, 보호의 방향인지, 길에서 갈리는 좌우인지 — 본문이 풀어 주지 않는다. 후대 상징 해석은 배경으로만 두고 보존.

Q3. 10:19 "돈은 뱀사에 이용되느니라" — 반어인가 사실 묘사인가?

- 직역은 '돈이 모든 것에 응답한다(anah)'. 풍자로 읽으면 쓰게 웃기고 관찰로 읽으면 서늘하게 정확하다. 본문이 표정을 보여 주지 않으므로, 잔치와 포도주의 용도 관찰 곁에 표정 없이 보존.

Q4. 10:5-7의 뒤집힌 행렬 — '재난'이라 부른 이 시선은 무엇을 지키려는가?

- 종이 말을 타고 고관이 걷는 광경을 본문은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부른다. 기존 질서의 옹호인지, 자격과 배치가 어긋난 세계의 관찰인지 — "내가 보았노니"의 자세만 확실하다. 잠 30:21-23과의 당음과 함께 보존.

Q5. 10:8-9의 위험 목록 — 잠 26:27의 인과응보와 어디서 닿고 어디서 갈라지는가?

- 같은 함정 문형이 잠언에서는 악인의 응보, 여기서는 도덕 평가 없는 직업 위험이다. 한 정경 안에서 같은 그림이 두 결로 쓰이는 폭 — 어느 쪽도 누르지 않고 두 본문의 대면 자체를 보존.

Q6. 10:20 — 심중(madda)의 말까지 새는 세계에서, 새는 누구의 전령인가?

- 침실의 말을 나르는 날개 가진 것이 비유인지 경구인지, 그 전언이 닿는 곳이 어디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막을 수 없이 퍼지는 것들(악취·말)의 관찰로만 두고, 전령의 정체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전도서 11장

ECC-011 · 시가서 · 히브리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11:1)의 떠나보냄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11:6)의 파종 사이에서 '알지 못함'이 네 번 울리며 중단이 아니라 계속의 근거로 뒤집히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11:7)의 단순한 기쁨과 심판의 인식(11:9)이 한 호흡에 놓이는 — 12장의 '기억하라'로 건너가기 직전, 둘째 국면을 닫는 행동 강령.

관찰된 사실

전도서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의 이동: 물가(1~2절) → 파종기의 들판(3~6절) → 해 아래 한 사람의 몸(7~10절). 바다에서 들로, 들에서 청년의 얼굴로 줌인.
- 보이지 않는 두 공간: 바람이 지나가는 길과 아이 밴 이의 태 속(5절) —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
- 소품(떠나보내는 것): 수면 위로 가는 떡(1절), 일곱·여덟로 나뉘는 몫(2절), 아침저녁의 씨앗 주머니(6절).
- 소품(자연): 비를 가득 머금은 구름,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 나무(3절), 길을 알 수 없는 바람(5절).
- 소품(감각·몸): 해를 보는 눈(7절), 즐거워하는 마음(9절), 근심이 떠나야 할 가슴과 검은 머리(10절).
- 소재의 두 무더기: 손에서 떠나보내는 것들(떡·몫·씨) 對 손이 닿을 수 없는 것들(바람·태의 뻐·다가올 일·재앙). 사람의 몫은 떠나보내는 동작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명령들이 짐을 지우지 않고 내려놓게 함 — 던져라·나누라·뿌리라가 등을 미는 소리로 들림. '둘 다 해 보라'(6절)에는 실패를 미리 용서한 너그러움.
- '알지 못함' 네 번(2·5·5·6절)이 겁이 아니라 허락처럼 들림 — 모름이 핑계가 아니라 출발 신호가 되는 공기.
- 3절(법칙대로 움직이는 자연)과 4절(하늘만 보며 멈춘 사람)의 대비 — 자연은 전부 움직이는데 사람만 정지.
- 7절 matoq haor — '빛은 달다'. 빛을 혀로 맛보는 감각. 권 전체에서 가장 단순하고 따뜻한 문장.
- 9절 한 문장 안의 온도차: "행하라"(따뜻)와 "심판하실 줄 알라"(서늘)가 접속사 하나로 이어지는 균형.
- 8·10절의 hevel — 1:2의 진단이던 단어가 여기서는 '즐거워하라·근심을 떠나보내라'의 이유로 쓰임. 같은 단어의 온도 변화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shallach lachmekha)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 10절: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 손의 명령으로 열고 시간의 진단으로 닫힘 — 그런데 닫는 hevel은 10절 상반절의 명령(근심을 떠나게 하라)을 받치는 이유절. 진단이 명령을 섬기는 배열.
- 던짐과 찾음 사이의 '여러 날'(1절) — 언제·어떻게인지 말하지 않는 공백을 본문이 메우지 않음.
- 앞머리(1~6절)는 '내보내라'의 묶음, 뒷머리(7~10절)는 '받아 누리라'의 묶음 — 내쉬는 숨과 들이쉬는 숨의 짜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너'(2인칭 단수 — 권에서 가장 길게 정면 호명되는 독자), 풍세를 살펴보는 자·구름만 바라보는 자(4절 — 익명의 두 정지 인물), 아이 밴 이(5절), 청년(9절 — 유일한 호격), 하나님(5절 '만사를 성취하시는' + 9절 '심판하실' — 두 번 등장).
- 중심 사상: '알지 못함'의 분포 — 2절(재앙을 모르니 나누라), 5절(바람·태를 모르듯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 6절(어느 쪽이 잘 될지 모르니 둘 다 하라). 무지가 행동 중단이 아니라 행동 확대의 사유로 배열됨.
- 4절의 논리: 살핌(shomer) 자체가 마비가 되는 인과 — 정보를 더 모으는 동작이 파종과 수확을 막음. 이 장에서 유일하게 부정 동사로 닫히는 절.
- 5절의 두 그림: 바람의 길(보이지 않는 바깥의 운동)과 태 속의 빠(보이지 않는 안쪽의 자람) — 둘 다 모르지만 둘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 9절의 동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 "심판하실 줄 알라" — 자유와 책임이 한 문장에. 민 15:39과의 표면적 긴장은 미해결로.
- kaas의 이동: 1:18에서 지식과 함께 늘어나던 번뇌가 11:10에서는 '떠나게 하라'의 목적어로 — 같은 단어의 역할 전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물가의 떠나보냄 — 떡을 수면 위로, 몫을 일곱·여덟에게. 이유는 '재앙을 알지 못함'.
- 컷 2 (3~6절): 파종기의 들판 — 법칙대로 움직이는 구름·나무(3절), 멈춘 농부(4절), 두 불가지(5절), 아침저녁의 파종 명령(6절).
- 컷 3 (7~8절): 해 아래의 빛 — 달콤한 빛과 해를 보는 눈(7절), 즐거움과 캄캄한 날들의 기억을 함께 쥐는 균형(8절).
- 컷 4 (9~10절): 청년을 향한 부름 — 즐거워하라·행하라·알라(9절), 근심을 떠나보내라·다 헛되니라(10절).
- 컷 2 내부 구조: 자연 격언 쌍(3절)과 사람의 정지(4절)가 마주 보고, 5절이 '알지 못함'의 천장을 치고, 6절이 1절의 명령으로 되돌아오는 고리. 아침·저녁은 양 끝으로 전체(온종일)를 말하는 어법.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shallach lachmekha*(שָׁלַח לַחֲמֶךָ) — '네 떡을 떠나보내라'. shalach 파엘은 보냄·파송의 동사. LXX ἀπόστειλον(보내라).
- *al-pene hammayim*(עַל-פְּנֵי הַמַּיִם) — 물의 얼굴 위에. 창 1:2의 '수면 위에'와 동일 어구 — 형태 관찰만.
- *ten chelek*(תֵּן חֶלֶק) — 몫을 주라. chelek은 전도서의 '분깃' 핵심어(2:10, 3:22, 5:18, 9:9). / *raah*(רָאָה) — 재앙·재난.
- *shomer ruach*(שׁוֹמֵר רוּחַ) — 바람을 지켜보는 자. / *roeh beavim*(רֹאֶה בְּעָבִים) — 구름을 바라보는 자. 4절.

- *atsamim*(אֲצָמִים) — 뼈들. / *beten hamleah*(בִּטְנֵי הַמֶּלֶךְ) — 가득 찬 태. 5절.
- *boqer*(בֹּקֶר) · *erev*(עֶרֶב) — 아침·저녁. 창 1장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떠올리게 하는 짝 — 배경만.
- *matoq haor*(מָתוֹק הָאוֹר) — '빛은 달다'. 개역 '아름다운 것이라' 아래의 미각 은유. 7절.
- *samach*(שָׂמַח) — 즐거워하다. 8·9절 집중. / *yaldut*(יָלְדוּת) — 어린 때. / *bechurot*(בְּחֻרוֹת) — 청년의 날들.
- *shacharut*(שַׁחְרֻת) — 구약 단 1회 어휘(hapax). 어근을 *shachor*(검다)로 읽으면 '검은 머리 시절', *shachar*(새벽)로 읽으면 '인생의 새벽'. LXX는 *ἄνοια*(어리석음). 번역 폭이 곧 미해결의 기록.
- *kaas*(כָּאָס) — 근심·속 끓음. 1:18의 '번뇌'와 같은 단어가 11:10에서 떠나보내라 명령됨. / *mishpat*(מִשְׁפָּט) — 심판. 9절(3:17·12:14와 같은 단어).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명령문의 행렬: 던져라·나뉘 줄지어다·뿌리고·농지 말라·즐거워할지로다·생각할지로다·행하라·알라·떠나게 하며·물러가게 하라 — 열 절에 명령형 열 개 이상. 보고서의 책이 강령의 문제로 전환.
- 무지 후렴 4회(2·5·5·6절): 모두 *ki*(왜냐하면)나 비교 구문으로 명령에 묶임 — '모르기 때문에 하라'의 인과. 상식의 역방향.
- 4절의 거울상: 무지를 받아들인 자는 명령을 받고, 무지를 없애려 살피는 자는 부정문(파종하지 못함·거두지 못함)을 받는 대조 설계.
- 1절(던져라)과 6절(뿌리라)의 고리, 8·10절의 *hevel* 후렴, 9절의 즐거움-심판 병치 — 앞머리와 뒷머리가 각각 수미를 갖추.
- 숫자 사다리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x/x+1) — 욥 5:19·잠 30장·암 1~2장·미 5:5와 같은 점층 병행의 꼴.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이집트 앙크세송크의 교훈 — "선을 행하고 그것을 물에 던져라. 물이 마르면 너는 그것을 찾으리라" — 11:1의 가장 가까운 근동 평행구, 배경.
- 지중해 해상 곡물 무역 — 떠나보낸 곡물이 여러 날 뒤 이문으로 돌아오는 관행(왕상 10:22 다시스 배), 11:1~2의 상업 배경.
- 근동 농사력 — 이른 비(10~11월) 전후 파종기의 기상 관찰 관행, 11:4의 배경.
- 후대 미드라쉬(전도서 랍바)는 11:1을 자선·환대의 권면으로 읽는 전통을 기록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 LXX: *shallach* → *ἀπόστειλον*(보내라), *shacharut* → *ἄνοια*(어리석음), 11:5 '바람의 길' → *ὁδὸ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 번역 폭의 증거,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전 11:9 ↔ 전 12:1 (청년이여 ↔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 호명이 곧바로 이어지는 문턱)
- 전 11:5 ↔ 전 1:6 (길을 알 수 없는 바람 ↔ 이리 돌며 저리 돌던 바람 — 같은 *ruach*의 두 쓰임)
- 전 11:10 ↔ 전 1:18 (*kaas* — 떠나보내라 명령되는 근심 ↔ 지식과 함께 늘어나던 번뇌)
- 전 11:6 ↔ 전 9:10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 전 11:1 ↔ 창 1:2 (*al-pene hammayim* — 물의 얼굴 위에, 동일 어구의 형태 관찰)
- 전 11:1~2 ↔ 잠 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 — 관용 독법의 정경 배경)

- 전 11:6 ↔ 시 126:5-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 전 11:5 ↔ 요 3:8 (바람이 임의로 불매 — ruach/pneuma의 어휘망, 배경)
- 전 11:8 ↔ 전 7:14 (형통한 날의 기쁨과 곤고한 날의 돌아봄 — 같은 균형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새벽 물가 — 한 사람이 손을 펴서 떡을 수면 위로 떠나보낸다. 자막 —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공간이 열리고 뭇이 일곱으로, 여덟로 나뉜다 —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늘에서 구름이 차서 쏟아지고,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져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다. 들판의 농부는 씨 주머니를 멘 채 하늘만 올려다 보고, 그러는 동안 계절이 지나가고 밭은 빈 채로 남는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두 개의 보이지 않는 것 — 들판을 지나는 바람의 길, 태 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는 뼈. 내레이션 —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새벽 밭에 씨가 뿌려지고, 해가 기울고, 같은 손이 저녁에도 씨를 뿌린다. 해가 떠오르고 빛이 눈에 닿는다 —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 얼굴 위로 캄캄한 날들의 그림자가 스치지만 얼굴은 빛을 향해 있다. 길 위의 청년 — 검은 머리가 날리고 걸음이 활짝 열리는데, 자막 하나가 조용히 따라붙는다 —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걸음은 멈추지 않고 깊어진다. 가슴에서 근심이 안개처럼 빠져나가고, 시간이 검은 머리 위로 빠르게 흐른다 — 헛되니라. 화면이 다 어두워지기 전, 다음 장의 첫 마디가 예고처럼 떠오른다 —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모르므로, 뿌린다 — 무지가 파종의 근거가 되는 아침과 저녁"
- 초벌 부제: "떡을 물 위로 떠나보내고(shallach) 뭇을 일곱과 여덟에게 나누며 아침저녁으로 씨를 뿌리는 명령들이 전부 '알지 못함'을 이유로 세워지고, 달콤한 빛(matoq haor)과 심판의 인식이 한 호흡에 놓이는 — 12장의 '기억하라'로 건너가기 직전의 행동 강령"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1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명령문 행렬 + 무지 후렴 4회의 인과 + 숫자 사다리 + 앙크세송크·해상 무역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1:1을 자선 교리나 현금 권면으로 단정하지 않고, 해상 무역·관용·파종의 세 독법이 갈라지는 번역 폭과 '떠나보냄'이라는 공통 동작의 관찰로만 둬.
- 11:9의 심판 절을 쾌락 경고의 설교로 만들지 않고, 즐거움의 명령과 심판의 인식이 한 문장에 동거하는 병치의 관찰로 보존.

- '알지 못함'의 역전을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교훈으로 봉합하지 않고, 무지가 명령의 이유 위치에 놓이는 문법 현상의 관찰로 둬.
- 11:5의 ruach를 요 3:8의 성령론으로 확장하지 않고, 바람·영의 이중성이 두 본문에서 같은 어휘망에 놓인다는 배경 관찰로만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전도서 11장은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11:1)는 떠나보냄의 명령으로 열려, 일곱과 여덟에게 몫을 나누고(11:2) 풍세를 살피느라 멈추지 말고(11:4) 아침에도 저녁에도 씨를 뿌리라(11:6)는 강령을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라는 네 번의 이유 위에 세운 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11:7)의 단순한 기쁨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11:9)의 인식을 청년에게 한 호흡으로 건네는 — 둘째 국면을 닫고 12장의 '기억하라'로 건너가는 행동 강령이다.

한 문단: 새벽 물가에서 한 손이 퍼진다. 떡이 수면 위로 떠나가고, 자막처럼 약속이 걸린다 —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곳간의 몫이 일곱으로 나뉘고, 망설임 끝에 여덟 번째가 떨어져 나간다 —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은 차면 쏟아지고 나무는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데, 들판의 농부 한 사람만 하늘을 살피느라 멈춰 있다. 그가 바람을 재는 동안 계절이 지나가고 밭은 빈 채로 남는다. 화면이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겹쳐진다 — 들판을 지나는 바람의 길, 태 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는 뼈. 둘 다 모르지만 둘 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해가 떠오르고 빛이 달게 눈에 닿는다. 캄캄한 날들의 그림자가 스쳐도 얼굴은 빛을 향한다. 길 위의 청년에게 마지막 부름이 닿는다 —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라, 다만 네 걸음이 보이고 있음을 알라. 근심이 가슴에서 안개처럼 빠져나가고, 검은 머리 위로 시간이 흐른다 — 헛되니라. 그리고 어두워지는 화면 너머로 다음 장의 첫 마디가 떠오른다 —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물가 → 파종기의 들판 → 청년의 몸으로 이동하는 무대. 떠나보내는 소품(떡·몫·씨)과 닿을 수 없는 영역(바람·태의 뼈). 5절의 보이지 않는 두 공간.
2 첫 느낌·분위기	짐을 내려놓게 하는 명령들. '알지 못함'이 허락처럼 들리는 공기. 혀로 맛보는 빛(matoq). 9절 한 문장 안의 온도차.
3 시작과 끝	"던져라"(1절)에서 "헛되니라"(10절)로 — 진단이 명령을 받치는 배열. 던짐과 찾음 사이 '여러 날'의 공백. 내보냄(1~6)과 누림(7~10)의 두 묶음.
4 등장인물·사상	정면 호명되는 '너', 멈춘 두 익명 인물(4절), 호격의 청년, 두 번 등장하시는 하나님(이루시는 분·물으실 분). 무지가 행동 확대의 사유로 배열되는 중심 사상.
5 장면 컷	물가(1~2)/들판(3~6)/빛(7~8)/청년(9~10)의 4컷. 컷 2 내부의 고리 — 자연 격언과 정지한 사람, 무지의 천장, 1절로 되돌아오는 6절.
6 의문·발견·정보	무지 후렴 4회의 문법(모르므로 하라). 4절의 거울상. samach의 물림 — 시험이던 즐거움이 명령으로. shacharut의 번역 폭. 앙크세송크 평행구.

단계	핵심 발견
7 동영상	퍼지는 손 → 멈춘 농부 → 두 불가지 → 아침저녁의 파종 → 달콤한 빛 → 깊어지는 걸음 → 12장의 예고.
8 초별 제목·부제	"모르므로, 뿌린다 — 무지가 파종의 근거가 되는 아침과 저녁"
9 기도·내면	네 번의 '알지 못함'을 듣고, 던지지 못한 떡과 뿌리지 못한 씨가 남은 손을 그대로 보여 드리며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lo teda, 무지의 역전:**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가 열 절 안에 네 번 올린다(2·5·5·6절). 상식의 문법에서 모름은 멈춤의 이유인데, 이 장의 문법에서 모름은 명령의 이유다 — 재앙을 모르므로 한 곳에 걸지 말고 여덟 곳에 나누고, 어느 씨가 잘 될지 모르므로 아침에도 저녁에도 뿌린다. 그리고 4절이 이 역전의 거울상을 세운다. 무지를 없애려고 풍세를 살피는 사람만이 끝내 뿌리지도 거두지도 못한다. 모름을 받아들인 손은 움직이고, 다 알려는 눈은 멈춘다 — 한 장이 두 인물로 그려 낸 대조다.
- 결 2 — 내보냄과 누림, 두 명령의 한 몸:** 앞머리(1~6절)는 전부 손에서 내보내는 명령이고 — 떡을, 몫을, 씨를 — 뒷머리(7~10절)는 전부 받아 누리는 명령이다 — 빛을, 여러 해를, 어린 때를. 떠나보내는 손과 즐거워하는 마음이 한 사람 안에서 호흡처럼 짝을 이룬다. 내쉬지 않는 숨이 들이쉴 수 없듯, 던지지 않는 손은 7절의 달콤함에 닿지 못하는 배열 — 본문은 이 순서를 설명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 늘어놓는다.
- 결 3 — matoq haor, 해의 온도 변화:** '해 아래(tachat hashamesh)'는 1장부터 수고와 결산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11:7에서 그 해가 처음으로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 — 빛은 달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겁다. 아무것도 거두기 전에, 돌려받기 전에, 그저 빛이 눈에 닿는 것만으로 충분한 기쁨. 권 전체에서 가장 단순한 이 문장이 8절의 균형(즐거움과 캄캄한 날들의 기억을 함께 짐)과 9절의 동거(행하라와 알라)를 받치고 있다. hevel(8·10절)조차 여기서는 '그러니 깨어 즐거워하라'의 이유가 된다 — 같은 단어들의 온도가 출구 직전에서 바뀌어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전 12:1 —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 11:9의 호명이 곧바로 이어지는 문턱.
- 전 1:6 ↔ 11:5 — 이리 돌며 저리 돌던 바람이 길을 알 수 없는 바람으로 — 같은 ruach의 두 쓰임.
- 전 1:18 ↔ 11:10 — 지식과 함께 늘어나던 kaas(번뇌)가 떠나보내라 명령되는 근심으로.
- 전 9:10 —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 11:6의 손과 마주 봄.
- 창 1:2 — 수면 위에(al-pene hammayim) — 11:1과 동일 어구의 형태 관찰.
- 잠 19:17 —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 — 관용 독법의 정경 배경.
- 시 126:5-6 —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 요 3:8 — 바람이 임의로 불매 — 11:5의 ruach와 닿는 어휘망,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1:1의 첫 동사에서 시작한다 — 던져라. 권 내내 결산하던 책이 내 손에게 처음으로 시키는 동작이 '퍼는 것'임을 몸으로 듣는다.
- **멈춤 1:** 11:4에서 멈춘다 — 풍세를 살피보는 자. 더 알아본 다음에 하겠다는 내 미쁨이, 성실의 얼굴을 한 마비였는지 들여다보게 된다.

- **멈춤 2:** 11:5에서 멈춘다 — 바람의 길과 태의 뼈. 모른다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들을 헤아린다.
- **끝:** 11:7과 11:9 사이에서 멈춘다 — 달콤한 빛과 심판의 인식. 거두기 전의 기쁨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과 내 걸음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같이 진다.

F · 자족성 점검

- [x] 떠나보냄(1~2)·자연 격언과 정지(3~4)·두 불가지(5)·파종(6)·빛과 균형(7~8)·청년 부름(9~10)의 여섯 단 완결
- [x] 무지 후렴 4회(2·5·5·6절)와 명령들의 인과 결속
- [x] 1절(던져라)과 6절(뿌리라)의 고리, 8·10절 hevel의 후렴
- [x] 내보냄(1~6)과 누림(7~10)의 두 묶음 대응
- [x] 11:9의 호명이 12:1로 건너가는 문턱 확인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전도서의 spine은 '해 아래 모든 것의 헛됨을 정직히 통과시켜,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닻에 이르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12:13)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헛됨의 실험(1~2장), 때와 분깃과 하나님의 선물(3~11장),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결론(12장)으로 움직이는데, 11장은 둘째 국면의 마지막 장 — 선물의 신학이 강령의 문체로 바뀌어 독자의 손에 쥐어지는 출구다. 1장이 '해 아래'라는 실험 조건을 세우고 모든 결산을 적자로 기록했다면, 11장은 그 적자의 장부를 다 통과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명령들을 발행한다 — 던지라, 나누라, 뿌리라, 즐거워하라. 주목할 것은 이 명령들의 토대가 확실성이 아니라 무지라는 사실이다. 권 전체가 쌓아 온 '알 수 없음'(3:11, 6:12, 8:17)이 여기서 처음으로 행동의 근거로 뒤집힌다 —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몫의 파종을 계속할 수 있다(11:5~6).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먹고 마심을 선물로 주시는 너그러움(2:24, 3:13, 5:19)이 이 장에서 명령의 형태로 완성되고, 그렇게 비워지고 채워진 청년이 12:1의 부름 — 창조주를 기억하라 — 앞에 세워진다. 11장 없이 12장으로 건너뛰면 경외는 행동 없는 관념이 되었을 것이다. 이 장은 경외가 손과 발의 일이 되도록 마지막 디딤돌을 놓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찰의 보고서("내가 보았노라")에서 파종의 강령("너는 뿌려라")으로 / 움켜쥐려던 손(1장 reut ruach)에서 떠나보내는 손(11:1 shallach)으로 / '알지 못함'이 마비의 사유에서 분산과 계속의 근거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1장은 무지를 행동의 토대로 뒤집는 운동이다. 풍세를 살피는 자의 정지(11:4)와 아침저녁으로 뿌리는 자의 계속(11:6)이 같은 무지 위에 서 있는데, 한쪽은 무지를 엮어려다 멈추고 다른 쪽은 무지를 받아들이고 움직인다. 이 갈림이 권의 출구를 결정한다 — 모름을 끌어안고 뿌리는 사람만이 7절의 달콤한 빛에 닿고, 9절의 자유와 책임을 한 손에 쥐고, 12장의 '기억하라' 앞에 설 수 있다. 11장의 벡터는 전권을 '정직한 적자의 직면에서 경외라는 닻으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마지막 직선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농부와 상인의 처세훈 같다 — 위험을 분산하라, 부지런히 일하라, 젊을 때 즐겨라.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모든 명령의 이유절이 같은 한 문장으로 수렴한다 —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그 무지의 한가운데 5절이 닻을 내린다: 바람의 길과 태의 뼈를 모르듯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의 일"을 모른다. 모름의 자백이 곧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의 자백이 되는 구조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람은 불고 있고 빠는 자라고 있다. 둘째, 떠나보냄이 신뢰의 동작이라는 결이 있다. 떡을 물 위로 보내는 손은 '여러 날'이라는 공백을 자기 계산으로 메우지 않는다. 돌아오는 시간도 모양도 모르는 채 보내는 동작 자체가, 성취하시는 분에 대한 몸의 언어다. 셋째, 즐거움이 명령이 되는 전환이 있다. 2장에서 시험삼아 마셔 본 즐거움은 헛되다고 결산되었지만, 11장의 즐거움은 거두기 전의 빛을 그저 받는 기쁨이다 — 소유에서 나오지 않고 선물로 닿는. 본문은 이 셋을 묶어 설교하지 않는다. 다만 모르는 채로 뿌리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한 사람의 그림을 완성해 두고, 그를 12장의 부름 앞에 세운 채 멈춘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지금 풍세를 살피고 있는가, 뿌리고 있는가. 다 알게 될 때까지 미뤄 둔 나의 떡과 씨는 어디에 쌓여 있는가 — 그리고 모르는 채로 떠나보낸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무모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차면 쏟아지는 구름과 쓰러진 채 그대로 있는 나무를 보여 주고, 하늘만 살피다 빈 밭 곁에 선 농부를 보여 주고, 아침과 저녁에 같은 손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림 곁에 한 절을 남겨 둔다 —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계시다는(11:5). 모름이 신뢰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면, 독자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고 오늘의 파종을 시작할 수 있다. 빛은 달고, 해를 보는 눈은 즐겁고, 걸음은 보이고 있다 — 그 셋을 같이 쥐는 깨어 있음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손과 마음을 비운 청년에게 마지막 부름이 닿는다 —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12:1), 은줄이 풀리기 전의 결론이 시작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shallach* — 떠나보내라, 계산이 닫히기 전에.

미해결 질문

전도서 1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11:1) — 해상 무역인가, 관용인가, 씨뿌림인가?

- 곡물을 배로 떠나보내는 상업의 그림(왕상 10:22), 가난한 이에게 주는 관용의 그림(잠 19:17, 전도서 랍바의 전통), 물 댄 땅에 뿌리는 파종의 그림 — 세 독법이 갈라진 채 닫히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계산이 닫히기 전에 떠나보낸다'는 동작은 같다. 그 대담함만 쥐고 해석은 보존.

Q2.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11:2) — 이 숫자 사다리는 분산인가 관대인가?

- $x/x+1$ 의 점층 수사(욥 5:19, 미 5:5)가 위험 분산의 산수인지, '충분하다고 여긴 데서 하나 더'라는 관대의 문법인지 — 두 결이 겹친 채 열려 있다. 재앙의 무지가 근거라는 사실만 관찰로 확보. 보존.

Q3. 11:5의 불가지는 둘인가 하나인가 — 바람과 빠, 혹은 빠에 드는 바람(ruach)?

- 마소라 본문의 ka'atsamim(빠들처럼)을 일부 사본은 ba'atsamim(빠들 속으로)으로 읽어, '바람(숨)이 태 속의 빠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한 그림이 되는 갈래가 있다. 두 불가지인가, 생명의 숨이라는 한 불가지인가 — 본문 비평의 미해결로 이월. ruach의 이중성(바람·숨·영)도 함께 보존.

Q4. 11:9 — "행하라"와 "심판하실 줄 알라"는 모순인가 한 호흡인가?

- 즐기라는 명령과 물으실 것이라는 인식이 접속사 하나로 묶여 있다. 후대 첨가를 말하는 논의는 배경으로 두고, 현재 본문이 둘을 한 문장에 둔 그대로를 관찰로 보존 — 자유를 지우는 무계인지, 자유를 진짜로 만드는 무계인지는 닫지 않는다.

Q5. shacharut(11:10) — 검은 머리인가, 인생의 새벽인가, 무분별인가?

- 구약 단 1회 어휘. 어근을 shachor(검다)로 읽는 갈래, shachar(새벽)로 읽는 갈래, LXX의 ἄνοια(어리석음)까지 — 번역사가 곧 이 단어의 미해결 기록이다. 보존.

Q6.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11:8) — habba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죽음 이후의 일인지, 살아서 맞을 미래 전체인지, 캄캄한 날들 자체인지 — 지시 대상이 비어 있다. 즐거움의 권면 한가운데 놓인 이 hevel이 어느 시간을 재는지, 12장의 결론에 닿기 전까지 닫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전도서 12장

ECC-012 · 시가서 · 히브리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zekhor et-borekha)"(12:1)는 명령 아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한 집이 저무는 노년의 그림(12:2-7)이 펼쳐지고, 흙은 땅으로·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헛되고 헛되도다"(12:8)가 1:2와 괄호를 닫은 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kol-haadam)"(12:13)이라는 닛에 닿는 — 전도서의 종결.

관찰된 사실

전도서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삼중 무대: 저무는 집(12:1-7) → 무덤 길과 우물가 → 등불 켜진 서재(12:9-12) → 법정의 예고(12:14).
- 배경막: 어두워지는 해·빛·달·별, 비 뒤에 다시 일어나는 구름(2절) — 개지 않는 날씨.
- 소품(집): 땃돌, 창, 길거리의 문, 새, 노래. 소품(길): 살구나무 흰 꽃, 메뚜기, 조문객.
- 소품(우물가 네 가지): 은 줄, 금 그릇, 향아리, 바퀴 — 가장 빛나던 것과 가장 매일 쓰던 것이 같은 절에서 부서짐(6절).
- 소품(서재): 잠언들, 아름다운 말, 채찍, 못, 쌓인 책들(9~12절). 마지막 소품은 처음의 재료 둘 — 흙과 숨(7절).
- 소재의 세 무더기: 저무는 것들(천체·집·몸) · 부서지는 것들(줄·그릇·향아리·바퀴) · 남는 것들(말씀·경외·심판) — 짧은 무더기가 끝에 놓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슬픈데 아름다움 — 쇠락을 은·금·꽃·노래의 언어로 그리는 역설. 조롱이 아니라 배웅의 결.
- 1:5의 해는 혈떡이며라도 다시 떠올랐는데 12:2의 해는 어두워지기만 함 — 같은 천체의 정반대 운동.
- 3~5절 "~할 것이며"의 미래형 행렬(아홉 번 이상) — 끝에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라는 도착지가 명시된 방향 있는 저물.
- 6절의 네 번 부서지는 소리(풀리고·깨지고·깨지고·깨지고)와 7절의 고요 — 소리 뒤의 침묵이 더 큼.
- 한 장 안의 세 문체: 명령 아래의 시(1~7) → 선언(8) → 후기의 산문(9~14).
- 12:12 "내 아들이" — 잠언의 호칭을 빌리는 끝. 시가서 두 책이 같은 책상에 앉는 공기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zekhor et-borekha)."
-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 기억의 명령으로 열려 심판의 선언으로 닫힘 — 첫 절의 하나님은 지으신 분, 끝 절의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분.

- 권 차원: 1:1의 문패(3인칭)와 12:9-10의 후기(3인칭)가 1인칭 실험 보고 전체를 액자처럼 감쌌.
- 12:8 = 1:2 — 헤벨의 괄호가 닫히는데, 결론(13~14절)은 그 괄호 바깥에 놓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너'(청년 — 12:1에서 처음 정면 호명되는 독자), 창조주, 집의 사람들(지키는 자들·힘 있는 자들·맷돌질 하는 자들·내다보는 자·음악 하는 여자들·조문객들), 전도자(8절부터 3인칭), 백성, 지혜자들, 회중의 스승들, 한 목자(roeh echad — 임자 미명시), '내 아들', 하나님(심판자).
- 중심 사상: 기억의 시제 — 노년의 회고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시작하는 동작. 11:9의 "즐거워하라"와 12:1의 "기억하라"가 같은 청년에게 한 쌍으로 주어짐.
- 에필로그의 다섯 단: 자격(9절) — 기록의 성실(10절: 아름다움과 정직의 이중 보증) — 말씀의 두 작용(11절) — 경계(12절) — 결론과 봉인(13~14절).
- 11절의 두 도구: 채찍(움직이게 함)과 못(머물게 함) — 방향이 반대인 두 작용이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 12:12의 자기 언급 유머: 책의 끝머리에서 책 만들기의 끝없음을 경계함. 1:8의 피곤(만물)과 12:12의 피곤(공부)이 수미.
- kol-haadam(12:13) — 원문 직역 '사람의 전부'. '본분'에 해당하는 단어는 원문에 없음 — 번역 폭의 관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명령 —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 컷 2 (2~7절): 저물의 알레고리 — 천체(2), 집(3~4), 길과 영원한 집(5), 우물가의 부서짐(6), 흙과 영의 두 귀향(7).
- 컷 3 (8절): 메아리 — 헛되고 헛되도다, 1:2와의 수미.
- 컷 4 (9~12절): 후기 — 자격·성실·채찍과 못·한 목자·책 경계.
- 컷 5 (13~14절): 닻 — 경외와 준수, 사람의 전부, 은밀한 일의 심판.
- 컷 2 내부의 하강 사다리: 하늘 → 집 → 길 → 우물 → 흙. 7절에서만 방향이 둘로 갈라짐 — 흙은 아래로, 영은 위로.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zekhor*(זָכַר) — 기억하라. 출 20:8·신 8:18 계보의 명령형. 12:1-7 전체를 지배하는 동사.
- *borekha*(בֹּרֵךְ) — 너의 창조주. bara 분사 복수형 + 2인칭 접미.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부르는 유일한 절. 6절의 bor(우물·구덩이)와의 소리 겹침은 발음 관찰만.
- *behurot*(בְּחֻרוֹת) — 청년의 때. 구약에서 전도서에만(11:9·12:1).
- *shaked*(שָׁקַד) — 살구나무(아몬드). 이른 봄 가장 먼저 흰 꽃을 피움. 렘 1:11-12의 '지켜보다(shoked)' 소리 결합 — 배경. / *chagav*(חָגַב) — 매뚜기. / *aviyyonah*(אֵיִיִּוְנָה) — 정욕으로 번역된 단어. 본뜻은 풍조목 열매. LXX κάππαρις.
- *bet olam*(בֵּית עוֹלָם) — 영원한 집·무덤. 구약 유일례.
- *chevel hakesef*(은 줄) — chevel(줄)과 hevel(입김)은 별개 단어이나 소리가 가까움(형태 관찰만). / *gullat hazzahav*(금 그릇) — 속 4:2-3의 등잔 대접 계열. / *kad*(항아리) · *galgal*(바퀴·도르래).
- *afar*(חֹם) · *ruach*(영·숨) · *shuv*(돌아가다) — 창 2:7과 3:19의 어휘가 12:7로 그대로 옴. ruach의 권 내 마지막 용례가 귀향 동사와 결합.

- *darbonot*(채찍·몰이 막대) · *masmerot*(못) — 11절 직유의 두 도구. / *roeh echad*(한 목자) — 임자 미명시.
- *kol-haadam*(כָּל־הָאָדָם) — 사람의 전부. 개역 '모든 사람의 본분'. 의무 목록과 존재 선언 사이의 번역 폭.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명령(1절) + 알레고리(2~7절) + 메아리(8절) + 후기(9~12절) + 닷(13~14절) — 다섯 단의 종결 구조.
- '전에(*ad asher lo*)'의 세 번 사슬(1·2·6절)이 알레고리를 세 토막으로 묶고, 매 토막을 12:1의 명령에 매듭 — 저물의 그림 전체가 기억의 마감 시한 공지.
- 12:8의 위치: 1:2에서는 출발 선언, 12:8에서는 검증 보고 — 같은 문장의 달라진 무게.
- 1:3 *yitron*(남는 것) 질문 ↔ 12:13 *kol-haadam*(사람의 전부) — 계산서의 질문이 존재 선언으로 회답됨. 질문의 단위가 바뀜.
- 3:21의 의문문("위로 올라가는지 누가 알라")이 12:7의 서술문("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으로 — 권 안에서 문법이 움직인 거리.
- 10절의 이중 보증: 아름다운 말들(*divrei chefts*) + 정직한 기록 — 다듬되 휘지 않음.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이집트 프타호텝의 교훈 서문 — 노년의 쇠함을 목록으로 늘어놓은 뒤 지혜를 전수하는 형식 — 12:2-7의 장르 배경.
- *darbonot*(채찍)은 근동 농경의 소몰이 막대 — 12:11 직유의 일상 배경.
- 근동 지혜 문서의 콜로폰(말미 표기) 관행 — 12:9-14 에필로그의 형식 배경.
- 직업 조문객의 거리 왕래 — 근동 장례 문화, 12:5의 배경.
- 탈무드 샤바트 151b-152a·코헬렛 랍바의 신체 대응 독법(손·다리·아·눈) — 본문 확정 아님, 독법의 배경.
- LXX: *borekha*(복수형) → 단수 τοῦ κτίσαντός σε, *aviyyonah* → κάππαρις, *hevel* → ματαιότης(1:2와 동일 보존), *roeh echad* → ποιμένος ἐνός — 번역 폭의 증거,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전 12:8 ↔ 전 1:2 (헛되고 헛되도다 — 권 전체를 감싸는 수미)
- 전 12:13 ↔ 전 1:3 (경외의 결론 ↔ *yitron* 질문 — 닷과 물음의 머리-꼬리)
- 전 12:1·14 ↔ 전 11:9 (청년 호명과 심판 예고 — 즐거워하라와 기억하라의 한 쌍)
- 전 12:7 ↔ 창 2:7 · 창 3:19 (흙과 숨의 왕복 — 받은 것이 주신 분께 돌아감)
- 전 12:7 ↔ 전 3:20-21 (누가 알라의 의문문이 돌아가느니라의 서술문으로)
- 전 12:13 ↔ 잠 1:7 · 욥 28:28 (경외 — 잠언은 출발점에, 욥기는 폭풍 뒤에, 전도서는 결론에 두는 시가서의 합류)
- 전 12:1 ↔ 시 90:12 (날을 세는 지혜 — 때를 기억하는 기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아침 빛 속의 청년 어깨 너머로 자막이 걸린다 —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늘이 저문다.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차례로 꺼지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몰려온다. 한 채의 집 — 문지기들의 손이 떨리고 허리가 굽고 땀줄 소리가 멎고 창가의 눈이 흐려진다. 문이 닫히고 새소리에 잠이 깨고 노래가 잦아든다. 언덕길의 살구나무에 흰 꽃이 가득하고, 메뚜기 한 마리가 무겁고, 거리에 조문객이 오간다. 우물가 — 은 줄이 풀리

고 금 대접이 깨지고 향아리와 도르래가 부서진다. 고요. 흙이 아래로, 숨이 위로 — 주신 분께로. 어둠 속에서 낮익은 음성 — 헛되고 헛되도다. 등불 켜진 서재에서 한 사람이 말들을 고르고 정직하게 적는다. 채찍과 단단히 고정된 못, 그리고 자막 —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쌓인 책 곁의 권면 — 내 아들이, 책 짓는 일은 끝이 없단다. 모든 화면이 모인다 —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이다. 은밀한 모든 일이 빛 앞에 놓이는 예고와 함께, 책이 덮인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은 줄이 풀리기 전에 — 기억하라는 명령과 팔호 밖의 닻"
- 초벌 부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zekhor et-borekha)'"는 명령 아래 노년의 집이 저물고(12:2-7) 흙과 영이 각각 제 곳으로 돌아가며, 1:2의 헤벨 팔호가 닫힌 뒤(12:8) 3인칭 에필로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이다 — 사람의 전부(kol-haadam)'(12:13)로 권을 거두는 전도서의 종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4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다섯 단 종결 구조 + '전에' 세 번 사슬 + 1:2↔12:8 수미 + 프타호텡·콜로폰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완주의 매듭)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2:2-7의 알레고리를 신체 대응표(손·다리·이·눈)로 확정하지 않고, 랍비 전통의 대응 독법과 풍경 독법을 둘 다 열린 관찰로 병기.
- 12:13의 경외 결론을 교리 체계의 명제로 봉합하지 않고, 헤벨 팔호 바깥이라는 위치와 권의 도착점이라는 형식의 관찰로 둬.
- roeh echad(한 목자)를 특정 인물·기독론으로 단정하지 않고, 임자가 비워진 문장의 관찰과 미해결로 보존.
- 12:14의 심판을 종말론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11:9의 예고와 호응하는 권 내부 봉인의 관찰로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전도서 12장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zekhor et-borekha)"(12:1)는 명령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한 집이 저무는 알레고리(12:2-6)를 매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12:7)라는 두 귀향에서 창세기 2:7의 왕복을 완성한 뒤, "헛되고 헛되도다"(12:8)로 1:2의 팔호를 닫고, 3인칭 에필로그(12:9-12)를 지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

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kol-haadam)이니라"(12:13)와 심판의 봉인(12:14)으로 권 전체를 거두는 — 전도서의 종결이다.

한 문단: 아침 빛 속의 청년에게 명령이 떨어진다 —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전에'의 그림들이 펼쳐진다. 해와 빛과 달과 별이 꺼지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몰려온다. 한 집의 손이 떨리고 허리가 굽고 땀들이 맺고 창가의 눈이 흐려진다. 살구나무에 흰 꽃이 피고 메뚜기조차 짐이 되고, 사람은 영원한 집으로 길을 잡고 조문객이 거리를 오간다. 우물가에서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향아리와 도르래가 부서진다. 그 모든 소리 뒤의 고요 속에서 흙은 아래로, 숨은 위로 — 주신 분께로 돌아간다. 낮익은 음성이 한 번 더 울린다 —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데 책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등불 켜진 서재에서 누군가 전도자를 보증한다 — 그는 아름다운 말들을 힘써 구했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적었다고. 지혜자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단단히 고정된 못 같으며,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들이 닳을 내린다 —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 책이 덮인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저무는 집 — 무덤 길 — 서재의 삼중 무대. 은 줄·금 그릇·향아리·바퀴라는 우물가 네 살림. 마지막 소품은 흙과 숨.
2 첫 느낌·분위기	슬픈데 아름다움 — 쇠락을 귀한 언어로 배웅. 아홉 번의 미래형 행렬. 네 번 부서지는 소리와 그 뒤의 고요.
3 시작과 끝	기억의 명령(1절)에서 심판의 선언(14절)으로. 1:1 문패와 12:9-10 후기의 3인칭 액자. 결론은 헤벨 괄호 바깥에.
4 등장인물·사상	처음 정면 호명되는 '너'(청년). 임자가 비워진 한 목자. 기억의 시제 — 청년의 때. kol-haadam의 번역 폭.
5 장면 컷	명령(1)/저물(2~7)/메아리(8)/후기(9~12)/닳(13~14)의 5컷. 컷 2는 하늘→집→길→우물→흙의 하강, 7절에서 두 방향으로 갈라짐.
6 의문·발견·정보	'전에' 세 번 사슬. 같은 문장(hevel)의 달라진 무게. 채찍과 못의 반대 방향 두 작용. 프타호텝·콜로폰 배경.
7 동영상	아침의 명령 → 저무는 천체와 집 → 우물가의 부서짐 → 두 귀향 → 서재의 등불 → 경외의 닳, 책이 덮임.
8 초별 제목·부제	"은 줄이 풀리기 전에 — 기억하라는 명령과 괄호 밖의 닳"
9 기도·내면	'전에'를 세 번 들었다. 아직 그 전에 있는 시간 — 기억이 지금을 향한 동사라는 것만 쥐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zekhor, 기억의 시제:** 12:1의 명령은 회고가 아니라 선제다. 노년에 돌아보라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 그리고 '전에(ad asher lo)'가 1·2·6절에서 세 번 울리며 저물의 그림 전체를 이 명령의 마감 시한으로 묶는다. 알레고리가 길고 아름다울수록 명령은 무거워진다. 본문이 늙음을 길게 그리는 까닭은 늙음 자체가 아니라, 아직 은 줄이 매달려 있는 시간을 가리키기 위해서다.

2. **결 2 — afar와 ruach, 두 귀향:** 12:7은 창세기 2:7을 거꾸로 감는다. 흙으로 지어지고 숨을 받은 사람이, 흙은 땅으로 숨은 주신 분께로 되돌린다. 하강만 하던 알레고리의 사다리(하늘→집→길→우물)가 이 절에서 처음 두 방향으로 갈라진다 — 아래로 가는 것과 위로 가는 것. 그리고 3:21에서 "위로 올라가는지 누가 알라"라

던 의문문이 여기서는 "돌아가느니라"라는 서술문으로 온다. 권 안에서 한 문장의 문법이 의문에서 서술로 이동한 거리 — 그것이 열두 장의 거리다.

3. 결 3 — 괄호 밖의 닻: 12:8이 1:2와 같은 문장으로 헤벨의 괄호를 닫는다. 괄호 안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헛됨이다. 경외의 결론은 그 바깥, 3인칭의 에필로그에서 말해진다. 헛됨이 경외로 취소되지 않고 경외가 헛됨에 잠기지도 않는 이 배치 — 열한 장의 정직한 통과 위에 놓이기에 12:13은 우회로가 아니라 도착이다. 잠언이 출발점에 둔 경외(1:7)를, 욥기는 폭풍 뒤에(28:28), 전도서는 결론에 둔다. 시가서 세 책이 각자 다른 끝에 서 같은 닻을 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전 1:2 — "헛되고 헛되며" — 12:8과 권 전체를 감싸는 수미.
- 전 1:3 — yitron(남는 것)의 질문 — 12:13의 kol-hadam(사람의 전부)이라는 존재 선언으로 회답됨.
- 전 11:9 — 청년이여 즐거워하라, 심판하실 줄 알라 — 12:1의 호명과 12:14의 봉인을 미리 당겨 둬.
- 창 2:7 · 창 3:19 — 흙과 숨의 기원 — 12:7이 완성하는 왕복.
- 전 3:20-21 — 누가 알랴의 의문문 — 12:7의 서술문이 받는 앞선 물음.
- 잠 1:7 · 욥 28:28 — 경외의 모토 — 시가서 세 책이 합류하는 결.
- 시 90:12 — 날을 세는 지혜 — 때를 기억하는 기도의 이웃.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2:1의 '너는'에서 시작한다 — 열한 장 동안 남의 실험 보고를 듣던 내가 처음으로 정면에서 불린다. 명령의 내용이 행동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에 멈칫한다.
- **멈춤 1:** 12:5-6에서 멈춘다 — 살구나무 흰 꽃과 풀리는 은 줄. 쇠락이 이렇게 고운 언어로 그려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살림의 줄과 그릇도 같은 길 위에 있다는 것.
- **멈춤 2:** 12:7에서 멈춘다 — 흙은 아래로, 숨은 위로. 받은 곳이 있는 숨은 돌아갈 곳이 있다. 내 숨의 출처를 생각한다.
- **끝:** 12:13에서 멈춘다 — 사람의 전부. 본분이라는 의무의 단어와 전부라는 존재의 단어 사이에서, 경외가 어느 쪽 단어에 담기는지 쥐고 책을 덮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명령(1)·알레고리(2~7)·메아리(8)·후기(9~12)·닻(13~14)의 다섯 단 완결
- [x] 12:8과 1:2의 수미 호응 + 결론의 괄호 밖 배치
- [x] '전에' 세 번 사슬과 알레고리의 종속 구조
- [x] 12:7의 두 귀향과 창 2:7 왕복
- [x] 에필로그 다섯 단(자격·성실·작용·경계·결론)의 보증 절차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전도서의 spine은 '해 아래 모든 것의 헛됨을 정직히 통과시켜,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닻에 이르게 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12:13)이다 (book-telos). 12장은 그 destination 자체 — 권의 도착점이다. 권의 흐름을 회고하면, 1~2장이 헤벨 선언과 실험의 국면이었고(수고·웃음·포도주·사업·소유의 결산이 전부 적자), 3~11장이 때와 분깃과 하나님의 선물의 국면이었으며(때의 시, 분깃의 회복, 떡과 포도주의 일상, 물 위에 던지는 파종), 12장에서 기억과 경외의 결론

이 닻을 내린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장은 창세기 2:7-3:19의 두 실을 한 매듭으로 거둔다 — 흠으로 지어진 사람이 흠으로 돌아간다는 선고(3:19)가 12:7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되, 같은 절에서 숨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선고의 절반은 하강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귀향이다. 그리고 1장에서 단 한 번, 수고를 '주신' 분으로만 등장하시던 하나님이 12장에서는 창조주(1절)·숨을 주신 분(7절)·심판자(14절)로 세 번 호명된다 — 해 아래로 뒹뒹던 시야가 권의 끝에서 해 위로 열리는 좌표 이동이다. 헛됨의 긴 통과가 없었다면 이 경외는 값싼 결론이 되었을 것이다. 1장이 바다의 깊이를 채는 장이었다면, 12장은 그 바다에 닻을 내리는 장이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헤벨 선언(1:2)에서 실험(1~2장)으로 / 실험에서 때와 분깃과 선물(3~11장)로 / 파종의 권면(11장)에서 기억의 명령(12:1)으로 / 그리고 헛됨의 괄호가 닫힌 뒤(12:8) 경외의 닻(12:13)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2장은 '남는 것이 있는가'(1:3 yitron)라는 결산의 질문을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12:13 kol-haadam)라는 존재의 선언으로 회답하는 운동이다. 계산서의 단위로 물었던 질문이 존재의 단위로 답을 받는다 — 잔액이 아니라 전부로. 그 사이에서 알레고리는 기억의 마감 시한을 세 번 공지하고(ad asher lo), 흠과 숨은 각자의 출처로 돌아가고, 1인칭의 실험 보고는 3인칭의 보증 안에 안치된다. 권을 닫는 마지막 동사들은 경외하라와 지키라 — 열두 장의 긴 관찰이 두 개의 현재형 명령으로 압축된다. 그리고 이 도착은 시가서서가 안의 합류이기도 하다. 읊기가 폭풍을 지나 닻은 경외, 잠언이 출발점에 둔 경외, 전도서가 결론으로 거둔 경외 — 세 책의 세 경로가 같은 닻에 모인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쇠락의 목록이다 — 떨리고 굵고 멎고 흐려지고 부서지는.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이 목록의 언어가 귀하다. 본문은 늙음을 폐품의 언어가 아니라 은과 금과 꽃과 노래의 언어로 그린다 — 부서지는 것들이 원래 등잔을 들고 생명을 길던 귀한 것들이었다는 시선이 그림 전체에 깔려 있다. 쇠락의 알레고리가 동시에 존엄의 알레고리다. 둘째, 저물의 그림 전체가 한 명령의 부속이다. 2~7절의 어떤 절도 독립 선언이 아니라 12:1의 '기억하라'에 매달린 종속절이다 — 본문이 어둠을 길게 보여 주는 목적이 어둠이 아니라 아직 빛이 남은 때를 가리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문장의 구조 자체에 새겨져 있다. 셋째, 숨의 출처가 끝에서 밝혀진다. 권 내내 ruach는 돌기만 하는 바람이었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바람이었다. 그 단어의 마지막 용례(12:7)에서야 이 바람이 '주신' 것이었음이,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음이 말해진다. 잡히지 않던 것이 사실은 선물이었다는 것 — 1장의 빈 손바닥이 12장에서 출처를 알게 되는 운동이, 수면 아래의 가장 깊은 결이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지금 어느 '전에'에 있는가. 은 줄이 아직 매달려 있고 두레박이 아직 오르내리는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 누구를 — 기억하며 사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겁주려고 저물을 그리지 않는다. 다만 해가 어두워지기 전의 시간을 살고 있는 '너'를 정면으로 부르고, 그 시간의 이름이 청년의 때라고 알려 주고, 기억하라는 한 동사를 맡긴다. 그리고 권의 끝에서 두 개의 현재형 — 경외하라, 지키라 — 를 사람의 전부로 건넨다. 헛됨의 열한 장을 정직하게 통과한 독자만이 이 명령의 무게를 안다. 적자투성이 결산서를 다 읽고도 책이 절망으로 닫히지 않는 까닭은, 숨에 출처가 있고 출처에는 돌아갈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 출처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는 것 — 그것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권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결산의 책이 덮이고 노래의 책이 열린다 — 헛됨을 정직하게 통과한 일상 위에 "노래 중의 노래(쉬르 하쉬림)"가 들어서고, 아가에서 사랑이 해 아래의 날들을 채우기 시작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zekhor* — 기억하라, 아직 '전에'인 시간의 동사.

미해결 질문

전도서 1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borekha(12:1) — 복수형으로 적힌 '너의 창조주'와 bor(우물)의 소리 겹침은 어디까지인가?

- bara 분사의 복수형이 단수 하나님께 붙는 형태(위임의 복수로 설명되곤 함), 그리고 6절의 우물(bor)·구덩이와의 발음 근접. 형태와 소리의 관찰을 넘어서는 순간 추측이 된다. 보존.

Q2. 12:2-7의 그림들 — 몸의 알레고리인가 저무는 마을의 풍경인가?

- 탈무드·미드라쉬의 신체 대응 독법(손·다리·이·눈·백발)과, 폭풍 뒤 멈춘 마을을 그대로 읽는 풍경 독법. 살구나무 꽃이 백발인지 이른 봄의 흰 꽃인지 — 본문은 어느 쪽에도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다. 두 길 모두 보존.

Q3. roeh echad(12:11) — '한 목자'는 누구인가?

- 지혜자들의 여러 말이 한 손에서 나왔다는 문장에서 그 손의 임자가 비어 있다. 하나님인지, 솔로몬인지, 전도자 자신인지 — 시 23편을 떠올리게 하지만 본문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보존.

Q4. 12:9-14의 3인칭 — 누구의 목소리인가?

- 권 내내 '나'였던 전도자가 '그'로 불리는 전환. 편집자의 후기인지, 전도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액자인지, 승을 보증하는 제자의 손인지 — 1:1의 문패와 함께 액자의 임자는 열려 있다. 보존.

Q5. kol-haadam(12:13) — '모든 사람의 본분'인가 '사람의 전부'인가?

- 원문에는 '본분'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경외와 준수가 의무의 항목인지 사람이라는 존재의 전체인지 — 번역의 폭 자체가 이 절의 깊이를 보여 준다. 어느 한쪽으로 누르지 않고 보존.

Q6. 결론이 헤벨 괄호(1:2~12:8) 바깥에 놓인 배치 — 이 위치는 무엇을 하는가?

- 괄호 안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헛됨이고 경외는 괄호 밖에서 말해진다. 결론이 본문 안의 발견인지 본문 뒤의 보증인지, 이 배치가 헛됨과 경외의 관계를 어떻게 두는지 — 권을 덮은 뒤에도 닫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